朝鮮日報 夕刊 二日(土)

社說 教育朝鮮에의 緊急動議

一

朝鮮에 무엇이 緊急하지 안흠이 잇스리오만 敎育처럼 緊且急한것은 업다. 初等學校 就學兒童은 全學齡兒童의 二割도 未滿하는 形便이오, 中等學校生徒도 實業學校를 合하고 人口 一千人에 對하야 二·二人에 不過한 狀態이며 專門, 大學은 十指를 不屈하는 形便이다. 이리하야 本社는 新春 關係各方面에 緊急動議로서 四、五問題를 提起하야 意見을 들은바 大槪 平素 吾人이 主張한바와 가튼 結論을 엇게된것은 吾人의 欣快히 여기는 同時에 吾人의 主張이 얼마나 現實的 要求를 完全히 反映하엿는가를 證明하는바로서 一層 自信을 鞏固히하는바이다.

二

첫재 學齡兒童의 義務敎育問題에 잇서서는 누구나 모든 緊急한것을 主張하고 數三人은 그 財源問題에 對해서도 一一히 指摘하야 決코 義務敎育이 不可能하지 안흔것을 示하얏다. 特히 第五의 普校校長의 朝鮮人採用問題와 이것을 關聯시켜 그 財源의 捻出策의 하나로 삼을것을 指摘한이가 만흔것은 가장 時期의 適切한 主張인것 갓다.

三

둘재 中等敎育에 잇서서 實業敎育을 偏重한다는 問題에 對해서는 相當한 議論이 잇섯는데 實業敎育은 必要하다는 이가 잇고, 實業學校關係者로서는 批評할 餘地가 困難한것을 말하는 이도 잇섯스나 大體로서 實業敎育을 偏重한다는데 對해서는 反對의 意見을 가젓다. 卽 實業敎育은 必要하나 中等敎育을 全然 實業敎育으로만 偏重함은 國民의 理想을 앗게할 憂慮가 잇스니 今後 設立되는 學校를 實業學校에 限한다면 그 弊가 莫大하리라한것은 至當한 말이다.

四

셋재 私立學校의 認可條件을 까다롭게하야 財團 百萬圓을 積立하라 하는데는 누구나 反對하얏스니 學校가 不足한 現下에 잇서서 學校를 奬勵하는 意味에서나 現在 三、四十萬의 財團을가진 中等學校가 相當한 成績을 올리고 잇다는 點으로 보나 現實에 맛지안는 때문이라 하는것이다. 그中에도 이것을 私立學校制限問題와 關聯시키라는듯이 말한 이도 잇거니와 當局에 그러한 政策이 잇스리라고는 밋지 안흐나 萬一 單純한 財團鞏固의 이름으로 이것을 徹底히 한다 할진대 現實的 要求를 輕視한다는 批難을 免치 못할것이다.

五

넷재 專門學校入學者에 잇서서 日本內地人과 朝鮮內地人의 入學率이 三對一 乃至 四對一의 公然한 差等이잇는 問題에 對해서도 모두 當局의 處事의不公正한것을 말하고 某校校長은 卒業後의 就職周旋問題에 이것을 關聯시켜 論하얏지만 이거이 公然한 不公正은 迅速히 改正되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다섯재 普校校長을 朝鮮人으로 하라함에 對한 問題는 敎育의 感化上의 影響을 들어 一齊히 朝鮮人校長을 贊成하얏스니 이것도 當然한 結論이라할 것이다.

特別軍法會議結果 張學良處分決定

十個年禁錮廿五年公權剝奪

但、特赦令에浴할듯

(寫眞은 張學良氏)

【南京三十一日發同盟】本日의軍法會議結果 午後四時張學良氏에 對하야 十個年의 有期徒刑및二十五年間의 公權剝奪에 處할 宣告가 잇슨旨言發表되엿다

【南京三十一日發同盟】張學良氏를 處斷할特殊軍法會議는 三十一日公判에서 張氏를 十年禁錮에處하기를 決定하엿다 但 一月一日을 期하야 特赦令이 發表되고 張氏도 當然 그特赦에 浴케될것이다

【南京三十一日發同盟】中央政治會議에서 張學良氏의 處置를委任바든 軍事委員會는 裁判長李烈鈞氏 陪審官朱培德, 鹿鍾麟氏로서된 特別軍法會議를 組織하얏다 右法廷은 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嚴重한 警戒裡에 開廷되며 被告張學良氏는 宋子文氏에게 同伴되야 出廷、李裁判長의 審問에對하야

今回事件은 國家民族의 自由平等을 認定키爲하야 된것인데 그責任은 自己가 負한다는것 및蔣介石氏에 對하야 保護하엿다 殺意를 表하야 明確히 答하고 審理는 約一時間으로 終了되엿다 도公判內容은 三十一日附로 發表될터이다

日蘇漁業暫定契約 延長手續三十一日終了

【東京電話同盟】滿洲二十八日莫斯科에서成立한 日蘇漁業暫定協定主旨에基하야 我當局者는 廣田 카라한日蘇漁業暫定契約延長手續을昭和十一年中에行코저 蘇聯側과折衝中이든바, 右手續은三十一日極東漁業廳과 我當局者와의間에終了한旨三十一日在海蔘威杉下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報告가잇섯다

人事·集會

◆徐在弼氏 身病으로療養中一日午前七時別世

個個事件을解決 日支交涉本格化

兩國國交關係漸次明朗化期待

【東京電話同盟】九月中旬부터의日中交涉은 三個月半만에 [illegible] 三十日겨우 成都北海兩不祥事件의 解決을 보게되엿는데 外務省으로서는 新春에다시 交涉을 進行하야 漢口, 吉岡巡査事件上海陸戰隊事件其他 各排日不祥事件의 解決을 企圖하고 日中間의 懸案解決을 企圖할方針이다 一方日中國交의 調整을 目標로한 日中 交涉은 十二月三日川越駐中大使로부터 文書로서 意見一致點을 明白히하고 中國側의實行을 要求中인데 成都北海兩事件과如히 各不祥事件이 漸次圓滿한 解決을보게되면 停頓中의 本交涉도軌道에 復하야 日中關係는 漸次明朗化할것으로 期待된다

스탄들 提督引退 後任에는리히長官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米國海軍作戰部長윌리암·스탄들레-提督은 定年引退키로되고三十一日引退式을 行하엿다 後任에는 現戰鬪艦隊司令長官윌리암·리히提督이 就任하엿다 스탄들레-提督은 今年六十四歲 十九歲로 海軍에 몸을던진以來 前後四十五年에亘하야 米國海軍의 隆盛에 貢獻하고 昨年海軍軍縮會議에는 首席全權으로 活躍하엿다

賠償金收受終了

【南京三十日發同盟】成都、北海兩事件에 對하야 三十日 午前午後 兩回에 亘한 交涉의 須磨總領事 高宗武 亞洲司長間에 意見一致된結果 川越大使 張群部長間에 公文交換을 完了하고 賠償金의 受授를終了하얏다。

八面鋒

◇ 新年도 벌서三日。

◇ 여러분 新年의計畫은 모다 드든히 차리셧습니까。

◇ 京城大路에는 발서 初荷의 수레가 東馳西驅합니다。

◇ 새事業 새活動은 이미 猛烈히 開始되얏습니다。

◇ 이 바뿐時代 이무서운世紀에 남과가티 살라하면 남과 가티일하여야 합니다。

◇ 計畫的 組織的 科學的으로 個人으로나 社會로나 물샐틈업시 生活의城壘를 싸허야합니다。

◇ 生活의 攻防戰、여기서 이기고 짐에依하야 우리의盛衰와 興亡은 決定될것입니다。

◇ 新年人事대신 이러한넘두리를 드려둡니다。

年頭辭

警務局長 三橋孝一郞

(一日附本紙一面에서續)

[illegible] 도共産[illegible] 無[illegible] 이러한것도 [illegible] 못 [illegible] 보이고잇슴을 [illegible] 하나 [illegible] 大會에서의 [illegible] 決議는 共産黨 [illegible] 에 對한 新戰術方針을 [illegible] 하야 그結果 歐洲에서는 佛國 西班牙等에 東洋에서는 中國에 [illegible] 反響을 [illegible] 하고잇는것은 일즉이 吾人의 알고잇는바인데 朝鮮에서도 決코 對岸의 火災視할수는업다。

我帝國은이 世界赤化의 魔手에 對抗하야 國內의 安寧을 保持하야 人類의幸福을 圖키爲하야 [illegible] 者日獨防共協定을 締結하고 이어서日伊協定을 締結하야 防衛의 堅陣을 構築함에이르럿는데 此等 不穩運動에 對하야는 寸毫도 假借함이업시 또 적어도 國體의 尊嚴을 冒瀆하고 國策의 遂行을 防害하며 或은 民心의 惑亂을 企함과 如한 際에 對하야도 嚴乎한 取締를 加하야 이의 撲滅을 期할 覺悟이다。

다음으로 半島에서의 [illegible] 界의 狀勢를 通觀하면 大槪 [illegible] 히 中正穩健으로써 多事한 時局에 處하야 文化의 向上開發에 [illegible] 하야 [illegible] 에 貢獻하고잇슴은 참으로 欣快하는바이다。回顧컨대 昨年은 全혀 多事多端하야 施政上各種의 施設은 勿論 大小幾多의 警察事故를 頻發하얏고 特히 我國未曾有의 不詳事件인 所謂 二·二六事件 或은 滿蘇國境紛爭事件 或은 北中問題等 重要한 事態가 [illegible] 하야 發生하엿스며 朝鮮에서도 中南鮮方面에 稀有의風水害가 發生하는 等 記事의 禁止、制限等 相當多數함에 不拘코 各種言論機關은 善히 當局의 方針을 理解하야 興論의 指導와 民心의 安定에 寄興하얏스므로 當局의 施設取締와 相俟하야 治安上 些少의 動搖도업시 靜謐을 어든일은 참으로 幸慶이라고 생각한다。다만 朝鮮文新聞一、二에 잇서서 不注意한 編輯을 한結果 發行停止의 處分을보게되엿슴은 半島言論界를 爲하야 [illegible] 한것이다。

[illegible] 는 [illegible] 히 [illegible] 하고 [illegible] 한것으로 [illegible] 이제半島는 [illegible] 庶政一新의 [illegible] 協力을期待하는바 [illegible] 는바는 [illegible] 세로하야 [illegible] 立脚半島文化의 [illegible] 協力이잇기를希望하는바이다。

半島保健衛生의 狀況은 十數年來新大改善되고 年來그成績이 顯著한바잇스나 아즉不備한點도만코 將來施設을要할것도 적지안타 그中近年特히 一般民間에서도 [illegible] 되고 當局에서도 그必要를認하야 特히힘을쓰고잇는것이 癩豫防、麻藥中毒豫防、結核豫防特殊學校及工場의結核豫防 [illegible] 의普及精神病者의監護等이잇는데 이中에서 [illegible] 豫防과麻藥中毒의豫防과는 官民의協力에依하야 相當히 良好한成績을 收하고잇는現況이나 其他는 財政其他의 事情에 依하야 아즉施設에着手한것이업는것은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며 今後事情의許하는限 可及的 速히 이의實現을 圖謀코저한다

그리고 半島의實狀에 鑑하야 此等施設의促進을圖謀함에 特히重要하다고 생각하는 두가지事項에對하야 希望을陳述코저한다

그 一은 此等의施設에對한一般社會의 認識과理解를 더깁게하지안코는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 單로衛生만이아니라 모든施設은 社會의 기픈認識과理解와에依하야 처음 이의實現을보며 實效를收하는것이며 이것이업시는如何히計畫을樹하드라도 그目的을達할수는困難하며 또지금의努力도 不可能한것이다 此等事情에 鑑하야 日本內地에서는 各種의 方法을 講하고잇다 勿論 敎育의方法을 講하는것이다 [illegible] 의 方法을 講하고잇다 半島에서도 同樣의目的으로 從來各種의 施設이 施行되엿스나 各地의 實狀에 鑑하야 更히適切한方法을 硏究하야 衛生에關한 智識의普及啓發을 圖하야 衛生施設의重要性을 一層認識할 必要가잇다 그二는 衛生에對한 自治的活動을 促進할必要가잇는것이다 一般社會가 아즉進步되여 잇지안흔 時代에는 모든事業은 中央政府나 道警察等의 힘에依賴함은 不得已한것이다 이미社會의組織도 改善되고 一般民衆의經濟生活 智識이 相當히向上進步된 時代에서는 적어도 衛生의事務와如한 어떤程度까지 自治的活動에 依하지안호면 充分한改善發達을 期할수업다 日本內地에서는 如斯한意味에서 이미以前부터 各地에衛生組合이 組織되여 淸潔方法에서 消毒方法 其他傳染病豫防等 衛生思想의 普及淸潔保持、其他公衆衛生에關한 事業에携하야 顯著한成績을 擧하고잇는데 最近調査에依하면 組合의數는 約五萬에達하고其經費約三百四十萬圓에達하고잇는데 更히 그活動을 便利케하기爲하야 衛生組合法을制定하라는 意見이 熾히唱導되고잇는程度이다 半島에서도 이미少數都市에서는 同樣의組織이設備되여 相當한成績을 擧하고잇는데 大體로보면 아즉 甚히微微함으로 今後如斯한 自治的活動에關한 適切한方法을 講하야 官民協力提携하야 可及的速히公衆衛生의 改善發達을 促進할必要를 痛感하는바이다

如斯한意味에서 一段의官民各位의 御協力을切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要컨대 我等은 恒常社會의 動向에對하야는 活眼을 開하야時勢를達觀하야서 正確한 警察務를運用하야 靜穩으로말미아마 懈弛해지믈嚴戒하야一層의 緊張味를加하야 半島治安의 十全을期하고 一段民衆에 對하야는 恒常懇切叮嚀을 本旨로하야 社會의指導者保護者인 責을擧하고저念願하는바이다 (完)

庶政一新의 가는 길 (下)

金炯元

四

이와가튼情勢下에 廣田內閣은 三月九日 實로事變發生後半個月만에 庶政一新을 使命으로 成立되얏다 그러면 그後廣田內閣은 庶政一新을爲하야 얼마나政策을 實現하엿는가

內閣成立直後 馬場財政聲明은 自由主義의高橋財政에 길들은財界政界를 놀나게하엿다。그러나 公債政策의變更、增稅의斷行、稅制整理、低金利政策의 徹底等은 이미揭載한바로서 생각하든以上의衝動을 주지는 아니하얏고 또馬場藏相은 就任未久에 調査局의財政計劃立案者 山田調査官을 主計局長으로 任用한것을보아 馬場財政이곳 調査局案이라는 點을 늣기게하야 政府의 政策보다 오히려調査局의活動을 더욱注目하게 하엿슬뿐이다 뒤를니어 問題된 電力國營案도 賴母木遞相의 多年持論이라하나 亦是調査局案의 改作에 不過한것이엇다。案의出處가 어대이든지 政策을 實行만하면 고만일것이다。그러나어느것을 勿論하고 豫算에關係되는것이만치 議會의 通過를 要하게됨으로 아즉은 一個의 案으로서 實義가 잇슬뿐이오 實行力을 가진것은 아니오 그案이議會에서 엇더케 修正될는지는 極히 注目되는바이다。

이밧게 廣田內閣은 무엇을하엿는가 八月二十五日에 이르러 所謂七大國策을決定하엿다

一、國防充實

二、敎育刷新改善

三、中央地方을通한稅制整理

四、國民生活安定

五、産業振興과貿易伸張

六、對滿重要策確立

七、行政機構의整備

以上七大國策을 實現하는데는무엇보다도 먼저問題되는것은 豫算이다 廣田內閣은 十二年度에 잇서서 日本有史以來 처음되는三十億四千萬圓이라는 彪大한豫算을 編成하엿스니 이번議會에서 이豫算만通過되면 大部分의政策은 實現될것으로보아 틀림업슬것이다。

五

그러나 豫算을만히 쓰는것이곳 庶政一新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只今의日本이 要求하는것은 行政機構의刷新과 이에依하야實現될 强力統制政策이다 이點에對하야 그將來가엇더케 될가하는推測은 나로서 不可能할이오 또하랴하지도안는다 오즉나는 여기에한 가지事實을적어서 讀者의參考를 삼으랴한다。

지난 十二月四日 吉田調査局長官은 突然 辭任하엿다。그는 政黨의 積弊에 抗하야 庶政一新을 主張하는 新官僚의總帥로서 스사로 行政官인 內閣書記官長의 地位를 버리고 事務官인 調査局長官의 椅子를 어더 가지고 昭和十年五月以來 政府와 軍部의 中間에서 新政策을 樹立하기에 沒頭하든 人物이다。이사람이 엇지하야 辭任하엿슬가 當時 東京、大阪의新聞은 新官僚의 後退라고 論評하엿다 事情을 平面的으로 볼때에 後退임에 틀림이 업다。그러나 왜 後退하엿슬가 여기에 庶政一新을 使命으로 하는 廣田內閣이지만 庶政一新을 實行할 熱意가 不足하다든가 實力이 不滿하다든가 하는 不滿이잇기때문에 차라리물러가 時期를 기다리자는 態度가 아니엇슬가

나는 지난 十二月十日 京釜線車中에서 東方會의 首領代議士 中野正剛氏와 約三十分間會話할 機會를 어덧섯다。中野氏日 庶政一新은 調査局의新官僚가 할것도 못되고 軍部만이할것도 못된다 참으로國民의 意思에依한 庶政一新이아니면 안된다

그러면 政黨이할것인가 하고反問하매 아니다 只今의政黨은 國民에基礎를둔政黨이아님으로 그도못된다

그러면 엇더케될것인가 率直大膽한 政治家가國民의意思를 참으로 代表하지 안흐면 아니되며 再出發하지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庶政一新의再出發」엇더한 形態로 엇더한目標를 向하야엇더케 再出發하랴는고。(完)

今日本紙廿八面

主婦之友 新年號 大附錄 花嫁全集は

夫婦生活の祕密を大膽に公開したので

奧樣方に大評判

이事實을 보시오!

實行斷然第一位

이것은「主婦之友」(某大書店主人談)

新年號雜誌는 암만하여도「主婦之友」가 第一만히팔린다 顧客은아침부터기다리다가 書店門을열기가 무섭게물밀듯몰려와서 先後를다토며사가든것은 有史以來처음當하는일이엿다「花嫁さん全集」이되여잇는關係上令孃들의게만 人氣가잇슬줄알엇드니 婦人들이나男子들에게도 大好評이여서 夫婦生活의性愛祕密處가 俄然大問題가되여 今日만을「主婦之友」만을 사겟다고 하야다른雜誌와 밧구어달라는顧客까지도 잇섯다혼자서 數卷식사는이도잇서아모리 追加를하야도 賣切되는狀態이다

工場婦人大熱狂

男子들도大騷動

(某大工場主談)

우리工場婦人들이 每月數만헤이드라도「主婦之友」를 購讀하는 七百餘이나되는대「花嫁さん全集」이 出來한다하야 出嫁前의 處女들만도, 新規讀者가 四百名이나 增加하야 合計千名을突破하얏다 우수운일은婦人雜誌라하야 사보지안튼男子들이이달만은 이機會를노처서는 안되겟다고하며 제각금 사가더이다。

◇急告!!

『主婦之友』新年號는보신바와가티 雜誌界初有의 大賣行으로 賣切書店이續出하는 狀態이다도아즉사보지안으신이는 꼭今日中으로 사보지안으면 大損이니꼭사보시도록하라。

五大附錄つき八十錢(送料十七錢) 東京神田 主婦之友社發行 (振替東京一八〇番)

京城南大門市場 商人聯合會

京城府武橋町九二番地 株式會社 漢城券番 電話本局② 三五五五 四五六五 五二八四番

明珍錫

王冠의 世界的 冷麵 又春館 京城府武橋町六十一番地 電話本局(2)四七三三 六六六四番

京城府薰井町三丁目二〇 綢緞商 朝日商會 主 孫鍾洙 電光七番

元興樓

朝鮮名產 販賣部 製菓部 京城府南大門市場入口 京城府思信洞一〇三番地 天下珍品金剛山松實 內外果實海產物委托 片栗物花形米菓子 御コシ油菓精糖製造 和洋菓子ビスケット 水飴精蔘粉原料品 問屋 有光商會 崔載明 振替京城八〇三三番 電略(アリ)又ハ(유광)

京城府孝悌町一〇九番地 不老商會 朴疇明 電話光化門二四八番

京城蓬萊町一丁目 機械農具商 金剛商工社 電話本局長六三三九番 振替京城一七五一六番

辻本商店

京城府鐘路二丁目四四番地 朝鮮鑛務所 李明世 電話(光)七八四番

京城府鐘路二丁目七十五番地 鐵南紙物舖 金貞烈 電話光化門二一七六番 振替京城一三二一八地

朝鮮運送株式會社

京城府鐘路二丁目 雜誌發行 書籍出版 三千里社 振替京城一二九四九

京城府堅志町五〇 朝鮮樂器 鍮器各種 安洞商店 電光二八二四 振京七六一九

三國商會

朝鮮京城南大門通四丁目 新舊雜貨 五房光貨商 直輸製造 宋祥九 長電話本局八〇五番

京城府長沙町二三三 自動車修理 各種自動車 部分品並ニ 附屬用品等 直輸入販賣 ヒカリモーター商會 振替京城二五四二九番 電光②長 一三八四番 四六三番

京城府鐘路二丁目六二 新舊百貨 德義床廛 電光二九六五 振替京城二二四三三

京城府鐘路二丁目五四 文化商會 電話光化門一八一八番

指定問屋 京城府南大門市場 黃海道果業組合 慶尙南道山物組合 咸鏡南道大興農園 和歌山縣笠田出荷組合 紀州柑橘那賀郡商人組合 內外生果野菜 海產生栗勝栗 松實クルミ 物產委托問屋 香料、バナナ直輸入 張元鍾 電話本局五〇六番 振替京城九五九番 電略〇ケン又ハ(ゲン)

京城府鐘路二丁目四二番地 各種物品 二等品 자무리 正益社織物部 電話光化門(長三)五八六番

三七年式流行界

"朝鮮色"이斷然리ー드

妓生들에게쪽지와唐鞋普及令

斷髮、短裳의退潮!

[illegible] 꼿당혀로부터―단발"트레머리"등의수입과 고무신의 동장으로화미암아 꼿당혀와 순조선식당자는거의 자취를감추어 옛날조선녀자의 아담한정채는 착저들곳이업슬뿐만아니라 류행의 첨단을것고잇는 화류계에서도 기생들이 트레머리에 하이힐을신거나 또는 단발에다 양장을떨뜨리고다니는것이 성행하야 장판방에채상다리하고 술잔을드는 손사이에는 너머나 격이 맛지안는다는 평이만흔바 부내한성(漢城)권번에서는 일월일일부터 그권번기생들에게 엄재히 순조선식차림을 차리도록하야 손님의봄올을 바뻐나갈때에는 반다시조선식당자를틀고 꼿당혀를신키기로 되엿다는데 이것은 반다시 일반가정부인에도 영향이미칠것으로 종로거리에는새봄부터 괴에맛지안는 트레머리、양장등은 자최를감추고 조선식당자와꼿당혀가 시대의총아로등장할것으로 보인다

通行中의怪漢 檢問警官을毆打

漢江人道橋於口에서

영등포경찰서(永登浦警察署)에 근무하는 전대만수(田代萬壽) 순사는 지난삼십일일밤 열한시반쯤에 [illegible]경계로 한강인도교어구에서 지키고서잇든중 거동이 수상한 사나히한명을 발견하고 검문(檢問)을 하려한즉 그사나히는 별안간에 주먹멍이만큼 큰돌멩이를 그순사의 머리에 던저서 머리를 깨트리노코 도망하얏는데 동순사는 약십일동안 치료바들 상처이라한다

交通事故第一號

일일오전여덜시삼십분쯤에 서소문정(西小門町) 사십일번지 아페서 김학중(金學重)이가 운전하든 경성「택시ー」의 자동차와 리태원(梨泰院)오십사번지 손천남(孫千男)의 자전거가 충돌하야 손천남은 억개에 전치약삼일을 요할상처를 입고 부근전중원(田中丸)병원에서 치료

朝鮮神宮歲旦祭

조선신궁의 세단제(歲旦祭)는 일일 오전아홉시부터 조선신궁에서 엄숙히 집행하엿다。이날 아츰에 륙군대례복을 입은 남총독이하 대야정무총감 조선귀족종대 리기용자작(李琦鎔子爵) 문관총대 삼교경무국장 무관총대 [illegible]조선헌병대사령관 각도민총대 [illegible]경기도지사 경성부민총대 갑자부윤 기타 총독부각국과장등 [illegible] 참렬로서 거행하엿다 (사진은 제전식장)

金井鎭氏永眠

운정(雲汀)김정진(金井鎭)씨는 조선방송협회 제이방송과장으로 근무하든중 수개월전부터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지난[illegible]일 오후두시에 세상을떠낫다

운정은 극작가(劇作家)로서일즉이 조선문단에 이름이 잇섯스며 [illegible]한수법과 원숙한필치는정평가정하야 운정에게대한긔대가 만햇섯는데 [illegible] 죽엄을 톳게되매 그방면에만 [illegible]사람뿐아니라 일반은 애석하야 마지안는다한다

阿片携帶犯檢擧

今朝京城驛아페서

이일아침 일곱시경 본정서원이 경성역에서 거동이수상한사나히를 검문한결과 그는 함북 성진군학상면송흥동(城北?) 일천사백사십구번지 리두명(李斗明)로 그가 가지고잇는 상자속을 뒤지본결과 [illegible]속에 생아편 [illegible]「키로그람」을 내여오로나누어서 시내아편중에 밀매하려든 [illegible] 그서에 인치하엿다

주정바지한 派出所

[illegible] 부내 아현정(阿峴町)사십구번지 [illegible] 이일오전두시쯤에 술이[illegible] 정(竹添町)파출소에와서 한바탕 주정을하다가 본서에[illegible]

慶葬단기다 動車를일허

[illegible]

惠山鎭地方의 强盜團逐逮捕

【惠山】함남혜산군(惠山)[illegible] 면에는 작년섣달초순에 수상한 강도사건이 빈빈하야 소관경찰서에서는 [illegible] 그들은 [illegible] 자백하기에이르럿다고한다 [illegible] 되얏다고한다

普專憤敗 大阪遠征의 對三重高農럭비戰

【大阪支局發電】第十二回高專럭비ー大會에出戰한 普專럭비軍과 三重高農(東海·京都代表)의 第一回戰은 二日午前十時半부터 花園競技場에서 [illegible] 前半부터 十一對五로 普專不利하야 後半에는 八對六 總計十九對十一로 普專이惜敗하엿다

三重高農19(11…5 / 8…6)11普專

京城上海遠征 突然中止

京城蹴球團이 今二日에 國際都市上海와 香港에 遠征할려이라 하든 [illegible] 이壯擧를 알루고 當局으로부터 突然中止를 命하엿슴으로不得已 來三月로 延期할러이라한다

城大豫科蹴球惜敗

【京都電話同盟】東京、京都兩帝大主催의 第十四回 全日本高等學校 蹴球大會第一日은 元日午前八時부터 京都[illegible] 運動場에서 擧行한바 [illegible] 第六高校가 東京高校에게 敗退하는等 各試合모다 接戰을演하도니 京城帝大豫科는 武藏高校에게 惜敗하엿다

武藏高校2{2―0 / 0―0}0京城豫科

日曜講話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耶蘇의[illegible]」 金永變氏

午後七時 「新生活의要素」 金永變 氏

◇同洞敎會 救援者를[illegible] 新年을마지하자 [illegible]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金瀅宇 氏

新年의所願 午後七時 새사람될[illegible] [illegible] 氏

天氣

今朝最低 零下八度二 / 今日正午 0度一

槪報 高氣壓은 國境中部에 七七四미리를보이고잇서 [illegible] 氣壓은 不安定하다 滿洲는 개엿다 흐렷다하며 朝鮮은晴明할러이나 [illegible]

豫報 京城地方의 今夜와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할러이다

昨日最高 三度七 同最低 零下三度二

라듸오

二日(土曜)

◇午後○時五○分 俗謠 一、山念佛 二、사발가 三、노돌江邊 四、江原道아리랑 五、唱夫打令 短簫伴奏 崔壽成 長琴 李忠善 [illegible] 高載德

◇午後一時一○分 小曲 [illegible] 金[illegible]紅

◇同六時 (東)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新年辭 [illegible] 久留島武彦

◇同七時三○分 [illegible] 田中[illegible]

[配役]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時五○分 (城)長唄

◇同一時二○分 (東)新年童謠리레

◇同六時 (城)尺八合唱

◇同六時二五分講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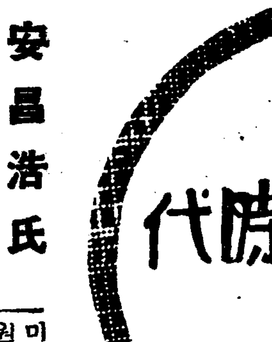
◇午後七時三○分 (東)―東西笑ひの夕

青年學徒時代 그들의 ②

新聞의"老學徒"記事로 女校長이退學命令

【스물세살에米國小學校에들어가든때의追憶】

正直一貫의先生의學徒精神



安昌浩氏

도산 안창호(島山安昌浩)선생의 청년학도시대는 갑오년(甲午)[illegible]가 한참 야단법석을 일우고잇든때에 고향 강서(江西)에서 배우든 한학(漢學)을 집어치우고 원대한 포부와 경륜을 미려서 경성(京城)에 올라가고 원두우(元杜尤)박사가 창립한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입학한때부터 시작된다.

도산선생은 경신학교에 입학하자 설립자인 원두우박사에게 영어(英語)를 배우는일방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치게되여 절반은 학생, 절반은 선생의 역할을 [illegible] 경과해는것이다.

물론 사실여변전인 옛날의일인터이므로 경신학교는 서당(書堂)과 지금의 보통학교(普通學校)를 절충한 다시말하면 지금 보통학교보다 정도가 조금높은 학교이엇섯스며 칠십여명의 학생이 잇섯는데 전부가 상투를 짜고 망건에 갓(笠)을 썻는가 그러치안흐면 머리를 따어내린후 댕기를달고 단여서 사실로 지금의 서당아이들보다도 모양이 창피할정도엿섯다한다

그러나 이시대의 학도들의 긔풍(氣風)이란것은 실로 지금학생들로서는 상상도 할수업슬만큼 활발하고 씩씩하엿든것이다 지금가트면 학교를 졸업하고 엇더케햇스면 [illegible] 취직을할수잇슬가하여 머리를알코잇든 터이지만은 그시대의 학도들은 공부하는학도들이 누구나 자기를위하고 각자의 향락을취하고저하는사람은 한명도업섯고 엇더케햇스면 민족을인도하고 사회를 빗나게할수잇슬가? 배운후 자기의몸을 민중을 위하여 밧치겟다고 불타는생각뿐이엇섯다는것이 그시대의학생근본이엇다

그래서 그시대의 학생은누구나 자긔가 조선안에서 공부하든가 그러치안흐면 외국에가서 공부를하면 목표가 전부 이생각만이 [illegible] 가지고잇섯든것이다

도산선생의 경신학교시대는대강이러하거니와 미주(米洲)의학도시대는 엇더햇나?

도산선생이 미국에 건너가기는 수물세살적인데 건너가든해에 엇더한 「그라마·스쿨」에 입학을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햇다

그런데 엇던날 그곳신문사에서 긔자한사람이 차저와 선생의사진을찍고 선생의경력을 전부무러가지고 가더니만 그날석간(夕刊)에「그특한조선로학생(老學生)」이란사단(四段)제호미테서 선생의 사진과가티 선생의 경력을한아도빼노치안코 대서특서를 해노핫다

대산선생이 입학햇든"그라마·스쿨"이란것은 [illegible]보다조금 격이놉하서 조선에비하면 보통학교보다 조금더놉흔고등과(高等課)와 가튼것이나 작우간 소학교는 틀림업섯고이학교에서는 열여덜살이상은 절대로 입학을 허가하지 안는만큼 도산선생은 여교장으로부터 퇴교명령(退校命令)을 바덧다

그래서선생은여교장을면회하고 변명하소연과애걸도다해보앗것만 "당신은 수물세살이니 공부식힐수업소"의 한마듸로 끗끗내 거절햇고 최후에 이여교장은그곳 학무과장(學務課長)에게 소개편지를써주면서 거기가서 졸라보라고 이야기햇다

도산선생은 그래도 일루의희망을 가지고 레의학무과장을차저더니 똥똥보 학무과장 영감쟁이는 떠버티고안저서 첫마듸부터 마지막마듸까지「노ー 노ー」를 반복할뿐 이래서 간신히입학햇든것을 신문긔사로 그만퇴교처분을 경험하고 마럿 [illegible](老學徒)의 비담이 적지는안헛섯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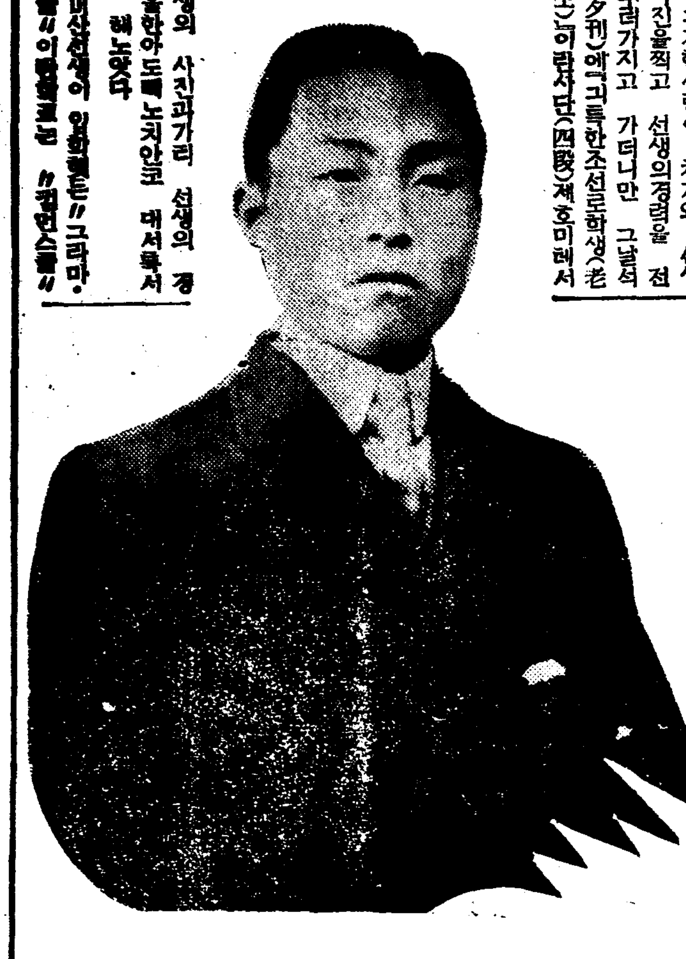
그러나엇잿든 공부는 해야되겟스므로 둘재번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고저 햇스나 이 학교에서도 역시 변령이 만타고 퇴짜를 노아 천하조선의 취학변령아동이 공부할때도 입학할학교가 업서 문맹(文盲)으로지나게되는 폐와는 근본부터 처지가 다른다고는 할수잇스나 입학허가 할학교가 업서 선생에게도 퍽 곤난을 늣기게되엿섯다한다

일이 여기에까지에 미치니 선생이 하숙하고 잇든 주인집영감은 "그대는 동양사람이므로 키도 적은데 정직하게도 수를 세이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슬쩍 열일곱살이라고 넘기어버리라고하면서 나에게 저런"울리쉬"가또어대잇느냐 떠드러대엿스나"나로서는 입학을속일수는업다"고대답하여 그집주부(主婦)에게동정을 엇게되엿고 무엇때문에 남에게 거짓말을하라고권고하는가?하면서 부부싸움까지 생기어 희극까지한마생겻다고한다

그러나 세번재 입학하려는 학교에서는 여교장이 아조삽삽하고 리해가만허서 입학시문에 변령초과문제가 도모지업시무난히"패스"되여 공부를하게되엿 우리와가튼 사정 [illegible] 미주학도시대를 갓게 되엇스나 몃차례의 축출명령을당하다가 초부득삼이란말과가티 세번째에야 입학통과가되여 한쪽으로는깃븜도업지아햇 여교장에게「엇재서 이학교에서는 나를내여쫏지안코 입학을허가햇는가?」늣고 무럿더니 여교장대답이「그것은 해석여하에잇슬뿐 열일곱까지입학을 허가한다는것은 미국학생에게국한된문제이지 동양사람에게 까지 적용할것은 업지안흐냐」는답변이어서 가튼미국인이라도 하후하박을 생각할수잇섯다한다

이러한 모든경과는 선생의미주학도시대의 짤막한「에피소ー드」는도되려니와 무엇때문선생이가어코「그라마·스쿨」에입학을 하려고애를썻나?

여기에대하야 선생의 리상과 그리고 그때의긔분은 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대학교의학교통성부해보자는생각과 다시말하면 미국의 교육행정(敎育行政)을 직접연구해보고 상세하게 연구하여 조선에도 그장점(長點)을취용하고저 생각햇든것뿐이지절말「그라마·스쿨」에서 공부를 못해서속을태워가며 입학한것도아모것도아니엇든것이엇다한다(끗)



(사진은미국유학시대의안창호씨)

五百四十萬圓으로 卅餘中小河川改修
今年度부터五個年繼續으로
慶南道서具體案樹立

【釜山】 재해복구대책(災害復舊對策)의 근간이될 치산(治山)치수(治水)사업의 중소하천(中小河川)개수공사를하고자 경남도당국에서는 총독부와 교섭을하던바 수일전에 정식으로 결정되엇스므로도토목과에서 방금구체안을작성중인데 그구체안의내용을 드러건데총공비 오백사십팔만사천원으로 오개년간계속사업을하는데 공비중 륙할은 국고(國庫)보조 삼할오부는 지원수익민부담에 의한다하며개수할하천도약 삼십개에 달한다는데 금년도 공사비할당액은 칠십삼만일천원이라한다

同情週間同情 二百八十餘圓

【光州】광주부에서는 소화십년에 처음으로 동정주간을 설시하야 십이월 십오일로부터 동이십일까지의 부민의 열렬한 원조를 바랏든바 동이십일에 총건수 오천오백팔건에 동정금이백팔십칠원칠십오전이며 동정미구두오승에 달하엿다한다

天安農業學校 設立期成會組織
去卄九日數百名集合裡에

【天安】천안농업학교가 설립될다하야는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이십구일 오후이시부터 천안극장에서 군민유지회(郡民有志會)를 개최하고 집군수의 사회하에 긔성회를 조직하얏는바 판민출석원이 약이백명에 달하엿다 그런데 집군수로부터 그간경동과 유지운동한 상황을보고하고 따러서 농업학교설치의필요를 설명한후 출석원에게 찬의를구한바 만장일치로 박수찬성함으로 즉시·긔성회조직에드러가 역원을다음과가티추천하얏다한다

회장 신택원삼랑(新宅源三郞)
부회장 촌상시랑(村上市郞)
부회장 리중화(李重和)
상담역(相談役)이십팔명
실행위원(實行委員)약간명
감사(監事)이명
고문(顧問)군수 경찰서장

이긔성회 조직이끗나자 어떤여자두분이 각각 현금십원식 내여노흐면서

어느곳을물론하고 중등학교가필요하지마는 더구나천안에는 이때까지업던관계상절대필요한 것을지금여러분의말삼에의하야더 잘알엇습니다 저의들은 거루구틀에 흰배로가티 떠다니는기생으로리산호주(李珊瑚珠)리진주(李眞珠)이옵시다 이돈이 약소하지마는 학교설립비에써주시오

하엿다

이게만지안은 돈이지만자긔로서는 큰돈이며 뜨거운 정성이다 누가치찬치아니하리오 자진긔부는 이제처음이 나타낫스며또 어떠한인이 이러나서 농업학교설립되는것을 극히기뻐하는 의미하에 우선 일금오백원을 긔부하겟다고 자진신립 하엿는바 그는 당지읍내에사는 칠순로령의 배명선(裵明善)씨인데 장내는 벽력가튼 박수성으로 각각 사례하고 오후네시에 기분엄숙로 폐회하엿다한다

送年音樂의밤 盛況으로閉幕

【宣川】 선천회관주최 본보선천지국 후원의 『송년과음악의밤』은 예정대로 지난 이십구일 오후다섯시 당지 선천회관 대강당에서 개회되엇든바 정각전부터 모여드는 군중은 무려 천여명의 대만원을 이루엇스며 부득이 입장못한 군중으로 문전은 일시대혼잡을일우엇다

각명사의 일년간을 회고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뜻깁흔 송년사는 일반 군중으로 하여금각자의 거러온 발자최를 더듬어 외지의 검토와 다시 새로운약동을 약속하는 의긔를 한엇시크게하엿스며 일류악사들의 줄연한 아름다운 음률은 일반청중의 복잡한 머리를 가볍게하고 동십시 성황리에 폐회하엿다

趙炳龍氏美擧

【楊平】양평군룡문면마룡리 조병룡(趙炳龍)씨는 의사(醫師)로서 현재전라남도에가서 개업을하고잇는데 지난여름에 자긔부친회갑(回甲)에왓다가 자긔면의 주리고 헐벗은동포들을 동정하는마음에서 자긔부친회갑연비를 절약하고 현금이백원을 동면에긔부하고 만치안흔돈이나마 면내빈민을위하야 써달라하얏다는데 해면에서는 요사히 그돈이백원을가지고 면내극빈자로 최고령자(六十五歲以上) 일백칠십명을 마룡공회당에 집합시킨후 광목(廣木)아홉자와 물감한봉식을나누어주고 점심을 대접하얏다한다

白川氷上競技會

【白川】황해도백천 유학생학우회에서는 일월삼일 오전십이시부터 백천온천지동빙장에서 본보백천지국후원하에 연백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하랴는데 일반은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하며 오정지대인만치 일반은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列車避하려든두青年 極樂橋서墜落慘死

【光州】이십구일 오후팔시경분경에 송정리(松汀里)발광주(光州)행열차가 극락강(極樂江)철교에이르자 철교아래로 뛰여나리려고하든두청년은 잘못나리여추락되야 무참히도참사를 하엿다는데 그들은숨이만처하야 철로를통행하다가 그와가튼 참변을이루엇다는바 그들의성명과주소는 다음과갓다한다

▲光州府大正町一四八 土地物品仲介 金銀植(二三)
▲光山郡瑞坊面牛山里 商業 朴大祚(二五)

面内貧民救助 新年宴會廢止 現金三百圓喜捨

【洪城】충남홍성군홍동면 팔괘리(洪東面八卦里)에거주하는 리병우(李丙雨)씨는 매년동절을당하야 먹을것업시지내는 빈민들에게 동정미를 분급하여오든중 본년말에는 신년축하연을 폐지키로하고 그의대신으로 면내극빈자들에게 얼마식이라도 나누어달라고 돈삼백원을 홍동면사무소에 의뢰하엿다는바 일반은 씨의자선에 감격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生産業者反對 明卵販賣統制에

【新浦】 함남도명태어의중요한합계 명란(明太卵)의생산고는 년부평균삼백만원으로 실로함남특산물의 하나로서 멀지내외에 선거름을 배고잇는바 과반 함남어업조합련합회(咸南漁業組合聯合會)에서는 종래의 제품이 불통일되여 직접간접으로손해를입게되므로써 작년도부터 소위통제를 실시하게되여 이미일본내지방면에서는 다대한환영을 밧고잇는현상이라고는하나 과반래 생산자로부터 판매통제는 생산자에게 직접주는불리를 초래할우려가잇다하야 암암리에 반대의긔세를 보이고잇다한다

써ー비스로顧客誘致 大邱小賣商새試驗

【大邱】대구상계의 번영가된 원정(元町)에는 근래백화점의 출현에따라 일반상점은 대타격을 바다오든바 동정에잇는 옹(翁)마야등 유수한전문점 십여개소가단결하여 원정서ー비스조합을 조직하고 백화점으로서 하지못하는 세밀한고객본위의 봉사를 하여왓는데 이것이 주효하야고객의 인긔는 점차백화점에서전문점으로 끌려가는바 그추이는 면밀상가에 큰파문을 던저주는것으로 일반의 화제가 되고잇다고한다

全北道當局에서도 十餘河川을改修
總工費四百六十萬圓으로

【全州】한수해의 근본대책으로 다년 지원민이 열렬히 요망하여오든 동진강(東津江)개수(改修)는 총공비 오백만원으로 명년부터 총독부직할사업으로 신년도부터 착공하리라함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이사업을 착수함과동시고산천(高山川)함열천(咸悅川)을 위시하야 도내십오개의 중소하천의 대개수(大改修)를 목적으로 총액사백륙십만원으로써 오개년간 계속사업을하리라는데 이로써 도내하천관계의 중요한 문제는 전면적으로 해결되리라고한다

私設講習所에 現金百圓喜捨

【金海】경남김해읍 부원동(府院洞)에 본적을둔 김계조(金桂祚)씨의 모친인 신갑지(申甲支)녀사는 군내가락면죽림리(駕洛面竹林里)가 그친정동리인데 금년에 설립된 동죽림리사설학술강습회경비에 보조하라는 아름다운성의로서 수일전현금일백원을 자진희사하엿다는바 동강습회당국자의깁붐은 물론이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市民을威脅하든 平壤强盜逐捕逮
이미五件은自白

【平壤支局電話】평양시내에는 강도사건이 련발하야 시민과경찰은 극도로공포하엿스며 강도범인의 종적은 묘연한속에 년말경계는 시작되엿다 삼십일일새벽시경에 특별경계를위하야 평양서고등계 등정(藤井)형사가 류정(柳町)로상에서 수상한 청년두명을 발견하고 「긔구나는고심문하자 두청년은 갑작이 다라남으로 이를추격하엿든바 전긔두청년은 식칼을휘두르며 완강히반항하야 란투끄테 마침내체포한결과 그자들은 류정오십오번지 박동현(朴東鉉)(二二)교구정(橋口町)오십삼번지 여은선(呂恩善)(二一)으로 판명되엿다 이자들을 평양서로 끌고가서 엄중취조를한결과 마츰내 그죄상을자백하엿는데 지난시월십일밤이래 연접히 이러난 강도사건은 대개전긔두청년의 범행인것이 판명되엿고 계속하야 준렬한취조를하고잇다 이외가티 두범인을 두고 평양시내를 시끄럽게하엿든 강도두명을 오늘에이르러 체포한 평양서원들은 시민에게대한 책임의일부라도 보여주게 되엇슬 다행으로녀인다한다

保山까지航路를 石湖亭까지延長

【平壤】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대동강하류의 개수공사촉진을 총독부에 요청햇고 그결과 현재 공사중인 원암갑문(猿岩閘門) 원암—평양간은 어느때나 수심(水深)여섯자이상에달하여 대동강하류 수운에일대혁신을 보게 되엿거니와 다시 이것을 이상 더활용하게하기에는 현재보산(保山)까지만 올나올수잇든 선을 석호정(石湖亭)부근까지올나올수잇도록 개수하라는 진정을 총독부에 다시제출햇다 총독부에서도 필요를 늣기어 조만간 실현을보게 되엿스며 이실현에 또한가지 필요한것은철도(鐵道)를 긔선이 정박하는석호정까지 연장하여 철도와 수운의원활한 련락을 취하여 평양항(平壤港)의 완성을 히망하게되엿다

이것까지 실현이 될때에는수륙의 련락이 민활하게될뿐아니라남곳면(南串面)일대는 공장지대화하여보조을면려하는 공장지대를개척하게될것이므로기대는크다

小作料百石은免除 四十石으로救窮
笠井町金地主美擧

【春川】공전한농촌의전상불 가련하더 소작료백석을감하여주고 사십석으로 얼동에떨고잇는 궁세민들에게 난우어주어 일반의칭송을 밧고잇는 사실이잇다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들어보면 경성부립정(京城府笠井町)에거주하는 김경환(金景煥)씨는 춘천군북산면대곡리(春川郡北山面垈谷里)에전답을 삼만평가량소유하엿는데 금번여름에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의피해가 막대함으로 일반소작인들은 곤궁한중에서 소작료백사십석이나 밧을것을 한에는 넘우나 곤란한사정을 하고 그중백석을감하여주고 사십석은지난달이십일동리 리모(李某)에게 일임하여 기한에우는궁세민들에게 분배하게되여 소작인들과 궁세민들은 물론 일반사회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地方人事

▲李昌哲氏(慈城예수敎長老會傳道師)就任人事次本報慈城支局來訪

白川

延白氷上競技大會
▲時日 一月三日午前十二時(日曜日)
▲場所 白川溫泉
◇主催 白川留學生學友會
◇後援 朝鮮日報白川支局

大田

大田藥令市開市
△開市 昭和十一年十二月二十九日
△閉市 昭和十二年一月十三日
◇主催 大田藥令事務所
◇後援 朝鮮日報大田支局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11】
長白山人作 熊超畫

어린적(十一)

우리는 서당에 가면 책을 앞에 놓고 절을 하엿다. 이것도 가적눈이 김선생한테서 배울 때에는 업던 법이다. 나는 이것이 선생을 향해서 하는 절인지, 책을향해서 하는 절인지를 몰랏다. 왜 그런고하면 선생이 자리에 안 계실 때에도 꼭 그와 같이 절을 하엿스니까. 꼭 꿀어앉어서 글을 읽는것이 고통이엇스나 그래도 규칙이 엄한것이 좋앗다.

「글을 읽어라」

하는 선생의 명령이 나리면 우리는 모두 꿀어앉어서 몸을 혹은 앞뒤로, 혹은 좌우로 흔들면서 목껏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엇다. 수십명이 목에 핏대를 돋히가지고 악을 쓰면 집이 떠나가는것갈앗다. 이러케 하로 종일 글을 읽다가,

「밥먹으러 가거라」

하는, 선생의 명령이 나리면 우리는 일제히 글읽기를 끊고 책을 덮고 일어나 절하고 그리고는 신도 빗어못신고 뛰어 나온다. 다른 때에는 오좀누러를 나와도 문패를 들고야 나오고 자조 나오면 야단을 만나는것이엇다.

신래섭이란 아이는 나보다 열살이나 우이다. 전반갈니 머리를 땋앗다. 그는 가난해서 아직 장가를 못들어서 머리 꼬랑지를 땋은 까닭으로 아레목에를 못 앉고 편슨 사람들 다음에 넷재로나 앉엇지마는 글이나 글씨나 이 서당에서는 으뜸이엇다. 그는 도모지 말이 업엇다. 그러나 언제나 빙그레 웃엇다. 나는 태섭의 곁에 앉고싶엇지마는 글 정도를 따라서 그 담에 앉엇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해주는 줄을 느꼇다. 그가 나를 보고 빙그레 웃을 때면 나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의 품에 안기고싶엇다. 형도 업고 누나도 업는 쓸쓸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때문이엇슬까, 나는 어려서부터 퍽 고적을 느꼇는데 내 고적한 혼을 만저주기위하야 처음 나타난 사람이 신래섭이엇다.

사월파일이 되엇다. 우리는 밥주발에 쌀 한 주발식을 가지고와서 그것으로 회전을 부처가지고 자성산에를 오르기로하엿다. 바라만보던 자성산, 할미성이 잇는 자성산, 서울 남대문이 보인다는 자성산, 어른들도 올라간 사람이 만치못하다는 이 자성산에 오른다는것은 내게는 큰 감격이엇다. 왕복 이십리나 넘는 험로이니 조무래기들은 오지말라는 말도 아니 듣고 나는 따라나섯다. 다른 조무래기들은,

「애, 거긴는 호랑이 나온대 애」

하고 나를 위협하고 저의들은 떨어져버렷다.

온종일 아미로 나는 신래섭의 곁에 잇을수가 잇는것이다. 나는 깎아세운 비탈시길을 태섭의 손에 매달려 오를 때에 행복 그을진데 하엿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엿다. 그는내가 아모조록 다리가 아프지 안토록 해주라고 애를 썻다. 여러가지 재미잇는 이야기도 해주엇다. 무슨 이야기를 햇는지 하나도 긔억이 업거니와 그때에 무척 행복되엇든것만은 아모리 길게 써도 끝이나지아니할것 갈앗다.

가며가며 진달레를 꺾엇다. 다른데는 벌서 꽃이 졋지마는 자성산 북쪽에는 아직도 빨가케 피어 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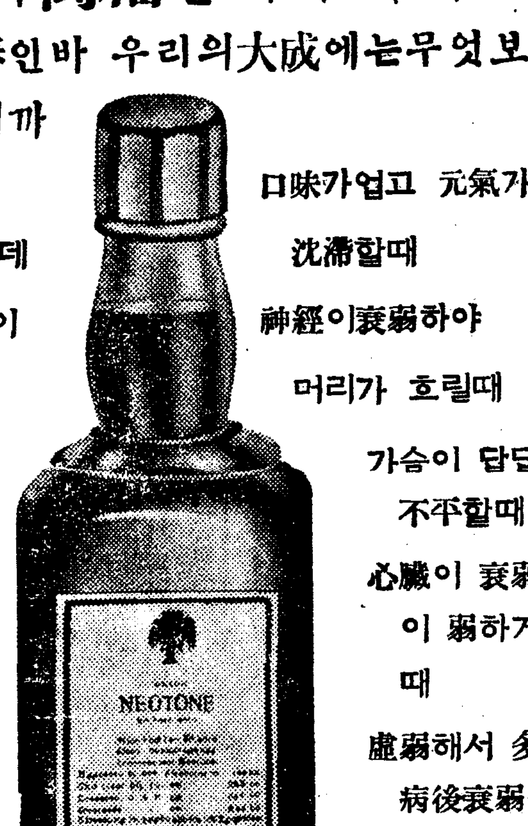
할미성에 올낫다. 언제 쌓앗는지, 무엇하러 쌓앗는지 모르는 성이다. 큰 돌을 썩잘 다듬어서 오뭇꼬물하게 아느하게 쌓은 성이다. 나는 태섭과 함께 단둘이 언제까지나 이 성안에 잇고 싶엇다. 성 오뭇한 구비에 들어가면 보이는것이 오직 하늘뿐이엇다. 그 구비는 아마 가장 거룩한 꼿인듯한데 넓은 방 한간만 하엿다. 지금 생각건대 아마 이것은 옛날 우리 선인들이 하늘에 제사 들이던 거룩한 제단이엇슬것이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의 말에는 전래산 마고할미가 베치마 아홉폭을 다 뜨리면서 쌓은 성이라고한다. 안민세(安民世)말과 같이 성모시대의유적일는지도 모른다. 아모려나 이 거룩한 성——산록대기 늘가까운 곧에 잇는 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애정의 경험을 한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내기를 만낫슬 때에 태섭은 바위밑에서 나를 꼭 껴안아주어서 젖지않고 찹지않게 해주고 그리고 소내기가 그치고 볕이 나서 우리가 바위밑에서 나올 때에 태섭은 내목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어주엇든것이다. 나는 그의 입의 향긔를 지금도 긔억하고 잇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향긔엿슬는지도 모른다.

賀正
만사여의하시고
근강을비나이다
금년도味の素
애용을바랍니다

모든음식을맛나게하는
味の素(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삼가
새해의萬福을비나이다
一年之計는在於正春인바 우리의大成에는무엇보담도健康이第一條件이아닙니까



血氣가업고 咳嗽가 나며 漸漸無力해지는데
全身이 懶怠하고 後熱이 繼續되는대
氣管支炎으로 咳嗽와 喀痰이나는대
盜汗이나는대
眩暈症이나는대
胎中衰弱時
産後에回復이느질때
顏色이蒼白한貧血症

口味가업고 元氣가 沈滯할때
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 흐릴때
가슴이 답답하고 心氣 不平할때
心臟이 衰弱하야 脈搏이 弱하거나 不正할때
虛弱해서 多病한 體質 病後衰弱時
些少한 勞力에도 疲困이甚한體質
精神이 沈鬱하야 倦怠症이 날때等等에

肺·心胃·腎·神經等을 特히補强하야 生血 造骨作用이 旺盛하며 人體의生氣과 精力을 자아내는 聖劑네오톤(NEOTONE)을 服用하므로써 貴하고重한健康을 恢復增進하소서。
本네오톤(NEOTONE)의 効果에對해서는 貴邊醫師에게 問議하시옵。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包裝 850瓦 1900〃 3000〃
文獻說明書人體圖解送呈

新年을마지하야福만히바드서기를
四日부터 全商品二割引販賣
오ー바ー 세비로
京城 三中井 洋服部

新春一月一日낫부터晝夜三日間 晝一時 밤七時始映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여러분諸氏께드리는新春의三大名畵大公開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젤스·구륭ー스監督作品
大名畵 黃金 全十卷
主演……에드와ー드아ー놀드氏
黃金狂時代의英雄傳!!殿堂의轉落되는요한사ー다의生記錄??
◇MGM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戀愛劇
逆間諜 샴옷드氏監督作品
主演 마ー나로이孃 죤포렌드氏
歐洲大戰의祕話!間諜戰의裏面!『逆間諜』이또다시活躍!逆間諜의任務는間諜以上에危險하고重要한事件은무엇일까?
甲陽映畵社超大作全發聲版 時代活劇
あれば長脇差
監督……兒井英男作品
主演……羅門光三郎氏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新春一月一日낫부터晝夜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新年을마지한여러분에게밧치는三
大超豪版三大名畵封切
京城撮影所超特名畵 朝鮮語全發聲日本版
迷夢(죽엄의자장歌)
監督…梁柱南氏
主演…文藝峰…李錦龍…金寅圭
◇廿世紀폭스超大作品 詩聖단데地獄篇의映畵化
단데ー地獄篇
스펜사도레시主演 그레아도레버ー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다윗드하와ー드氏
骨拳하리캉
主演…죤오프라이엔 아레하부레이
新堂町 電本2 二五三 新富座
卅一日封切(三日까지) 新春超特別大興行

◇一月四日부터靑春座東洋劇場에서 前後篇同時上演 ◎府民館에서
戀愛悲劇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一月一日부터 (一日은 晝夜二回 二、三日은夜間뿐) ◎東洋劇場에서
團劇 靑春座新年特別公演
林仙圭 作
1、悲劇 再生 三幕四場
2、오페렛다쇼ー 멕시코薔薇 九景
鄭泰里 作
李雲芳 脚色
劇團 豪華船 新年特別公演
◇十二月三十一日낫부터 (一日부터三日間午前十一時부터三回)興行
萬都의待望!萬雷의拍手와아울러 도人氣劇團이 한때에場所만나누어 新年特別公演의幕을연게되엿습니다 新年에도잇지마시고만히旺臨해주십시요。

永樂町 電話二五三番 中央館
謹賀新年 三十一日ヨリ三日マデ公開 階下二十錢階上三十錢均一
コロムビア特作音活劇 無軌道綿西部の巻
水島道太郎、… 主演
水の王者
大都超特作泰華版オールスター出演 トキー 孫悟空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一、〇〇 第二回六、〇〇 第三回…

美人國のぞ記
劍道와靑春
스윙라인

謹賀新年 正月元旦特別大興行
新春第一週大巨彈陣
晝夜二回=始映낫一時밤七時半
大衆奉仕料金 十錢
갈산料金으로驚嘆的名畵大提供
◇코롬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아ー투ー·0·제트氏監督
空中大悲壯劇 惡魔의空襲 리챠드·덱스氏主演
◇코롬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猛獸映畵界帝王篇
大猛獸映畵 百獸의王者
◇大都映畵社特作映畵現代名篇
拳鬪家의子供 大岡怪童 北見禮子主演
第二週春風 無法地獄同時上映
東洋劇場

上往十里町 光武劇場

卅一日ヨリ四日間 元旦ヨリ三日マデ(晝夜三回)
第一回午前九時ヨリ映寫 サービス·午前九時迄ニ御入場の方ヘ三十錢均一二割引
▲テキサス決死隊 パラマウント社特作·フレッドマクマレイ·ジーン·パーカー主演
▲江戸ッ子三太 P.C.L.日活·エノケン合同作品 榎本健一·中野かほる エノケン喜劇
▲東日大每ニュース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最新式通風設備完備
ワカゲキ

新年號定價四十錢

日獨防共協定의意義 韓普容

新年부터研究할主題와其內容

稽古襍俎——梁柱東
古語、方言、俚諺——方鍾鉉
世代批判의完成으로——朴致祐
極東諸國의政治外交——申基碩
歷史的社會的世界의把握——鄭賢奎

英皇帝와심프슨夫人의戀愛 …記者

帝王을 버리시고 一個平民 夫人과 結婚한 前英皇帝의 로맨스! 이는 世界的으로센세이슌을 일으킨 大事件이다 噴火口가튼 國際情勢에 閑暇한投石…이秘話를읽으라

新年우리學校의計畫

元山樓氏女高…李在馥 五山高普…朱基銘
松都高普…金使玉 大邱信明…方解禮
槿花女學校…黃允媛 京城保育…獨孤璇
東萊日新女高…× 中東學校…金敏弘
金泉高普…鄭熙燮 중앙학교…崔奎東
中央基青…× 監理敎神學校…邊永瑞
府上技藝…鄧湳修 中央保育…任永信
同德女高…趙東植

茶房巡禮記……女記者

現代朝鮮青年을激勵함

序辭——主幹
朝鮮青年에게——方應謨
農村青年의任務——玄晩植
都會青年에게——尹致昊
文學青年의途程——洪命憙
青年教育家에게——崔奎東
青年宗教家에게——吳基善
青年男女學生에게——趙東植
青年醫師에게——吳兢善
新家庭婦人에게——車美理士

名砲手譚 方在胤

丁丑年과 소

새해主人公소의行狀記——舍春
어린時節의나와소——金煥泰
殉死하는소의精神——金東鳴
용두쇠(野談)——申鼎言
줄무지(民俗)——白花郎

詩

독수리…林洙
旅愁…吳章煥

思想犯保護觀察令 一記者

朝光

絢爛한新春의創作大豪華版

續川邊風景 (長篇) 朴泰遠
京城淸溪川 흐르는물 그물을끼고 서울長安의 가지가지 이야기가 버려진다 이川邊風景에서 다시 人生을 엿보앗다

未完成 (長篇) 朱耀燮
未完成된 그림을 그대로두고 세상을떠난 不過한 靑年畵家…그죽음이 잇슨뒤에 가지가지 큰1맨쓰든 누구나 읽지안을수업는 자미잇는 소설이다

麥·秋 (中篇) 李箕永
시골 農村에는 麥秋가오면 가지가지 悲劇이 일어난다 이것을읽고 農村을 다시알라

情熱記 (中篇) 嚴興燮
情熱이넘치는 젊은敎員의 피끓는 熱情…그들은 敎員生活中에서 어떠든 사랑으로 고민한다

湖畔 (短篇) 咸大勳
돈때문에 또는 學費때문에 사랑하는 少女를잊은 한少年…그는 그자극이되어 留學의길을떠난다 가난한 異郷에서 일어난 純情의悲劇

瞑想 (短篇) 安懷南
아들과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을 瞑想…누구나 읽고 實感을어드라 차고도든 지난날의

發賣中

大軍擴과世界經濟 李健赫

東京求景記 春園

青年論의性格과課題——玄仁圭

爐邊記

爐邊雜記——无涯
無爐邊記——民村
爐邊記——霄泉
第三의幸福——安懷南
爐邊觀雪——金晋燮
爐邊記——張德祚

외로운사람 (戲曲)

公演臺本 劇研十三回
飜譯 李軒求
原作 빌드락

疑問의毒死事件 (長篇探偵小說) 金煥泰譯

新刊評 鷺山著 無常…安浩相

朝鮮日報社出版部

朝鮮丁丑五百年史 車相瓚

濟州島의方言……秋嵐
多島海의俚諺……金思燁
演劇과文學——李雲谷
新年度文壇主流論——白鐵
文壇投資論——金文輯
三五年度노-벨文學受賞者오닐의戲曲…林學洙

振替京城八五八八 京城太平通一丁目

列強의對中權益 李元坤

女性

新年号特輯号(發賣中)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五八八六

새해를마지하시는 여러분께 축복을드립니다 우리는 신녀성제씨의 교양과생활의 동무가되어 뜻깁고 재미잇게 새해를마즈려고 정성스러이 편즙한 신년호를 세상에 드립니다

一席話(든든한生活者) 李殷相

義牛塚——車相瓚

家庭과音樂 洪蘭坡

사랑하는이의印象

□와이루의印象——金煥泰
□살여고애쓰는금순——朴基采
□大統領의女人像——金文輯
□限업는雪路——徐光霽

表紙·扉畵·挿畵·安夕影

特報 畫報
成子內親王殿下 和子內親王殿下
平和의마음·봄의使者·全京城女子專門學校音樂秀才앨범

女性界消息
少女美談
讀者쌀롱
婦人유모어
美人못할病

◇諸先生에게新年計劃을물음
一、丙子에하고십흐시든것
二、年中計劃實行하신것
三、實行치못하신것
四、元旦에는무엇을하시는지
五、새해所願한가지
李克魯、宋今璇、朱耀燮、任永信、李瑄根、張文順、金起林、韓晶實

英皇帝御戀愛秘話

男性?(實話) 李貞子

新年所感

感懷一束——白鐵
禮式的虛裝——安懷南
자최——張德祚

詩 또하나外二篇 春園
눈밤의記憶——李燦

漫文·漫畫 소해와 쥐해——林鴻恩

隨·想 浦口의달밤——秋嵐
追憶 金基錫

女性體格向上策에對하야——朴奉愛

家庭讀本

世界傑作童話集——毛允淑
女學生의뿌라우쓰——金順喜
正月名節料理——李珏卿
新春化粧問答——吳淑根

思想犯保護女子參政權 李元坤

兒童傳染病豫防——趙東秀
귀·배꼽·맹장의衛生——鄭槿陽

流行에나타난現代女性 尹聖相

傳說·美談 安南徵則女王…金永健
그婦人의一生…申鼎言

콩트·貧妻——金東原

令孃日記——金薇園

우리學校자랑 (梨花女高篇)

母性愛群像 洪鍾仁

家庭太平記 (金麗潤氏宅)

十三道女性巡禮記 (江原道篇) 金裕貞

新年創作特輯號

長篇小說 안해 (第三回) 安夕影
短篇小說 도장 李善熙
短篇小說 어둠 姜敬愛
短篇小說 젓 蔡萬植
短篇小說 길 嚴興燮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三

重要性을띄인 李朝史의三丁丑 (二)

文一平

二、仁祖丁丑의 南漢城下盟

丁丑에發生한 大事件中에 端宗의遜位와 千古悲劇이라면 南漢의 城下盟은 千古屈辱이다。

大抵 一國의主權者로서 敵에게 屈膝의禮를 行하고가튼 國際屈辱이자즌 半島에도 처음잇는일이다。

멀리는 말할고 新羅統一로 李朝中葉까지 무릇 千年동안에 陸으로 海로 强敵이 번갈어侵入햇스나 主權者가 敵에게 屈膝한例는 업섯다。

그러나 當時 淸軍의 重圍에 빠진 南漢孤城으로 말하면 勢窮力竭하야 仁祖께서 淸의軍門에나가 和를 請하는以外에 別道理가 업섯다。

淸汗(太宗)이 시늬 來侵한 그目的이 十年前의 江都兄弟約을破하야 새로 君臣盟을 맷고저함에 잇섯스즉 宗社와 生靈을爲하야 이屈辱을 忍從하는것도 역시 不得已하엿엇는지 모른다。

애초 淸汗의大望은 中原入主에 잇는만큼 少島入從는 그의 素願이 아니므로 만일 朝鮮이 그의

一交涉一 을 잘만햇스면 兵禍를 반드시 未然에 緩和 또는 防止하지못할것도 아니다。

自來朝廷의 對淸態度를 보면 緩和나 防止에 努力함은 컨녕 도리어 淸人의 憤怒를 激化挑發시켯다。

己未老征과 丁卯以後 여러가지 [illegible]는 말할고라도 丙子年봄에 淸汗이帝號를稱하고 使者龍骨大等을보내여 我의承認을求할새三司諸學에서 들고일어나 虜使를 버이고 和書를차고 떼드러낫다。그의稱帝가 우리牌임에 거스리거든 조金하로 拒絶해도 맛당하고 슬그머니默認해도 그만일것이다。반드시 激봉하야 그네의惡感을 挑發할必要가 업거늘 平日胡虜로 侮蔑하든淸人에게까지 春秋大義를適用하려함은 可한줄을 모르겟다。어쩌든지 이 아단法席이 나는바람에 淸使龍骨大가 蹴走하고말엇다。그리하야 마침내 斥和綱으로書罪는國交斷絶의 諭文이 八道에내렷다 이斥和文한장이 淸使의奪去한바되어 淸汗에게 證據品으로바첫다。그러치안허도 不平滿滿한 淸汗에게 我로부터 먼저敗盟의口實을 주엇스니 이는仁祖朝廷의

一失策一 이라 아니할수 업다。그러나仁祖朝廷의 失策은이뿐이 아니다 이미斥和한以上엔 맛당이 戰守의計가 잇서야 하겟는데 最後通牒을 밧고도 오히려狡猾의虛喝이라하야 一笑에 부치고 말엇다。아모準備도 업시다만筆舌을 가지고 强敵의 堅甲利兵을 꺽그려고 하엿스니無謀인들 이런無謀가 또어대 잇겟느냐。

그러다가 一朝淸汗이 十萬大兵을 끌고와서 仁祖를 南漢에 에워싸고 연방攻盟의責任을 무를때 紅衣砲소리는 天地를震動하엿다。

敵이 最初犢錄江을 넘든그날부터 最後城下盟을 맷든그날까지 戰期가 무릇五十日이엿는데 南漢包圍는 四十六日 이엇스니 이로보면 이國難은실로 南漢包圍戰에 始終하엿다。

國家運命이 南漢孤城에 가울거릴이때 싸울가。지킬가。또는 和할가。戰守和三策中에 아즉도 歸一을 짓지못하고 부질업시廷臣들사이에 每日爭論으로 일을 삼엇다。

義理로보다면 金淸陰(尙憲)의 斥和가正當한바요 事勢로본다면 崔遲川(鳴吉)의 主和도 不得已한바다。그러나敵이 오기前가트면모르되 大敵이 어미我를包圍한以上 爭論할餘暇가 잇슬가。吳越이同舟하야도 風浪을 맛나면 오히려 同心協濟하거든 危機一髮의此際에 和戰兩派로 갈리진

一廟議一 는 마침내 로彊勁排擠까지서 하엿스니 軍心의結束과 士氣의振作에도 크게影響을미치게하엿다。城中에一萬三千의兵을 두고도 한번抵抗다운抵抗도 못해보고 말은것이決코 理由업는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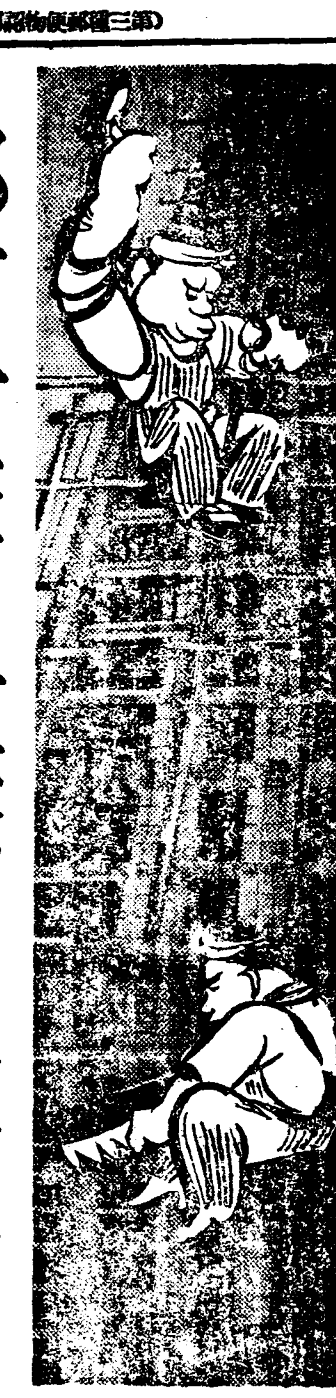
이리하야 內로는軍心이 발서 흐려지고 또氣勢이 날로다칠뿐더러 外로는各道援兵이 모조리慘敗하야 救護의길이 아주斷絶되고金城湯池로믿든 江華조차마자失守되어 宗社王子와嬪宮들 [illegible] 모다敵의손에 떠러간以上 다시 더 무엇을希求하랴。이에出城하기로 悲痛한 最後決心을하신仁祖께서 世子와함께 三田渡淸의軍門에 나가和를 請하시니 때는 仁祖十五年 丁丑正月三十日이다。前年丙子十二月十五日부터 包圍하기시작한 淸軍이이에 이르러四十六日만에 解圍하니 이는 距今꼭三百年前일이다。

이盟約에依하야 從來明에 對하든禮를 그대로淸에 對하야行하기로하고 또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을 볼모로보내고 斥和臣洪翼漢等을 縛送하엿다。

朝明關係는 이에 끈허지고새로생긴 朝淸關係가 그네의入主中原後에는 더욱구더저 最近日淸戰爭까지 二百六十年동안 持續하야왓다。그러나 이는形式뿐이오 朝鮮人이 內心으로는 明의

一舊恩一 을 잇지못하야 明이亡한後에도 그年號를 借用하게쯤 되어거니와 當時君臣上下가 무엇보다도 가장苦痛으로 녀인것은 淸의强要로 자주出兵하야 助淸伐明하든 그것이다。

（계속）



都市計畫과住宅問題 (二)

〈朝鮮市街地計畫令實施를當하야〉

洪鍾仁

(前項續) 그內容은 여러方面에 미친것인데 例를들면 米國에서는一八四二年에住宅改良運動이 잇슨以後 都市住宅에關한 保健衛講 이잇고 또住宅法이 英國에서는 住宅의 衛生科學에關한 重要한 調査報告가 一八四二年에 잇슨以後 住宅에 關한 公衆規定、住宅改善에 對한 未完成住居及 勞働階級條例、住居及 都市計畫條例로서 適當한 財政補助下에 新住宅建築을 奬勵할것等이 잇고 獨佛諸國에서도 各히 有益한住宅法令이잇는中 佛國에는 廉價住宅法이라는것이 一九二八年 勞働大臣 루씨ー르氏에 依하여 出現하엿다는것은 新昇에 一大貢獻이라고할것이다 또 住宅政策의模範的成功의 例로서는 墺國維也納市會에서 社會民主黨에 決行한 住宅政策이 有名하다。그것은 土地價格의 騰貴를 制限하는 大地增加稅와 家賃의 騰貴를 抑制하는 家賃制限法에 依하여 地價를 不落시킨다음 住宅建築에 着手하야 財源은 一般會計에 依하기로 하되 一部는 住宅建築公債、一部는 受益者稅로서 低廉한 家賃으로는 勞働者에게 住宅을 供給할수잇섯다는것이다 그 結果家賃이 勤勞所得의 四分一에 該當하든것이 百分의·二乃至三으로 되엿다는것이다 이리하야 住宅問題를 解決한다는것은 社會政策으로서 勞働者階級의 **住宅標準** 을 노피어 健康保全과 慰樂增進을 確保할수잇는 同時에 名目賃金의 引上이 困難한때에는 實質上으로 賃金引上의 效果를 어들수잇는것이다 現在朝鮮의 事情을보드라도 最近數三年來에 一般物價가 二割餘나 騰貴하엿다하나 勞働者의 賃金이나 其他勤勞階級은 그러케 오르지안햇고 또家賃은 京城等 主要都市는 大槪적어도 二、三割以上의 騰貴를보앗다 더구나 小住宅에 잇서서 一層甚함은 住宅難이 中産階級以下에서 더 甚함을알수잇다 여기에 住宅政策은 朝鮮에서도 時急히 考慮되여야할것은 勿論이다

四、法令과住宅地의問題

다시 朝鮮市街地計畫令內容에들어가 住宅問題와 直接關係되는 몃點을 말하려한다。

市街地ー卽都市計畫의 實施란것은 이미 發表된各地의 計畫槪要로보아 무엇보다도 그道路幅及 廣場公園等과 區畫整理의 擴大土木事業이어 事業으로서 로될것임을 알수잇다 勿論그計畫內容의 主目的은交通、衛生、保安、經濟의四大眉目으로 되여잇기는하나 事業의實際ー그順序는道路網의 決定에 잇슴은 從來明瞭한일이다 道路網의 整備로서 都市의保安을 期할수도잇고 經濟의威力도 잇게되는것이다。事業의 財政問題로보아도 그大部分이 그러한것이다。이제道路網計畫의實施을 아래의 두가지方面으로 볼수가잇다

一、道路의新設과 擴張으로 道路面積이 擴大케되여 都市의總面積上 比率이 增大하며、當然히 旣往의住宅地帶가 蠶食될것이다

이것을 面積上比率로 본다면 大槪 今次의 計畫案은都市總面積의 三割쯤占領한것이다從來의 面積으로보면 大略一割乃至一割五分이엇다 京城의例로도從來의 **道路面積** 이 一割三分假量이든것이 다시一割六、七分이나增大케되니이때문에住宅地의 狹少를느끼게될것은勿論이다

二、道路網實施의財政問題로보면 國費則 府邑費 受益者(道路에面한 居住者)가 大略三分하게되다

그럼으로 小住宅을 가젓든者는 舊區域內住民으로서는不少한額의 受益者負擔을 堪當키힘들것이다

以上의 理由外에도 建築에關한 規定을보면 地域에따라 制限이 不少함을 볼것이다 即

一、美觀防火區가튼 地區는 官廳 會社 또는 商業地域에限하게된다하나 이地區에는建物의 層階와建築材料等의 制限도 嚴格하여 中産以下의 小住民으로서는 住宅을 부지키힘들것

一、또 建築物의 敷地와設備에關한것으로 보아도 制限이만타 먼저 建築物은 그敷地를 長二米以上의 道路에面케한다던가 濕潤地帶에對한制限 總敷地에對한 建坪의制限 便所下水口等의 衛生設備의制限等 從來보다 建築은 文化的인 良好한條件만은 가지게될것이나 그만큼더 建築費를 要하게 될것은 勿論이다 建築과 그建築設備에對한 規定을 一一히 例擧할것도 업시 如上의몃가지 點으로 보아도 從來의 舊區域內에 잇서 小住宅을 維持키는 市街地計畫令의 實施後 더 어렵게 될것만은 뚜렷하다。

都市發展 의여러가지 理由가 잇슬것이나 前記道路面積의 擴大와 住宅地의 狹隘 都市中心地帶가 小住宅地로서 支出이 過大하여질것等의 理由도 極히重大하다 그러라고 從來의 郊外地인 新區域에 간다면 또現在의 狀況으로보아 大部分이 土地投機業者의 手中에 들어잇서 中産以下 勤勞階級으로서는 土地를 엇기에 힘들게되여 잇슬뿐더러 「區畫整理」란것이 잇서 道路、下水道等의負擔을 爲하야 相當한 負擔을 하여야한다。

이런 事情이 모두 住宅難을 더 甚하게하는 條件이되고잇는것이다。即 都市計畫은 都市를 善美、華麗한것으로 만드는것만은 事實이나 都市住民의 住宅難이라는것은 조금도 解決은커녕 一層 困難케할뿐이다。

五、土幕、不良住宅

現在 朝鮮의 住宅狀況을 어떤 狀態에 잇는가 하는것을밝힐수 잇다면 本住宅問題를 論함에 極히 有利할것이나 그런調査資料를 널리 求할수는 업고 다만 總督府 社會調査課의 調査인 土幕及 **不良住宅** 居住者調査를자숭할수잇는것만으로도 크게幸으로여긴다

이調査는 府邑面及警察署等에 對한 昭和十年十月一日現在의調査로

一、土幕도 地下를 파가지고土幕으로서 屋根을삼고 壁土를만든 原始的住宅을 이름이다

一、不良住宅이라함은 衛生上有害 又는 保安上 危險하다고 認定되는대로 만든粗惡한住宅을 이름이라

는 規定下에 調査된것이다 即

▲土幕居住者

	戶數	人口
京畿	一,〇九八	四,五八〇
忠北	九	四八
忠南	一〇〇	四三四
全北	一九五	八五四
全南	四四	九八
慶北	八七	三九六
慶南	一三〇	四〇六
黃海	七三	二一四
平南	一四七	六〇四
平北	一四	六〇
江原	六六	三一
咸南	一〇一	四〇八
咸北	八〇	二五〇
計	二,一四四	八,六三〇

▲不良住宅居住者

	戶數	人口
京畿	五,〇七九	二〇,六〇二
忠北	五二	一五〇
忠南	七二一	三,五三五
全北	四,三九七	一七,六五五
全南	一,二四九	五,六三一
慶北	二,七八八	九,八二一
慶南	一,五三三	六,九三一
黃海	四一五	一,三九〇
平北	八六五	三,九一〇
平南	一,六七五	七,〇六六
江原	九四四	四,三三九
咸南	五〇二	二,三四〇
咸北	六一四	二,一〇三
計	二〇,八三三	八五,五二七

以上의 數字를 新規로 集計된것이어서 累年比較를할수없는것은 遺憾이다。그러나 못지안허도 近年에 加速度的으로 土幕과不良住宅이 增加하고 잇는것만은 都市人口의 膨脹의事實에 비추어 또는農村의 **疲弊狀況** 에비추어 잘알수잇는것이다 그러면이러한土幕不良住宅을 어떠케하느냐 勿論 市街地計畫令은 前記와가튼 住居를 住宅建物로 認定치안케되여잇다 建築物(住宅)로서의여러가지 設備條件은 어느 모로보나 住宅으로認定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라고 당장破毁 撤去를命할수도업서 이에對한 適當한施設이 必要하게될것이다 現在京城府로서도 이問題에對하야 頭痛中이다 府外區域의 一定한 場所를選擇하여 말하면 細民住宅區를 만들고저하나 뜻갓지안타 京城뿐이 아니고 各都市가 亦是同一한處地에 잇슬것이다。

그러고 當局의唯一한住宅政策이라고할것을 든다면 主要都市에 公營住宅이란것이 都合四百八十餘戶가잇다 此所謂 鳥足之血格이라할것이다

六、住宅難은解決안될것인가

그러면 住宅難은 解決될것인가?土幕과不良住宅의問題도 重大한社會問題로 그들의 人間的生活과 都市의衛生美觀을 爲하여 하로바삐 救濟의길을 열어줄것이어니와 그우에잇는 中産階級以下勤勞、勞働者層의 住宅難이라는것이 또한重大問題임은 旣述한바이다 이제都市計畫實施에依하여 激發되는 住宅과 土地의移動은 곳 住宅難을 表現하는것이라 할것이니 이는 또한 都市住民의 窮乏化와 關聯하야 住宅難을 激化하는것이다 이런 情勢에 잇서서 社會政策으로서 住宅政策이 어떤形態로던지 나타나리라고는보기힘들것이다그러나 어떤形式으로던지住宅難을緩和시킬만한 무엇이必要한것만은 事實이다 이때에當局者는 어떠케 생각하고잇는가?于先家賃의 引下가問題이니

地主、家主 의橫暴를 制御할만한法規라도 잇서야할것을 最少限度의 希望으로하여講者들의 一考를促하는바이다 （곳）

春姿十態其六 鼎齊 崔禹錫

槐山

槐山酒造株式會社
社長 專務取締役 支配人 取締役 同 監事 同
柳宋朴曹李金
曾寅一根漢正昌
秀變陽陽翼樹洛

甘勿面梅田里
三金鑛業所
鑛主 安士一

甘勿面梅田里
金鷄鑛山

槐山邑內 朝鮮料理
第一館
主 林三禮

甘勿面職員一同(無順)
面長 權泰鎭 趙南植 張壽永 金俊應 李尙熙 金龜卿 李鍾贊 慶采浩

沼壽面職員一同(無順)
面長 韓星愚
金泰河 柳鎭永 金鍾應 柳福馨 金相轍 崔秉用 韓熙俊

道會議員 柳曾秀

七星面 沈鍾冕外 外職員一同

槐山郡靑川面 職員一同

槐山邑東部里 電氣醫院 院長 李文久

長延面楡岩里 延光書堂 院長 曺鳳煥

佛頂面牧度里 金成商會 主 李章天 沈在薰

槐山穀物商組合 職員一同 大昌精米所 主 鄭八福

忠北槐山邑 天一醫院 醫師 金德應 助手 鄭仁澤

槐山面長 尹雄燮

文光面長 沈載悳

上芼面溫泉里 金泳泰

長延面長 洪起範

槐山郡靑川面靑川里 李範成

槐山邑 司法書士 洪元植

槐山郵便所長 松原和夫

槐山邑內 槐山醫院 醫師 淺野勝三

靑川 金融組合職員一同 朴海觀 金基大 洪鍾豪

槐山邑內 朝鮮料理 笑春館 主 張根七

忠北槐山邑市場 大昌商店 主 李鍾五

高級自轉車特約販賣 附屬品一式諸般修繕 金輪自轉車店 主 金舜日

槐山郡靑川面市場通 高級自轉車販賣 修繕附屬品一式 三共自轉車店 主 朴敬玉

槐山邑市場通 メリヤス工業所 主 李八峰

槐山郡靑川面靑川里 和信百貨店 主 韓相烈

槐山郡靑川面靑川里 靑川商店 靑華旅館 主 鄭永根

長延面墻岩里 墻岩書堂 院長 鄭祿仁 鄭錫永

槐山邑 高級自轉車販賣修繕附屬品一式 朝日自轉車店 主 崔明賢

佛頂面牧渡里 安部ミツ

文光面 面協議員 趙榮大

槐山面 協議員 卞續根

槐山郡沼壽面 公普校長 葛井力

文光公立普通學校長 黃世淵

槐山邑 百貨商 我帽 振替京城二二七九六 主 金陽洙

槐山邑市場通リ 光信堂時計店 主 鄭魯泳

忠北槐山邑 大東陶器店 主 宋鼎鎬

槐山邑 富昌商店 主 李延壽

槐山邑 松月屋 主 閔三吉

[illegible] 金龍性

上芼面溫泉里 趙完相

槐山邑 東洋ハノi 金[illegible]伊

槐山邑 李鍾國

槐山邑 林田久吉

七星面[illegible]里 權敎相

延豊郵便所長 緒方安平

槐山邑 和信洋服店

靑陽

靑陽郡廳職員一同

靑陽郡公立普校長 同一

定山金融組合長 鄭寅晃 外職員一同

靑陽邑內泰陽醫院 公醫 權泰翊

靑陽邑內 貨物自動車 各種肥料 靑武商會

靑陽邑內 水雷旋號 ライオン號 統一號 最高級三大自轉車 方利東商店

美堂市 尹從善

定山鄕校職員 兪鴻濬

美堂市 尹甲善

赤谷面月山釀造場 任哲淳

赤谷面長 金遠傳 會計員 任東先

靑陽郡美堂市 貨物自動車部 禹實命

靑陽面 尹台遠 李在聽

靑陽面長 金達之 外職員一同

木面 尹錫勛 同 姜永植 (前名彊福)

木面職員一同

定山 高明鎭

定山市同生醫院 公醫 李正寬

定山面職員一同

靑陽邑內 金[illegible]植

靑陽邑內 公醫 金基成

靑陽郡邑內里 李鍾弼

靑陽金融組合 職員一同

靑陽金融組合化城支所 職員一同

靑陽邑內 徐相吉

靑陽郵便所長 寺田治吉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靑陽營業所 電話八番

靑陽面 職員一同

靑陽邑內 司法書士 李榮九

靑陽邑內 三共商會 精米業主 南相玉

靑陽面 安鋭遠

靑陽印刷所 李貞鎬

靑陽邑內 東一商店 金彭東

靑陽面上耒產米改良組合 組合長 金鍾遠

靑陽面 金東彥

靑陽面靑南[illegible] 權寧翊

斜陽面職員一同

[illegible] 韓重洙

斜陽面 韓瑩洙

斜陽面 徐元善

斜陽面 [illegible]相五

靑陽郡化城市 湖信堂 雜貨商會 忠南自動車[illegible]所 李晉珪

化城面 安驥老

化城面 宋[illegible]哲

化城面 姜[illegible]求

靑陽化城市 貨物自動車部 籾摺業 宋敏會

忠南靑陽郡化城市場 萬春醫院 金[illegible]俊

化城面職員一同

化城市 尹春釀造場

化城面 白南俊

化城面 林豊鎬

飛鳳面[illegible] 兪[illegible]濬

飛鳳面 兪鳳植

飛鳳面 李象儀

靑陽鄕校職員 鄭雲好

飛鳳面[illegible]川釀造場 李俊儀

飛鳳面 職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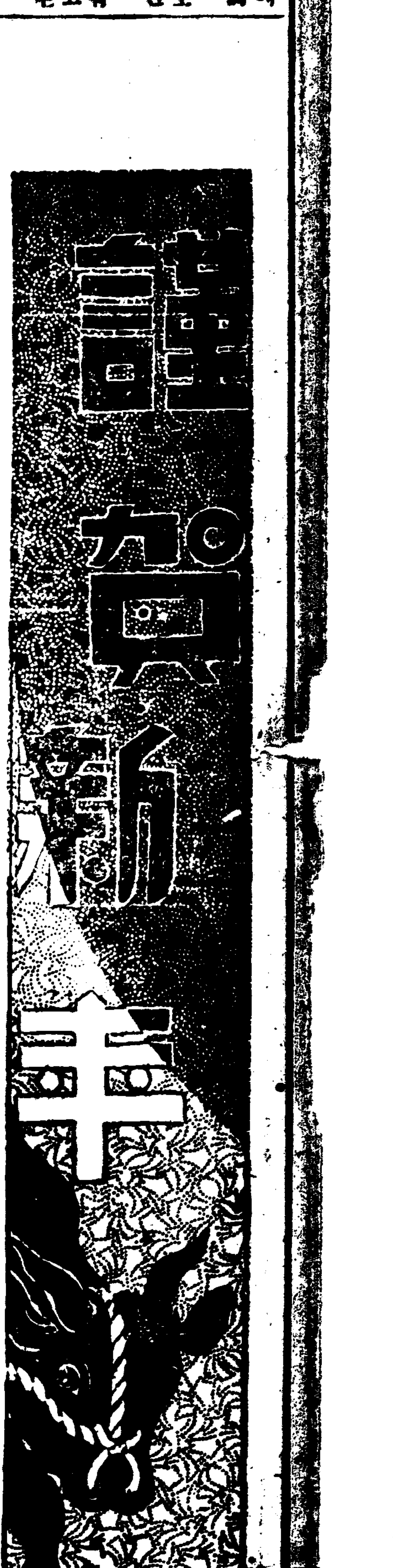
雲谷市 三山貨物自動車部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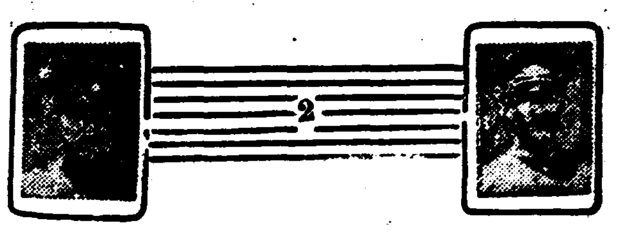
雲谷面 職員一同

大峙面 面長 趙[illegible]熙 會計員 鄭昇謨 書記 崔[illegible] 書記 黃[illegible]鉉

大峙光和醫院 李[illegible]術

朝鮮日報社 靑陽支局 朴永[illegible] [illegible]文[illegible]





極東情勢와 中國

李元坤

滿洲事變을 契機로 日蘇關係의 中心은 滿蘇國境으로 移行하야 險惡한 空氣를 釀成하고잇다 北鐵買收交涉成立으로 兩國關係는 一時 緩和될듯한 印象을 주더니 滿蘇國境交涉의 停頓、蘇聯의 極東軍備强化 漁業問題를 中心으로한 兩國의 利害對立等諸事實로 또다시 險惡한 形勢를 示現하게되엿다。

日蘇關係에잇서 가장注目할만한것은 國境紛爭이 끗치잇시 續發되는것이다。滿洲國發表에依하면 滿洲事變以來 昨年一月까지 滿蘇 滿蒙兩國境을 通하야 二百十七件의 國境事件이 勃發하엿다고한다。그리고 昨今에드러서는 楊木林子事件 綏芬河北方事件 金廠溝事件 長嶺子事件等 日蘇正規軍의 衝突事件이 反覆되여 國境一帶의 空氣는 益益險惡하야 兩國關係는 마침내 尖銳化하고잇다。이와가티 國境事態가

緊

迫의度를加함에 따라 蘇聯은 極東軍備擴充에 注力하야 이미十數個師團을 極東에 配備하엿고 더욱 一千臺에達하는 飛行機와大略同數의 戰車를 同方面에 配備하엿다한다。

이와가티 極東의 危機는 日本의 大陸과 이에對한 蘇中兩國의 防衛努力에 잇다하거니와 그러면 國防上共通되는 地位에 處한 蘇聯과 中國의 關係는 如何한가。

往年蘇聯은 駐中大使카라한을 通하야『蘇聯은中國에잇서서 帝政時代의 旣得權益을 抛棄한다』는 宣言을 發表한以來 中國上下로 부터 絶對同情을 한몸에 集中하엿든 것이다。그리 하야 中國 은『平等으로 待遇하여주는 唯一의 國家』라하야 蘇聯과 提携함이 絶對必要條件이라고 確信하게되여 마침내 國民革命에 불타는 孫文으로하여금 容共을 實現케하엿다。果然國民黨은容共으로 一躍英雄的 躍進을遂하야 勢力을 擴充하고 北伐을 斷行하엿다。그러나이에派行하야 콤인테른及 中國共産黨의 國民黨內部 浸潤工作도 逐日進捗되여 一九二七年 國共分裂當時까지 中國共産黨은 合法政黨으로 活躍하야 一大飛躍을 遂하엿든것이다。

一九二七年 蔣介石의 上海쿠데타 同年七月武漢쿠데타以後 國共合作은 一場春夢으로化하야 表面에서 還潮한 活動을 展開하든 中國共産黨은 地下로潛入하고 勞動者 農民의騷動 農民游擊隊組織 싸베-트區의 簇生 中華싸베트政府 樹立等等의 順序로 共産革命은 逐年 進展되엿스나 中央軍의 執拗한 討伐은 마침내 赤色首都 瑞金을 占領하게되고 乃終에는 共匪軍을 北邊境으로 모라내기에 成功하엿다。共軍

西

의西北移動을 가르처 中國共産黨은「共匪軍의 戰略的後退」라고 辯解하고잇스나 그러나 最近의中國內情은 사뭇다르다 [illegible] 從來의 軍事偏重主義의 [illegible] 反省하고잇는것을 볼수잇다。그러면 軍事偏重主義가 不可하다고하면 무엇으로써 이에 代替할것이냐? 勿論『大衆의힘』이라는것을 認識할때 그들의 腦裏에는 往年의『容共』을 뚜렷이 聯想하게되엿다는것이다。共産黨은 軍事偏重主義를 抛棄하고 本來의面目으로 도라가 都市와 農村에잇서서 大衆勞働者 即인테리겐치야 小市民勞働者 農民商人地主에이르기까지 各階級을 再組織할 方針으로 復歸하게되엿다。이方針을實現식히는데는 絶好의 機會를 捕捉하게되엿스니 그것이곳抗日意識그것이다。그리하야 陳紹禹 李立三以下 中共駐蘇代表團은 이것을 當面課題로 約半年間 討議를 거듭한 結果 一九三五年콤인테른大會에서 新方針 新戰術을 採擇하게되엿스니 그內容을 紹介하면

『싸베트運動의 擴大와 共産軍戰鬪力의 强化는 全中國反×民運動의 展開와 結付하지안호면안된다。

人

이運動은 ××主義特히××××及 其中國人走狗에 對한 武裝民衆의 民族××이란 슬로간下에 實行하지안호면 안된다。日蘇關係가 變化한現今情勢에 잇서서는 半植民地中國에잇서 反×統一戰線과이를 基礎로한 中國民衆의 對日武裝抵抗問題는 蘇聯及 콤인테른에對하야 特히 重要하다 故로 中國자빠트는 全國民의解放鬪爭에 際하야 그中心이되지안호면 안된다』

中國共産黨은 이主旨에基하야『中共中央抗×宣言』을 發表하엿다。그것은『國內外工農軍政商學各界男女同胞』에向하야『抗日救國을爲한鬪爭은 同胞의 神聖한 天職이라』고 웨처 全國統一國防政府樹立과 抗日聯合軍의 組織을懇願하엿다。

그들의 作戰은 的中되엿다。南京政權의 從來不斷한 對日態度에 不滿을 抱懷하고잇든 分子는 모다 이運動에 動參하게되엿다。其中에도 各都市의 學生과 인테리겐치아勞働者는 率先하야 이抗日戰線에 參加하엿스니 그것이 昨年下半期以來에 派生한『全國各界救國聯合會』『學生救國聯合會』等의 抗日戰線團體結成으로 나타낫다 그리고그實踐運動으로는 學生데모 抗日데모 上海青島의 罷業을 列擧할수잇다 이運動은 非單民間에잇서서만이 아니라 國民政府要路中에서까지 심파다이저를 獲得하게되엿스니 馮玉祥 孫科 顧憲勳等 所謂親蘇派로 指目되는 要人들이다。

그

러나 [illegible] 中國을統轄하는 [illegible] 容共實現을도 抗日 [illegible] 同時에 南京政府에서 [illegible] 抗日政權 [illegible] 로 한동안 停頓되여섯스나 最近綏遠에서 勃發한 蒙古軍의 軍事行動과 日獨防共協定締結은 마침내 日中交涉을 停頓케하엿고 따라 이運動에 拍車를 加하야 再然발 [illegible] 示現하게되엿다 果然 十二月十二日 張學良은 國民政府改造와 抗日戰線을 내걸고 西安쿠데타를 斷行하야 蔣介石以下 要人을 監禁하엿다。비록 그것이 蔣介石氏의 [illegible] 한 [illegible] 陝西山地로 쪼겨드럿든 張學良及 東北軍의 窮餘一策에서 나온 斷末魔的自殺行動으로 終幕되엿슬는지는 모르되 抗日戰線에 新한 點으로보든지 人民戰線派에 呼應한點으로보아 그것은 明確히 이運動의 一轉換點인것만은 틀림업다

今

回 張學良의 要求條件中에는 一、國民政府를 改造하야 各黨各派를 包容할것 二、內戰을停止할것 三、政治犯을 釋放할것 四、沈鈞儒 章乃器等 救國會幹部七名을 卽時釋放할것 五、言論 集會 結社의自由 六、救國會運動의保障 七、救國會遺囑을 實行할것等入項으로 비록 [illegible] 할것 抗日容共은 表面에 내세우지안햇다할지라도 從來의 主張과 人民戰線派의 主張을그대로 揭하고 蔣介石氏를 人質로 要求한것만은 事實이다

今回事件이 勃發한 當初에는 [illegible] 反蔣軍閥의 [illegible] 人民戰線勢力의 呼應에 [illegible] 는 展開되지안코 兩方面에 成立으로 大團圓을 告하엿다 하더라도 이結果만으로는 日蘇關係의 人民戰線派의 [illegible] 을否認할수 업다。 [illegible] 는交涉內容가운데는 張學良의要求條件을 考慮하엿다는 條目이잇고 蔣介石自身도 張學良의今回의行動을 一種愛國的 熱誠에서 나온것으로 辯護하는것으로보나 國民政府當局도 只今에와서 도리혀 張學良의 主張을 全的으로 拒否하지안는것은 單純히 蔣介石氏의 救出을 爲한手段으로만 解釋할수업다。

그러타고해서 現在의 南京政府로서는 信威上또는 從來의關係로보아 卽刻 張學良의 主張을容認하거나 人民戰線派 乃至 親蘇派의 要求를 그대로 採擇하지는 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對日外交에 重大 影響을及하리라는것은 可히 豫察 할수잇다。特히 最近에 成立된 日獨

防

共協定은 如何한 動向을 示現하고잇는가。第一에는 蘇聯이國防力擴充을 宣言하고 中國의人民戰線乃至國民政府內의 親蘇派의 活動을有力하게한 結果를誘致하지 안핫는가? 그러나 日獨防共協定의 波紋은 이에끗치지 안는다。

西歐에잇서서 이協定成立으로佛國이 赤化勢力의增進에 警戒하는것과가티 極東에잇서서는 蘇聯을 비롯하야 英、米、中三國이 모다 脅威感을 갓게되엿다 倫敦英新聞의『獨逸은 英本國을 脅威하고 伊太利는 地中海의交通을 脅威하고 日本은 滿洲印度를 脅威하게되엿다』고 述한것은 英國人의多數가 바든 印象일것이다。

右協定의 目的은 비록『콤인테른의 赤化運動을防止』하는데 잇슬것이나 그結果에잇서서는 蘇聯을 筆頭로 民主主義各國을靑威하게될것으로 蘇聯의『데모크라시를敎하라』는 口號에는 英國뿐이아니라 米國까지도 同情을 表示할 可能性이 마리다。

이러한 情勢를 南京政府는如何히 利用할것인가。南京政府의 對日政策은 어데까지 不卽不離의 立場에서 交涉을 遷延하는 것이 常例다。그것은 交涉을遷延하노라면 반드시 自己에게 有利한 時機가 到來하기때문이다。交涉을 遷延하면서 一面으로는 國力을 充實히 長期抵抗을 策하고 他一面으로는 國際情勢를 利用하야 日本에 對處하려는것이 南京政府의 意圖이다

日

獨防共協定과日伊協定은 極東政局에 重大波紋을 그리게되엿다 이兩國의協定成立으로 極東에잇서 日本의地位는 顯著히有利하게된 反面에 列强과 勢力均衡은 破壞에 直面하게되엿다。無條約第一年을마지하는日英米三國間에는 太平洋制海權確立을爲하야 激烈한 海軍競爭이開始되려한다 蘇聯도 軍備 中國도軍備모도가 軍備擴充에 熱中한다

滿蘇國境調整을 爲始하야 日中國交調整等 極東平和를 保障할만한 外交交涉은 前途는 暗澹하다。果然 蘇滿國境、揚子江流域、太平洋을中心으로 險惡되고잇는 極東政局의 低氣壓은 어대로 進行하야 어떠한風雨를醸來할것인가? (完)

蔣氏에쿠데타斷行햇든東北軍

蔣介石氏直系中央軍의一典型

鬪爭하는 兩勢力

歸結如何는 歐洲社會史의 指針

이나라에서는 『王政의』 弊害에對하야 이미一八七三年에 第一次共和政治가成立되엇섯는데 不過一年에 다시 王政을 回復하엿고 其王子알폰소 十三世가 王位를繼承하엿다 一九二三年 프리모·데·리베라將軍의 右黨獨裁政治가서게 되매 左翼壓迫이 激甚하더니 그의反抗力이 漸次擡頭하야 一九三〇年 드듸여 리베라將軍은 亡命하고 一九三一年四月에는 王政이崩壞되고 共和政治가 再次樹立되게되엿다。우리는 今番動亂의由來를 闡明하기爲하야 共和政治가 再次樹立된 以來의 左右抗爭을 一瞥하기로하자

(一) 左翼政治時代(一九三一年十二月—一九三三年十一月)初代大統領자모라氏下에 아자니아氏가 內閣을組織하매·社會黨과 左翼共和派聯合으로 政局에 當하고 맑쓰主義를標榜하며 그政策도 大端히急進的이엇다 即 그政策은大槪左와 如하다 (1) 宗敎改革、이나라의 敎會勢力은 大端히커서精神界뿐만아니라 經濟政治界에도 容喙하야 弊害가만흐므로新內閣은 宗敎法을制定하야信敎의自由는勿論認定하나 敎會存立及宗敎的活動에 可能한以外財産은全部國有로하고 敎育權을 奪回하며 其他經濟的 政治的活動을縮少하야 極端으로 敎會의 權力削減政策을 쓰것이다 (2)農業改革、이나라의 大地主는 廣大한 土地를 所有함에反하야

『全人口』의七割이넘는農民이 一割未滿의 低級耕地를 耕作하게되니 富의偏在가 얼마나 큰가를알수잇다。如斯한 大農地를徵收하야 小農에分配貸與하는政策이다 (3)勞働者地位改善、爭議解決機關으로서 勞働爭議裁判所等을 設置하야 勞働者의 地位向上을 圖하는것이다 (4)地方自治問題、이나라는 地理的으로各地方이 孤立할뿐아니라 封建的殘存性에依하야 地方의 分立傾向이 甚하다하며 特히 카탈로니아自治問題는 오랜동안 左右兩派의 紛糾의焦點이 되여잇다 그래서 新內閣은 自治制를賦與하엿다 (5)軍政改革 軍人의數가만코 또그勢力이 드신데다가 反動勢力에 加擔하여잇스므로 그勢力을 削減하기爲하야軍隊의 再編成을 敢行하고軍隊의 共和化를 促進하엿다 以上과가튼諸政策은 貴族、地主、敎會、軍人等封建的諸要素뿐만아니라 近代的資本家에 經濟的政治的威脅을주며 勞働者農民階級의急激한擡頭를促成하게되엿스니 右翼의 急進的政策은 右翼에 크게不滿과 反感을사게되여 未久에 反動이 오리라는것도想像할수잇섯다 果然右翼派뿐아니라

二、左翼政治時代(一九三三年十二月—今年二月)以上의 아자니아政府의 急進的政策은 右翼에 크게不滿과 反感을사게되여 未久에 反動이 오리라는것도 想像할수잇섯다 果然右翼派뿐아니라

『中央派』도 政府에 猛烈히攻擊하며 一九三三年十一月의 總選擧의 結果 中央派에屬하는 急進黨首領레루氏가 首相에推薦되엿다 右翼諸政黨은 反맑쓰主義의 [illegible] 政權을 明白히하고 中央派와提携하야 大勝利를어드매 아자니아內閣時代의施施한 諸政策을 改革하며 共和憲法까지 改正할氣運에 이르러 極端한 反動政策을쓰게되엿다。

이런反動政策이 나날이 激甚하야감에 憤慨한左翼諸派는 一九三四年十月에 바르세로나、마드리드、오비에도等 工業地帶에 總罷業을 斷行하고 暴動을이르키며 맑쓰와王黨排擊을 그들綱領으로하엿다 이動亂에는 社會黨、共産黨이中心이되고 아나르코산지카리스트一部와左翼的인共和主義者들도 參加하엿다。이動亂을 十月革命이라는데 其後半朔동안에 全部鎭壓되엿다

(三) 人民戰線政治時代(今年二月부터) 十月革命이 即時鎭壓되엿스나 左翼의不平不滿은 鎭靜될理가업다 果然今年初에 議會가 解散되고 二月總選擧의結果 人民戰線이 大勝利를 엇게되고 左翼共和派아자니아氏를 中心으로 政府가出現하게되엿다 지난反動時代의쓰라린 經驗을 맛본 人民戰線內閣은 一九三一年政策을復活하고

『四月에』는 大統領자모라를罷免하며 五月에는 아자니아氏가大統領으로當選되엿다。人民戰線은 過去의諸政策을 漸次로 復活함은勿論이나 十月革命當時의政治犯人의釋放、土地及主要産業의社會化 勞働者及官公吏의復職、勞働法의制定、맑쇼排擊、一九三一年時代의政策을 充實히하고자하는것이다。

以上과가티 右翼及맑쇼諸勢力을削減하기爲하야 맑쇼團體를解散하고 右翼軍人의權利를 剝奪하매 地主、僧侶、資本家、軍人等右翼이 大同團結하야 人民戰線의 左翼革命에對한 反革命의氣運이濃厚하여저서 左右兩派의對立이 極端에 達하엿다。이러든次 突然 七月十二日夜 左翼派카스티요中尉가 暗殺되매그翌日早曉에는右翼의重鎭인 카르보·소테로氏가 亦是同一한 運命을 밟게되엿다 이것이 發端되여 十八日에는 西班牙領土모록코의 멜릴리야市에 動亂이 勃發하게되엿다。

今後의歸趣에 對한豫想

七月十八日에 모록코의 一角에서 勃發한 動亂은 電光石火가티 全土에波及하야 叛軍은 漸漸 伊 葡等의 援助를바더 漸次勢力을 强化함에反하야 政府軍은 國民의 支持를바더 猛烈히抵抗하얏스나 九月四日에는 이룬市 十二日에는 산·세바스찬 市가陷落되고 十一月六日에는 首都마드리드市까지 陷落하엿다고한다 그러던것이 十二月에들어서

『政府軍』은 勢力을 回復하야首都마드리드를 奪還하는 同時에 비리앙갈及우다를 襲擊하야 叛軍을 擊退하고 餘勢를모라 叛軍要塞 비트리아알을 總攻擊하엿다報한다。따라서 어느便이 敗北할지 豫斷할수 업는것은 勿論이어니와 萬若 首都가 陷落하엿다하더라도 即時國內戰爭이 終了된것도아니오 新政權의 確立도 아니다 이제 왜그런가를 檢討하기로하자。

兩軍의 構成要素를보면 爲先 右翼側은 軍人을 中心으로하고 王黨諸派、맑시스트團體、右翼共和諸派가 參加하여잇다 그들이 主義主張을 달리하나 맑쓰主義、共産主義에 反對하는點에 同一步調를 取하고 反對的勢力 맑쇼勢力을 形成하는點에 다름이업다。

一方 政府軍側을 보면 勞働者 農民의 黨을黨이 中心이되

『少數의』左翼軍人、女子義勇隊等도 參加하여잇다。以外 中間層의 進步的分子도 共同戰線을 取하고잇다。政府軍中에도 共産黨、社會黨、아나르코·산디카리스트、左翼共和黨等 그들의主義主張이 一致하지는 안흐나 맑쇼勢力及 反動勢力에 反對한다는 意味로서 同一步調를 取하고 所謂 人民戰線을 形成하게 되는것이다。

以上과가티 兩軍을 素質로본다면 右翼叛軍은 正規的訓練을 바든 軍人이 만흐니만치 戰術에잇서나 裝備에잇서나 優勢하다 이며 따라서 最初에는 그勢力이 優勢한것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나 外國의 [illegible] 府軍을 支持하기때문에 五個月 政府軍이 그勢力을 挽回하야 着着進擊까지 하고잇지안나。

今回 이나라의 動亂의歸趨는 外國援助如何로 決定되는것은 勿論이나 이것을 對內的國內問題와 對外的國際問題로 나누어 보기로하자

『對內的』으로보아 假令叛軍側이 勝利를 하엿다고 假定하면 右翼軍事的 獨裁政權을 樹立하고 左翼諸勢力을 徹底的으로 彈壓하며 一九三一年에 制定한 共和國憲法 人民戰線의 諸政策을 放棄或은 撤廢하고 맑쇼諸勢力을 促進할것은 明若觀火하다 [illegible] 熱情的이오 地方的傳統的特質을 만히가진 이나라의國民은 除外하고라도 土地改革問題 勞働者地位向上問題 地方自治問題 宗敎問題等 複雜한 諸問題로 再次動亂을 이르킬것은 必然한 歸結이라 아니할수업다 또하나 假想되는것은 마드리드市에 맑쇼政權이 樹立되고 바렌샤市에 現政府가 遷都하여잇는狀態이다。이때에는 一九三一年 一九三四年의 革命을 [illegible] 되고 秩序가 回復될것같지 안타 누가 斷言할수 잇슬가。 [illegible] 反復되지안는다 [illegible]

『우리는』 反對로政府가 勝利를 假定하자 現在의 人民戰線政府가 當한다 가 勝利를 獲得하여야 人民戰線이 一層强力的 左翼獨裁政治가 出現할것이라 推測된다 [illegible] 이라고까지 稱하는 社會黨首領 라르고·카바예로가 總理가되며 社會黨과 共産黨이 中心이되여 政府를 組織하엿스며 十一月四日에는 補强工作으로 內閣改造까지 斷行하엿다 [illegible] 萬若勞働者農民의 意勇兵으로 組織된政府軍이 勝利하면 더욱 左翼의 色彩가 一層濃厚하여지는것은 勿論이나 [illegible] 以上의 [illegible] 이베리아半島에또하나의 [illegible] 共産黨勢力이 比較的 弱하다 하나 一段戰勝後에는 政治經濟全分野에 權力이 그들手中에歸結할것이며 따라서 쓰라린右翼騷亂의 經驗을 想起할때그들이 決定的 左翼的 獨裁政治를 斷行할것은 明若觀火하다고 推測된다

『또今番』 動亂이 勝負를 決치 못하고 兩便에 妥協이 成立될때를 假定하자 이때에는 左右兩便의 極端派를 除外하고 中央派의 共和政權을 樹立할수잇다 개업는데 上述함과가티 이나라의 社會機構와 左右의 政治的分野가 너무나 尖銳化하야 잇기때문에 이것은 現實的으로는 不可能하다고 推測된다。

또하나 假想되는것은 마드리드市에 맑쇼政權이 樹立되고 발렌샤市에 現政府가 遷都하여잇는 狀態이다。이때에는 西班牙地中海岸의 經濟的有利한 工業地帶를 根據로 强硬히 맑쇼政權에 對抗할것이니 亦是職爭은 繼續할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以上과가티 對內的으로 [illegible] 動亂의 [illegible] 右翼의 [illegible] 民地政策도 有利할것이다 따라

『이나라』의動亂에 가장 利害關係를 가지고잇는國家는 佛國이다。佛國은 自國政權이 西國과가티 人民戰線에 掌握되여 잇스면서도 對外的으로 國際的으로 機敏하고 虎視眈眈하고잇는 植民地獲得을 꾀하는 맑쇼諸國家가 西國을 傀儡하며 英國 伊太利를 南으로 東으로 둘러싸 될것이니 萬若 西國에 가서 어찌 이를 默認할수잇스랴。그러나 맑쇼諸國家가 叛軍을 積極的으로 援助하고잇스니 心中으로 政府軍을 援助하고싶으나 자칫하면 歐洲大戰에까지 誘導할危險이잇스므로 할수업시 事件擴大를 未然에防止코자 八月에對西不干涉案을 提出한 것이다

蘇聯은 勞働者農民의 獨裁政權을가지고 世界革命을 最終目標로하는 國家요 人民戰線의本質인만치 聯國的으로 政府軍을支持하는 [illegible] 取하고잇스나 地理的으로 떠러저잇는關係上 如意치못한形態이다

『獨逸은』 로카르노條約廢棄、軍備再宣言、라인出兵等 機會만잇스면 失地回復、舊植民地 奪還을企圖하고잇는나라이라 今番에도 積極的으로 叛軍側에 援助하야 不干涉案을 遷延식힌것이다

伊太利는 地中海中間에두고 英國과對立된것은 勿論이다。伊國은 地中海 西半을 自國勢力下에 너흐려 萬若 叛軍이 勝利한다면 地中海의 발레아리諸島 [illegible] 自國經濟下에넘더며 北阿의加利民地政策도 有利할것이다。따라서 叛軍을援助함은 再言할必要도업다 萬一西班牙의맑쇼政權이 確立되는때에는 발레아리諸島 비사고스群島等領土割讓問題及 其他政治的折衝이 잇섯다고하니 그眞僞는알수업스나 萬若이것이 事實이라면 맑쇼諸國은 地中海西部 北阿弗利加方面에 軍事的根據地를 構築하게될지도 알수업스니 伊에戰爭後 地中海西半을 일흔英國은 이제또地中海東半까지 일케될것이며 따라서 英國의 地中海 北阿弗加 小亞細亞及 印度政策까지 重大한變更을 不可避하게될것이니 엇지煩悶치아니하랴 따라서英國은 現政府의勝利를 希望할것은勿論이다。

國際問題로서最近提出된 對西居中調停案은 아직그結果를보지 안하고

『豫斷키』 어려우나左右兩黨의國際抗爭이잇는今日 또人民投票로西班牙의政權을決定한다하니 그리 쉬사리落着될것가지안타 何如던 이나라의今後는 多事多難하다。

◇

以上과가티 이나라는 泰西列强이 最高文明을누리고잇는今日 自然的不幸뿐만아니라그보다더한 層 中世的封建的殘滓가 만허서 社會機構도 不健全하며 經濟界政治界에 軋轢이 恒常繼續하여 나려온것이다。最近五個年만하더라도 無數한人命을일코 巨萬의 財産을 消費하지아니하엿든가 不健全한社會이니만치 動亂이發生할素地는 이미充分하다하엿거니와 그의歸趨는 더一層複雜하야 對內的으로도 決定할수업을뿐아니라 對外的으로도 國際情勢가 決定的으로 一方에歸着되지안는 限 決코斷案을 나릴수업슬것이 아닌가 다만 玆에는 이나라의社會機構 左右抗爭、對內的諸問題對外的國際情勢의 推移等을述하야써 本論題에代하고자하고 擱筆하는바이다。

(附言 動亂의歸趨問題를 더仔細히쓰고자하엿스나 紙數의制限으로 極히簡單히하고만것은 遺憾이다)

(完)

賀正

水原

京城地方法院水原支廳 判事 金鍾錫

水原郡廳

松山公立普通學校長 尾島茂平

水原邑

水原邑北水町三〇一 合資會社 京南藥業社 電話三三五番

エルジン號 月星號 特約店 各種自轉車 中古車專門 附屬品一式 南鮮自轉車商會 主 金鳳 水原邑梅山町三丁目 電話一八七

三槐公立普通學校長 大岩根村德

南陽公立普通學校長 岩月周夫

京城電氣株式會社水原支店

東一印刷所 金敎益

水原金融組合 會計幹事 安東政昭

水原邑本町二丁目 綢緞布木 振興商會 主 劉碩烈 電話一六一番

水原邑梅香町 和洋雜貨 郡散賣 大元商店 主 崔英植

水原邑梅香町 大豆玄米 外米雜穀 肥料原鹽 直輸移出入 海東精米所 電話三一九番

水原醫師會 中鉉益

朝鮮麴子株式會社水原支店

陰德面長 洪承殷

梅香公立普通學校長 武井勇

雨汀面朝岩里 金文圭

沙江金融組合理事 崔學舜

水原邑本町二丁目 尹泰仁

水原郡水原邑梅山里 ㊋水原松京運送店 金壽龍

京釜線水原邑本町三丁目 神崎吳服店 電話(一貳一)

水原邑本町一丁目二〇番地 京南タクシー 電話三二二番

京釜線水原 丸朴商會 電話三七番

水原邑本町二丁目 建築工木工 建築家修繕 鐵物各種 華城鐵工場

㊂水原船主運搬組 主任 朴滕根 電話長(三七七番)

京畿道水原郡水原邑本町四丁目 華城興業株式會社

水原邑本町三丁目 雲谷病院 李光燮

水原邑南門外 洋雜貨 木材 興信商會 電話三二九番

水原驛前 寺澤拾三郞

水原釀造株式會社

京釜線水原驛前 ㊌水原運送店 李容成 電話三一八番

水原郡水原邑本町四丁目 和洋百貨 御敎賣 萬福商店 主 安巨福 電話一〇二番

水原邑本町二丁目 絹織物 綿綿布 永昌商會 電話一五七番

水原邑內本町二丁目 食料雜貨商 中原商店 主 韓禮錫 電話一二一番

京釜線水原驛前 穀肥原鹽煉炭木炭石油其他 京東商會 電話五八番

水原梅山町 八達繩叺組合 李致弘 電話一六二番

峰潭面長 朴商德

長安面長 金庸模

楊甘面長 李光雨

梅松面長 鄭寅達

松山面長 洪龍裕

雨汀公立普通學校長 細田和義

峰潭公立普通學校 窪田鼎

麻道公立普通學校長 横枕千鄕

西新公立普通學校長 伊藤矢三郞

西新公立普通學校長 百生賴一

飛鳳公立普通學校長 有働一誠

八灘公立普通學校長 宮本伊之吉

水原驛前 水原 振興社

烏山驛前 華南醫院 醫師 宋[illegible]

發安 三星釀造場 徐光[illegible]

水原郡楊甘面社倉里 楊甘釀造場

烏山金融組合 鄭鎭夏

發安金融組合 理事 藤田郁彦

水原邑本町三丁目 時計 眼鏡 三星堂時計店

梅山町三丁目 水原材木店

八灘面長 李鍾範

鄕南面長 尹元榮

飛鳳面長 李鳳求

麻道面長 李漢斌

水原郡松山面沙江里市場 東一堂藥房 主 洪思[illegible]

發安醫院

水原邑本町二丁目八三 京一 李亨根

水原邑本町二丁目 第一家具店 組 漢

興一商會 咸興

京釜線水原驛前所里 水原製繩共榮組合 電話長二四七番 金珉基

水原驛町四八 中華料理 迎賓館 電話一六八

退潮

咸南退潮漁業組合

咸鏡線退潮驛前 ㊀朝鮮運送株式會社 退潮代行營業所 代表者 洪淳鐵

咸鏡線退潮驛前 綢緞布木及雜貨 兄弟商店

朝鮮咸南退潮市場 綢緞綿布及雜貨 權緯周商店 振替京城二三〇八五番 電略(シュウ)又八(そ)

菓子食料專門 榮明堂 主 韓榮八

青城

青城 金德基

青城面 全月龍

青城 康鳳大

忠淸北道沙川郡青山市場 青山釀造社

忠北青山市 朴壽俊商店 宋在竜

中央理髮館

太平洋의暗雲

日英米의對立과 그戰略的地位觀

地理的立場으론日本이크게有利

(上)　李甲燮

——太平洋의거츤물결은 바야흐로용소슴을 치려고한다 자칫하면 이怒濤와激浪은 人類最大의悲劇을 再演하리라——海洋覇權의 撥指비슷한 마듸말으將次 太平洋上에展開될日英米間關係의惡化, 그爆發을 오직 戰慄속에서 想像해보는 한개의野句인것이다 太平洋의危機는 實로 今年부터가 그本舞臺다

大戰後十有餘年間 어떠튼 이激浪의——발서 한번쯤은衝突하얏슬——防波的役割을해오든華府、倫敦의兩海軍條約은 昭和十一年十二月末日限 完全히 그效力을 일케되얏다 그동안이두條約의期限滿了를압두고 昭和九年十二月 倫敦에서 同條約의改訂을 協議하얏스나 日本은드듸여 同條約의廢棄를 宣言하는데 일으럿고 倫敦條約도 그條約의約束에依하야 期限滿了前一個年間에 새로운協定이 잇서서야할것이엿스나 期限滿了前一個年인 昭和十一年은 아무런協商도업시 그대로 지나가고말엇다 다만英國만이『設令 華府條約은 업서지드라도 그條約第十九條의 太平洋防備制限條項만은 存續식히지안켓느냐』고 지난十月 日米兩國에 물어왓다 그러나 日米兩國政府는 이에對하야 한결가티 默殺로서 對答하엿다 이暗示가큰 默殺은 果然 무엇을 意味하는것인가

인제 外交도 끗나고 條約도업서젓다 남은것은 다만 軍艦을 맨들것뿐이다 다만 武裝만이 이問題를 解決지는 唯一한方策으로 남겨노인것이다 武裝後에 오는것은 무엇인가?

本文은 武裝後에 올戰爭을 豫想하고 關係國間의 太平洋上에 잇서서의 戰略的地位를 考察하는것이 그主眼이다.

日英米의目標는 中國市場爭奪에

그러나 그보다압서 日英米가 웨이와가티 對立하지안흐면안되는가? 또는 日英米對立激化의 表現인軍備—特히 이境遇에는海軍擴爭의經路를 冒頭에서 至極히簡單하게 說明하고 本題로 들어가려고한다

日英米가 웨對立하지안흐면안되느냐하는데 對하야는 한마듸로말하면 日英米가 强國인限에잇서 避치못할市場戰、原料資源戰 資本輸出戰의激化가 곳그決定的原因이다 卽全世界의市場을 거이 獨占해오든英帝國은 大戰後 日米兩國의資本과 商品의飛躍的進出로말미아마 第三國에잇서서만이아니라 英國自治領에잇서서까지 威脅을밧게되얏다 戰後米國은 債務國으로부터 債權國으로 一轉하야 英國에對해서는戰債債權을 殖民地分讓으로써하라고 公然히 主張하얏다 그리고 貿易에잇서서도 三百年來世界一位를 자지하고잇든英國을 대번에 물리치고 米國이 그자리를 占領하야 極東、南米、카나다等 世界各處에서 그尖銳戰을 展開하얏다 다음에 日本도亦是 比類업는 低賃銀과 圓의減價에依한 商品으로써 全世界의英國市場에 肉迫하고잇다 極東은 勿論 濠洲、카나다、印度에까지侵入하야 英國地盤을 容赦업시깨트리고잇는現象으로서 그貿易額에잇서서도 昭和四年의 三十二億餘圓으로부터 同十年에는 四十九億餘萬圓에까지 躍進하얏스며 其中人絹의生産高는 인제英國을 壓倒하고 世界一位를 차지하게되얏다 이와가튼日本商品의 進出은 英國에對해서나 마찬가지程度로 米國에對해서도威脅을주는것이며 反對로 英米의商品、資本은 日本에對하야또한 威脅을 주게되는것이다

그러데 이日英米의世界的對立의焦點은 어데냐하면 그것은곳極東中國이라는 世界的市場이다 太平洋問題도 實로 이點에그中心이 잇거니와 中國은 列强의아메 世界最良의 商品市場으로 原料資源地로 資本輸出地로 그리고 또 그들의世界的對立의縮圖로서그巨艦를 가루노코잇는것이다이點에 對하야는 긴說明을 避하고 日英米의對中投資額이一九三一年現在三十二億四千萬米弗이라는것과 英國은列國의總投資額의三六、一% 日本은 三五、一%米國은六%이라는것만을指摘하려고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一九〇二年率과 比較해보면 當時 英國은 三三、〇% 日本은 一、〇% 米國은 一九、〇%엿든것이 인제 日本이 英國과 억개를 겨우게되代身 米國은 이點에서 日英에 慘敗하얏다 周知하는바와가티 米國의極東政策은 門戶開放과領土保全에 잇섯다 이政策은 滿洲國의出現으로 挫折되고 이政策의支柱이든 九個國條約은 事實에잇서서 無力化하고말엇다 그러나 米國이 中國에서 慘敗한채로 退却한것이라고 速斷해서는안된다 米國은 日英米의混戰線에서 손을떤것이아니고 지금 默默히 太平洋에 떠울배를 맨들고잇는것이다 뿐만아니라 米國이 昨夏以來 南中으로 地盤을 求하고잇는 事實을 看過해서는안된다 米國의 南中進出은 他方에잇서 英米衝突을 催促하는結果를 지울이라는것은 지금안저서 豫斷할수잇는일이것거니와 中國에잇서 보다며 激烈한 對立을하고잇는것은 日英이다 그 貿易戰에잇서서도 그럿거니와 投資戰에잇서서도 서루 伯仲을 다투게될뿐만아니라 英國은 南中에잇서 政治 經濟 軍事各方面에 亘하야 鞏固한 地盤을 가지고 잇다는點이다

어떠튼 日英米는 中國에잇서 그對立이 尖銳化하고 잇스며 이것을 解決하기爲하야는 또는한거름더나아가서 이것을 더욱 擴張식히기爲하야서는 이擴張에太平洋을 그舞臺로 하는以上海軍擴張을 그宿命的政策이아닐수업다

歐洲大戰以後의 列强의海軍競爭

英、米의海軍競爭은 大戰直後戰前부터 問題되든 海洋自由問題에다 戰勝利權을 擁護하기爲하야 一層더 猛烈한 勢力으로써 勃發하엿다 海洋自由의問題는 大戰中인 一九一六年의米國大艦隊案을 決定시킨 歷史的問題다 從來 英國의武器는 海上封鎖엿섯다 그런데 米國은 戰時 中立國과의貿易에잇서 海上에서 조금도 防害를 밧지안코려는것이 그 主要國策이다 戰後 英國에서는 海洋自由說에 如前히 反對하야 米國으로하여금 一九一九年 드듸여 一九一六年의大艦隊案을 다시 採擇하게하얏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힘이나는 第三國이 잇스니 이것은곳 日本이다 日本도 大戰에서 獲得한 極東의모든利權을 完成하고 또 鞏固히하지안흐면안될다 日本에서는 米國의 一九一九年案에 八八艦隊案으로써 對抗하야 結局 日米兩國案은 實現에까지는 가지못하고 말앗스나 海軍競爭은 이로써 三角關係의姿勢를 取하고 進展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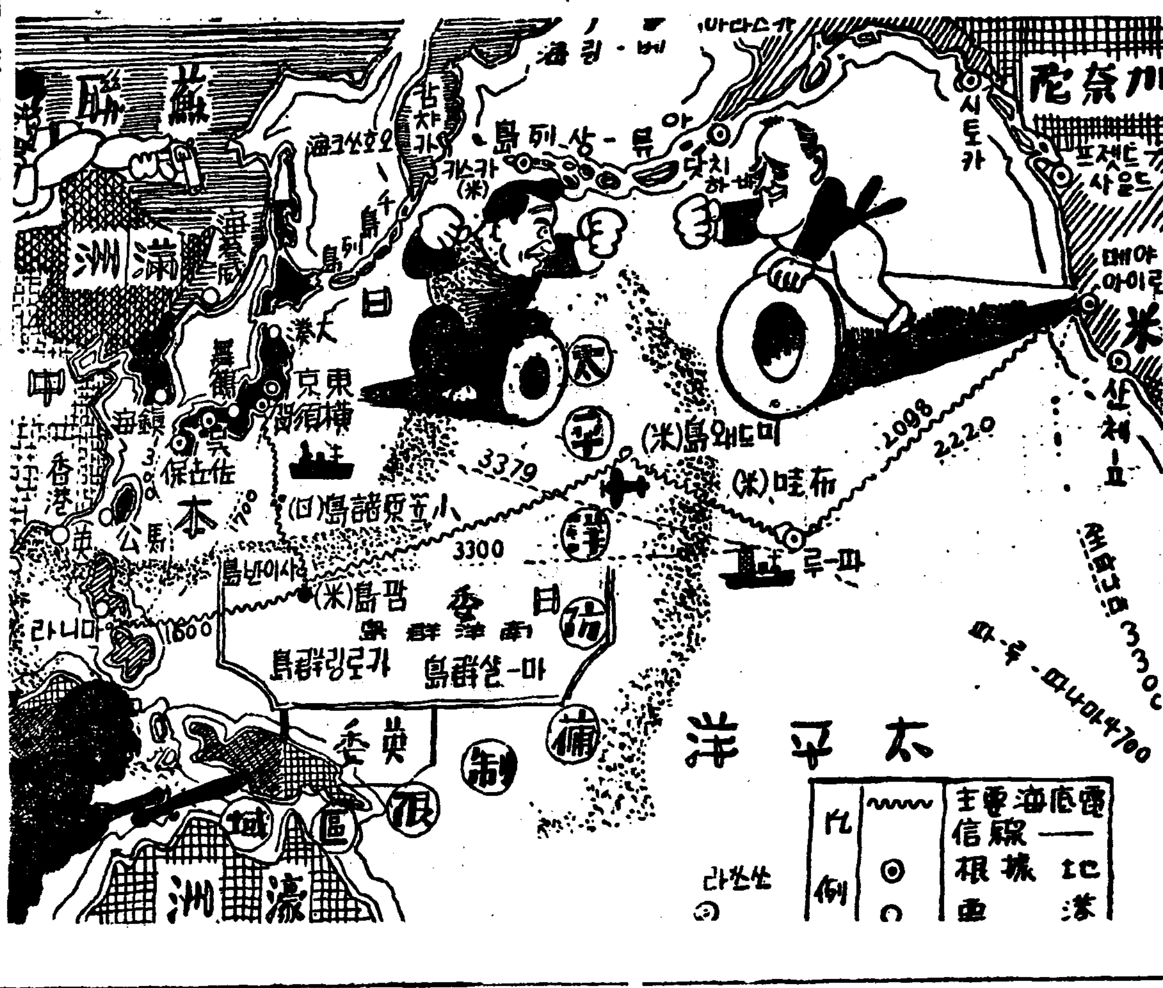
一九二二年二月六日 日英米三國과佛伊를加한五個國은 華府條約을 締結하고 海軍競爭에對하야 어느程度의 制限을 加하얏다 이條約이 成立될때는 各各自己나라의 事情이 潛在하야잇섯거니와 지금은 長久한歲月을 經하고 이條約의 骨子를 보면 (1)新艦建造는 此後十年間中止할것 (2)既存主力艦의 廢棄할것 (3)英米日의 主力艦의 比率은 五、五、三으로할것 (4)太平洋의 防備는現狀維持를 할것等이다 그러나 이條約은 海軍競爭을 終熄시키지 못하얏다 다만 競爭은 이條約에서 아무런制限도 밧지아니하는 다른艦種으로 옮겨갓슬뿐이다 그런데 海軍競爭에잇서 한가지 重大한 新事實은 海軍技術에 對한 問題다 從來로 海軍의最重要武器로 생각되야 오든主力艦은 그後航空術과 潛水艇의發達로 그價値에 疑心을 품게되얏고 그結果로 列國은 輕快한巡洋艦競爭으로 集中되얏다 이제華府條約後의 各國建艦狀態를 살려보면 米國은 八吋備砲一萬噸級의巡洋艦十八隻 [illegible] 英國은 六吋備砲 [illegible] 巡洋艦十隻 潛水艦十二隻을 各各新造하얏스며 日本의 建艦도거이 華府條約規定에까지나아갓슬뿐만아니라 海軍現有艦數는 條約當時의 約三倍에까지 增加하얏고 또그동안 海軍根據地를 鞏固히하얏다

그러나 競爭은 決코 여기에 끗치는것이아니다 東亞의安定勢力이기爲하야는五·五·三의比率은 千萬不當하다는것과 最近航空機及潛水艦의續航力이 非常히發達된것을理由로 日本은 華府條約을 廢棄하지안햇든가?

우리는 이제 이와가튼 日英米의對立과 그海軍競爭으로부터 必然的으로 結果지어질戰爭에對到할때 다시 그戰略的地位—太平洋上에잇서서의—를 생각해보지안흐면 안될問題에 일으럿다 여기서 첫재로 海軍의基本的勢力인 艦艇의現況을 考慮하지안흐면안되겟다

別表에서 본바와가티 主力艦에잇서서는 噸數도 英米가 갓고 日本은 거이 그半에 갓갑다 航空母艦에잇서서도 英米는 거이 갓고 日本은 그半에 不過하며 甲乙級巡洋艦에잇서서는 英米日、驅逐艦은 米英日、다만 潛水艦만은 艦齡超過艦을 除하면 日米英의 順序이다 그리고 航空軍에잇서서는 米英日의順序로서 全海軍力에잇서 英米는 거이 비슷한程度이고 日本은 英米에對하야 이數字로만본다면 거이 問題도 되지안흐리만치 弱하다 그러나 實際戰爭에잇서서는 이와가튼 海軍力의測定이라는것은 幾多의 制約을 밧지안흐면 안된다 假令 海軍力의 總噸數에잇서서는 日本이 弱하다고 하드래도 潛水艦과 巡洋艦의性能이 世界一이라고 하는點으로 英米가 한결가티 日本의 海軍力을 認定하는 要點이되야잇는것이다 이밧게 軍人의 戰鬪的精神、參謀의 作戰計劃等等은 한갈가티 軍力을 測定하는데 不可缺의 重大要素이겟거니와 그中 作戰根據地問題도 가장큰問題中의하나로 取扱되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 모처럼 建設한海軍力도 그根據地의利不利에 딸아 有效히 쓸수도잇고 反對로 아무效力도 내지못할수도잇기때문이다

—(續)—



蘇聯의 內政外交

內政上産業發達은可恐이나 東西外交關係는危機에直面

❷　溫樂中

첫재 間接選擧로부터 直接選擧로 改正되엿다 從來의 選擧法이依하던 都市와村쏘베트를通해서 直接選擧가 엇고 州及共和國及 聯邦에 이르기까지는間接選擧이엿섯다 그래서 村또는市쏘베트로부터 全聯邦쏘베트의選擧에 이르기까지는 四階段의選擧이엿든것이다 이間接四階段選擧制를 採用하게된 當時의事情은 이러하다 쏘베트政權이樹立되엿든 當時는 北은 北海로부터 南은黑海 東은 太平洋에 이르기까지의 廣大한領土에는 數十의異民族이 우으로는商工業의階段에까지 發展한近代的文明의 民族으로부터 아래로는游牧의 經濟階段에 머므르고잇는未開人까지 잇섯스며 全人口의三分의二는 文盲이엿섯다 이러한客觀的情勢下에서는 完全한民主主義的選擧法을 實施하는것은도로혀不可하다고 生覺하엿든것이다 比較的小集團을 選擧의 基本으로삼어 選擧人의 直接的인 日常生活問題를 中心으로 平時부터 充分히 理解하고 잇는 사람들을 모아 그中에서 選擧케하고 그옷사베트는 選擧된 사베트에서 選擧케하야 사베트의金字塔을 이르게 하엿든 것이다 그러나 사베트政權下의 二十年이라는 歲月을 經過하는동안에 底級의 經濟階段에잇든諸民族들보다 노픈階段에 이르럿은勿論

文盲問題

도 [illegible] 當局者의 發表에依하면 九割五分이 文字의智識을 어덧다고한다 勿論이數字를그대로 밋지못한다 하드래도帝政時代에 比하야 만흔進步를 하엿다는것만은 事實일것이다 此等變化와 아울러 사베트의特殊한機構로 政治的訓練에잇서서도 相當한敎養을 어덧다 이러한 客觀的情勢의 變遷下에 階段選擧法을廢止하게된것이다

둘재 從來의 選擧에잇서서는 都市에서는 五千의選擧人에 對하야 一人 農村에서는 人口十二萬에對하야 一人의比로選擧되엿든것이다 이와가튼 不平等選擧制를 採用케된것은 一九二八年까지도 個人農은 九七·二의農作地를 耕作하는 絕對勢力을가지고 잇섯다 이個人農은 農業을 私營하는 資本主義的殘存物이엿다 그럼으로 아즉 이러한 프로레타리아化하지 안한農民으로부터

一層進步

的인 都市프로레타리아의『헤게모니』를 確保할 必要가잇섯다 이러한 理由下에 不平等의選擧制가採用되엿든것이다

그러나 第一、二次五個年計劃으로 事情은 一變하엿다 一九二八年에 九七、二의耕作地를가젓든個人農은一九三四年에는 一三、六으로 轉落되엿다 卽社會主義的經營形態인 골호즈(集團農)及소호호즈(國營農)가 支配的으로되엿다 卽農民의 프로化와同時에 프로的性格을 엇게되엿다 그러다시말하면 農村에 잇서서의 反社會主義的要素가 解消된것이다 따라 差別選擧로부터 平等選擧로된것이다

셋재 蘇聯의 公開選擧制度는 大衆生活이 沸騰하엿슬때에 代議員을 迅速히會議에 보내고 또곳召還시키기 爲하야 便宜上帝政時代로부터내려오든 擧手投票制를 採用하엿든 것이다 그러나 이 選擧制度는 사베트機關에 官僚分子의 跋扈를 招來하엿슴으로 先進諸國에서 採用하고 잇는 秘密投票制를 採用하게 된것이다

新憲法은 以上과如히 民主主義的으로 改正되엿슴에도 不顧하고 政黨은 單一黨밧게 업다고하는것이 다른나라와 다른點이다 스탈린은 로이·하워드氏의 問答에 잇서서 이點에對하야 左와如한 要領의말을하엿다 卽 新憲法에依한 選擧가 普通、平等、直接

秘密選擧

임에 不拘하고 政黨이 하나 밧게업다 그러나 政黨에 關하지안코 數百의 社會團體에서 選擧候補者를 낼수잇다는것과 對立되는階級이 업다는것이 그理由이다

이點에對해서 西歐社會民主主義陣營으로부터는 萬一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로써 眞實한 民主主義化를 達成할라면은 各 投票者가 自由로 政見政黨의候補者를 選擇하고 그代表者를通하야 政府의 構成과政策을 左右하고 政府의行動을 監視하는 可能性을 갓게하지 안하면 안된다고한다

何如튼지 新憲法은 民主主義에로 一步前進되여 나가리라고하는것만은 否認할수 업는事實이다 이憲法은 사베트社會의 進展에 따라 發展해진것이겟지만은 對外的意味도 또한크다 第一은 諸國에 잇서서民主主義的制度는 漸漸 업서저가는데對하야 사베트에서는 民主主義가 發展해나가는것이다 第二는 歐米의 民主主義國과 接近을 容易케하는 結果가된것이다

恭賀新年

天安

天安邑本町　發動機販賣、修繕　安榮機械商會　主 金榮鎬

天安邑本町　ヒカリ石油發動機　豊國機械商會

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本社 天安

天安 溫陽溫泉　神井館　電話 六五、一二八番　電話溫陽六、一七、一八、一九番 自動車各營業所

天安邑　朝鮮館　電一四八番　房綿紅 鄭江南紅 盧雪波 李貞姬 柴玉蘭 李蓮花 車雲仙 金蓮士

天安邑本町　東一銀行天安支店

天安郡邑內　春洋會

忠淸南道天安郡天安邑南山町四七ノ一　忠南貨物自動車株式會社　職員一同　電話三七番

忠淸南道天安　京南釀造株式會社　電話天安一一番　振替口座京城一〇五七三番

天安郡笠場面良垈里　朝鮮中央鑛業株式會社

天安郡廳　天安郡農會外各團體

天安邑內　天安電燈株式會社

天安邑　天安穀物組合

忠南天安邑　朝鮮料理　樂天館　電話一一四番

天安郡邑內　山星トラック

天安郡笠場市　郵便所長　石澤彌太郞

天安郡成歡面　職員一同

天安邑　新宅源三郞

天安驛前　東拓天安農場

天安邑本町　食料雜貨　上野商店　電話三五番

天安邑本町　運動具　正價堂　電話一四〇番

天安郡笠場市　和洋雜貨　李興壽商店

天安邑笠場市　綢緞布木各種雜貨　正釜商店

天安郡笠場市　相信自轉車店

京釜線成歡驛前　佐藤齒科醫院

天安郡蓮川金鑛組合　安鍾林

天安邑本町　參蔘·菓子卸商·砂糖　松尾商店　電話四六番

天安邑本町　時計·蓄音器·洋品　正眼舍

天安本町　更家齒科醫院

天安本町　仁濟醫院　成歡驛前

天安邑本町　シンガーミシン會社天安分店　主任 趙漢昭

天安邑本町　ペンキ塗 看板工作 塗料販賣　天安ペイント工社　取次電話一四〇番

天安邑內　光南精米所　玄履東

天安邑內里四六九番地　合資會社　永天堂藥房

天安邑市場通　綿絲布·諸雜貨商　天永商店

天安邑內　李永植

天安邑本町　洋品·雜貨　實田商會　尹洲均　電話一八番

天安邑本町　日光商會　主 金寅植

天安邑本町　明信洋靴店　主 文成玉

天安邑本町　各種時計·貴金屬　正午堂

天安本町　金鍾煥

天安郡　天安公立學校長

天安邑寶永町　天和醫院　徐光璧　電話一七番

天安邑本町　中央製菓所

天安邑南山町　李鍾遠

天安邑本町　京南洋服店　主 李達鎔

天安邑本町　金性培

天安邑內　趙貴用

天安郡　東面釀造場

天安郡東面　面長 李容圭　警察官駐在所 首席巡査 北原要

天安町笠場市　日進釀造場

三浪津

三浪津面　職員一同

京釜線三浪津　丁碩倫

馬山線洛東驛前市場通　孫性玳　布木商

京釜線三浪津驛前　中央醫院

三浪津　醫院長 伊藤達

京釜線三浪津驛前　趙亨植

京釜線三浪津驛前　金東輪

三浪津面　面協議員 李泰桓

京釜線三浪津驛前　室內裝置·家具製作　金聖道

唐草藥材·貿易商及賣藥請賣　壽生堂藥房　主 金東浚

各種印章·各種時計　三成時計店　主 鄭水龍

請負業　林萬盛　伊淳

西洋·雜貨　金永煥商店

三浪津驛前里　煙草商　鄭達鎬

高貴藥品 有名化粧品　博仁堂藥舖　崔基守

綢緞布木　呉京煥商店

金海郡生林面事務所　職員一同

金海郡生林防水組合　役員一同

金海郡生林面　鄭永泰

金海郡生林面　仁壽堂醫院　朴壽鉉

金海郡生林面生林里　趙鎔九

金海郡生林面　大里代書事務所　許駿萬

金海郡生林面生林里　盧在鎰

金海郡生林面生林里　曺且壽

三湖

咸南三湖　三湖自動車運輸商會　代表 蔡東顯

咸南三湖港　三湖漁港築港期成會

朝鮮成鏡線三湖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三湖代行營業所

成鏡線三湖驛前　倉庫·金融·運送·委託　Ⓢ成興商業倉庫株式會社三湖支店　支配人 金興秀　同 李

三湖鹽魚肥製造組合　代表 徐仁植

謹賀新年

開城

高麗人蔘專門社 代表 李寅馥 電話(長)五三九 振替京城一九二八五番

開城人蔘同業組合 組合長 朴鳳鎭 理事 高漢承 電話四二九番

開城府南山町二八 本社 開城ゴム工業社 專務 朴聖圭 電話一五四番 振替京城一六四六五番 私書函開城局第一號 神戶工場 神戶市林田區管原通

開城蔘業組合 社長 孔聖學 電話五五番

開城府廳職員一同

開城府東本町 朴尙裕

開城府北本町 開城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玄圭 專務取締役 朴永韶 電話四二一番

開城人蔘商會 電話二〇八番

開城府大和町 林屋洋服店

開豊郡中西面館前里 開城釀造株式會社 電話五〇八番

開城府南本町一九一 同興泰 電話三三七番

開城府西本町一四二 三光商會 電話三四六番

開城蔘業株式會社 電話四〇四番

開豊郡廳 電話八番

開城金融會

開城府南本町 中華料理 迎濱樓 電話一四八番

中華料理 松月館 松南食堂 隻合館

松都普通學校 校長 尹永善 電話一四四番

松都高等普通學校 電話三二番

申聖雨

ライオン印靴下 製造元 東洋工業社 電話二五六番

開城南大門內 高麗齒科醫院 吳廷龍

開城大和町 高麗洋服店 朱尤明 電話四〇六番

中華料理 會昇館 電話五〇七番

開城府大和町 辯護士 權寧旭 電話三三二番

開城驛前 三國商會 電話三二九番

開城府滿月町 曺龍煥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電話四八番

內外漢藥商高麗人蔘 開城漢藥社 張于桐 電話五三番

開城公立商業學校 校友會

開城府東本町郡橋烏川邊 紙函專門 第一紙器商會

朝鮮總督府專賣局 開城出張所 電話六番

林漢祖

金絡鼎

金正浩

開城北本町 孔鎭泰

朝鮮開城府北本町 滿蒙產業株式會社 電話三七番 四四九番

春圃社 電話一〇二番

李根泰

開城商工會議所 電話四一七番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指定 開城電氣工業所 代表 陳錫云

道評議員 林漢琯

松都殖產株式會社 電話三五三番

開城南大門內 第一洋靴店

許塡

開城北本町 朴鳳鎭

開城府滿月町 高麗商會 電話三四五番

開城府滿月町 綢緞布木 三星商會

開城南大門通 中京洋服店 電話三一七番

北本町 朱德鍾

開城南大門通 圖書文具洋品百貨 崧南書館 電話一六一番 振替京城一二七五一番

開明劵番 電話一〇九番

開城府南大門通 喪中欠禮 孫啓震商店

中華料理 大興園 電話五三番

開城府北本町 孫懷遠

府會議員 朴尙愚

朴尙舜

開城府崇仁洞 開城山羊牧場 電話五三六番

開城府北本町 合資會社 高麗自動車部 電話一四九番

開城南山町 料理屋組合

東本町 朴治永

都鄙食料品消費組合 電話四五五番

開城南山町商橋通 松京釀造場 電話三一四番 振替京城六八六三番

同仁醫院 金壽天

開城自動車營業所 電話一四六番

開城府池町 永昌紹介組合

開城郵便局職員一同

開城警察署長 神田實夫

商工會議員 金在鉉

開城料理屋組合 電話三〇九番

商工會議員 井本喜市

商工會議員 八木右一

開城印刷株式會社 電話一二二番

開城南大門通 金俊榮商店 電話三〇二番

開城驛前 朝鮮運送會社 開城支店 (電話一三四番)

松都自動車部 電話五二四番

金在益

開城北本町 高麗醫院 許鏞

大同舍印刷所 電話三二二番

大同醫院 電話一三六番

開城府南大門通 日誠堂

金基永

北本町 人蔘貿易 高麗人蔘業社 韓宗錫

開城大和町 十字醫院 崔昌鎬 電話三六番

開城大和町 金麗鍾

開城道立醫院 院長 立石源次

商工會議員 金基晃

開城北本町 李承奎

禹相貞

北本町 朴載珪

開城府西本町通 食料品問屋 惟一商會 電話三五番 振替京城二五二八〇番

開城南大門通 韓學洙帽子店

開城府大和町七 沈基澤

李鎭教

崔光一

松都校長 金俊玉

德昌泰

李鉉卿

開城南大門內 金在敎商店 電話五一六番

東亞印刷所 電話二一九番

大阪

大阪市南區上本町二丁目 ペイント刷マルタカ製造發賣元 高山孝吉商店 ペンキ刷毛 ニス刷毛 ワニス刷毛 水性刷毛 ペンキ筆 糊刷毛 表具刷毛 張物刷毛 洋服ブラシ 靴ブラシ 主任 高鴻植 電話東二四七二番 型錄進呈

大阪市西成區北開三ノ一 各種書籍 朝鮮食品 新聞雜誌 各種雜貨 男女ゴム靴 다리미製造 卸小賣 時昌商會 主 李時漢 支店 東淀川區天神橋筋七ノ一四 店員一同 振替大阪七〇七五五番 西成區鶴見橋通七ノ四

大阪市浪速區榮町二丁目三 公認 大阪朝鮮藥業組合

大阪市南區高津町五番丁三九 毛織原料 輸出古着商 各種用物 金本金太郎商店 主任 金斗實 電話戎八六二番 倉庫 大阪市天王寺區下寺町三丁目 電話戎二六五一番

大阪市西區京町堀通四丁目七番地 海陸物產 船具漁網 人絹絲 貿易 合資會社 東洋物產商會 電話長土佐堀一〇四五八番 振替口座大阪一〇七四五〇番 電信略號(トウヨウブッサン) 發信用(トヨ)又ハ(トン) 取引銀行 三和銀行 岡崎橋支店 住友銀行 川口支店

大阪市浪速區榮町四ノ二七 黑スムース エナメル下地 各色クローム 趙製革所 趙猷均 電話櫻川一四六七番

大阪市西成區北開町四ノ一 紳士靴 婦人靴 ターンス 卸 通信販賣 金永郁製靴所

大阪市浪速區北開二ノ九 販路口金 製造各種 自轉車用 小判鑄製造 高田金屬製作所 主 高明提

大阪市西成區鶴見橋通七ノ四 綢緞綿布 毛織 卸小賣 通信販賣 朝鮮商會 趙明三

大阪市浪速區榮町四ノ二 上田製靴所 經理者 盧漢駿

大阪市大正區小林町一二 新美理髮館 主 趙東洙 李相律 高見惠才 金右祚 崔武鎬

大阪市西成區北開三ノ四 海陸物產 穀類醬油 食料販賣 三友商會 主 李奉玉

朝鮮佛教布教所 禪宗聯合宗務院 布教師兼監事 金德祐 號月庵 大阪市西成區旭南通五ノ一

大阪市西成區鶴見橋北通五ノ五 朝鮮物產…大 本せル…會部 綿布各種…賣 金玉出

大阪市西成區長橋通七ノ一五 各種特殊、四、六角鐺ナット並ニオートバイ修繕 販賣運送部 植田製作所 主 朴應市 電話櫻川三六九六番

大阪市浪速區長橋通七ノ四 共成造花所 主 梁寬杓

大阪市西成區南開五ノ七 室內寫場 新設完備 晝夜撮影 大同寫眞館 吳明涉

大阪市浪速區榮町四ノ三八 東亞興業研究所 林正業 電話櫻川三九〇八番

大阪市西成區北開四ノ一 高級女靴 小供靴 製造販賣 三浦商店 主 洪定夏

大阪市大正區濱通一ノ二五 池蓮浩

有限責任人蔘 朝鮮生藥販賣 大阪市浪速區立葉町一三二五 濟衆堂藥房 主 夫應文

公認 大阪朝鮮藥業組合 大阪市浪速區榮町二丁目三

大阪市西成區出城通四ノ九 特殊ナット類製作販賣 福木製作所 李珠烈 電話櫻川六三三二番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ノ三 自轉車用サドル用各種鋲及捻ナット ボールト抜物 朝倉製作所 主 金詰浩 電話櫻川一八九九番

大阪市西成區津守町一七三 東亞商會 紙袋部 製紙部 李日新 電話天下茶屋四二二四番

大阪市西區京町堀通四丁目七番地 合資會社 東洋物產商會 常務理事 李錫鎬

大阪市港區市場通一丁目五 綢緞 人絹 毛線 朝鮮特產 其他各種 織布 卸小賣 河景圭 電話西五五六二番

大阪市大正區北恩加島町八五 全南莞島郡莞島面望石里 オートバイ部 タライ 古鐵 砲金 製銅原料 粉商店 主 李吉浩

大阪市港區千代見町一丁目三一三 特許燒酎、味淋用ナショナル壜洗滌機並ニブラシ各種瓶洗 ブラシ製造御專門 秋本ブラシ製造所 電話西四二二三番

大阪市東成區北中濱町三丁目九 自轉車フレーム製作所 尹尙鉉

大阪市港區石田外材町一メ十四 金銀細工 古物商 平波板 什器材料 ⑧海商店 鎭斗泰

大阪市港區八幡屋町一ノ四〇 ナット製造販賣業 工場主 李奇權

大阪市港區夕凪町一メ十五 朝鮮基督教主務所 高聖欽

大阪市西成區中開町三ノ六 宋秉九

大衆理髮館 主 金義三 館員一同

大阪市浪速區稻荷町三ノ九〇五 朝鮮人蔘 鹿茸 唐材 補血 郁散 回春堂藥房 主 朴奉華

大阪市大正區泉尾濱通二ノ二五 鐵粉商 丁仁基

大阪市大正區加島町二ノ一 牛肉料理營業 主 崔鎭烈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 東足代一五四 朝鮮料理 富民館 金黃今

大阪府下中河內郡 布施町荒川八九九 セルロイド雜貨及ビブリキ光線鏡製板製造 高田工業所 電話小阪二五九

現住所大阪市港區田中元町一四〇 原籍全南濟州島表善面城邑里 古物商主 康永三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太平寺四六 黃河潤

西井里

通川五月會

江原道庫底港 東海鐵工所 主 金龍浩

和洋百貨 綢緞布木 各種器 庫底和信連鎖店

江原道通川郡庫底鰯油肥製造業水產組合庫底支部 庫底鰯油肥製造業組合 電話三九番

東拓鑛業株式會社 通川鑛業所 電話五〇番

通川邑 東鮮釀造場

通川郡教育會

通川警察署一同 警友會

通川郡 金炳寶

通川 金炳裕

通川漁業組合 役職員一同

三和商會 主 劉錫 振替京城一七七〇五番

通川郡臨南面 職員一同

碧養面事務所 職員一同

通川面松山里 金正夏

崔榮祚

牛島醫院

通川郡 池厚豊 崔秉洵 姜龍孫 朴廷善 趙東玉 尹廷珪 吳基守

海產物委託販賣 兄弟商會 主 高柄南

庫底漁業組合 電話二八番

五柳里 金廣濟 電話一五番

救世醫院 公醫 李潤韶 電話二番

具敬書 電話二七番

通川金融組合庫底支所 電話一五番

通運酒造場

朝鮮料理 中國料理 永樂館

李學淳 電話一七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四

朝鮮産業海外進出
對外貿易振興方法如何
(二) 李順鐸

元來 本國과植民地間에는 國內市場 及 生産에關聯되여 여러가지의 複雜한 問題를 惹起하는外에 對外問題로 紛爭이만흔것이 常例가되는다。一般的으로 植民地가 産業發展의 初期에 잇서서는 市場으로서의 立場으로 海外로부터의 輸入과本國으로부터의 移入과의 사이에 葛藤이되지마는 植民地의 産業이 啓發이 進展되여서 從來 原始産業 生産品의 搬出로부터 漸次 工業品

製造品을 輸移出하게 되면 이點에서 더욱이 어려운問題가 생긴다。現下 內鮮間의 經濟諸問題도 또한 이範疇에 屬하고잇스니 이를量的及質的의 二種으로 大別한다면

量的意味

量的意味로서는 朝鮮의産業이 相當한 程度로 發展되여 日本內地의 産業과 內外地市場에서 어느것은 競爭할만한勢力을 가저게된 結果로 發生하는 것이다。即 現在의 實例로는 化學理科『사-진』魚油經金屬製品綿布等이 內外地各市場에서 競爭하고 잇스며

質的意味

質的意味에 잇서서는 아즉 朝鮮의 産業이 實力上 內地의産業을 貿易關係에 잇서서 威脅할만한 程度까지 發展못한 結果로 發生하는것이다。即朝鮮의 産業은 아즉도 技術的方面으로 보아서 幼稚한 狀態에 잇기때문에 製品의 質이粗惡하야 이 品에 日本商品이라하야 海外로輸出함에는 日本商品全體의 聲價를 傷할 念慮가 잇다하야 問題를 이르키게된다。現在의 實例로는 電球 琺瑯鐵器等을 들수가잇다。

上述한바와 가티 朝鮮의 産業이 發展함을 따라서 日本內地와의 經濟關係가 漸次로 複雜하게되는 此際에 朝鮮貿易의 物質的 基礎가 今後 依然히農産物을 移出하고 製造品을 移入만한다면 朝鮮貿易의 構成要因은 漸漸複雜하게될것이며 朝鮮産業의 發展은 極히 制約을 바들것이다。

따라서 朝鮮經濟의發展을 確保하기 爲하야는 日本內地의 貿易에만 置重할수업고 市場을 海外에 開拓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即朝鮮의産業에 新生命을 주기 爲하야는 海外에 進出하지아니하면 안될수업는데 그러면 朝鮮의 對外貿易을 振興하려면 如何한 方策을 講究할가 이것이 本論의 主要點이다。

産品의 海外 進出策이라고하야 過去 世界 先進各國이서取한 政策의 實例는 甚히 만치마는 이것은 各其 國情에 따라서 多少 다르니 大體로 參考할것에 不過하고 朝鮮의 境遇에 잇서서는 産業 貿易 其他 모든 經濟部門이

發展의 初期에 잇는만큼 이朝鮮의 特殊現狀에 適하야 適當한 方策을 講究하는것이 必要한데 以下에 現狀으로 보아서 急하고 主要하다고 생각되는 몃가지를 들러서 說明해 보려고 한다。

一、朝鮮의産業의 實情과 그生産品을 海外에 널리紹介宣傳할것。이 具體的方法으로는 現在 朝鮮産業이 進出하고잇는 趨勢로 보아서 몬저 滿洲 北中 南中 南洋 印度 比律賓 濠洲 其他諸外國 主要都市에 商工獎勵館을 設置하고 恒常 朝鮮産品을 陳列케 同時에 輸出入商取引을 紹介指導케하는것이 一策일것이다。또 海外各國에서 開催되는 博覽會 共進會 國際見本市等에 參加하야 朝鮮의 産業을 出品하는 同時에 朝鮮의 産業事情을 紹介 宣傳하는것도 一策일것이다。博覽會나 共進會에 關하야는 一般이 잘아는바 이지마는 國際 見本市라는것에 對해서 一言하면 現在 國際見本市場은 歐羅巴各國을 通하야 二十餘個處가 잇는中 第一有名한것은 獨逸『라이프치히』에잇는 市場이다 이 市場의 開市起源은 西曆十一世紀頃에 基督敎的宗敎儀式을行하는 祭日을 利用하는데 잇섯는데 今日에는 每年春秋二回開市하야 開市期間은 一週間이오 各國으로부터의 參集者는 四十餘萬人이오 參加國은 三十餘個國이오 出品數는 一萬六千六百餘種을 算하며 總取引高는 每回에 十五億馬克以上에 達하는現狀이라한다。이 市場의 取引方法은 一般的으로 參集者는 自己의 願하는 見本에 對하야注文을 發하고 同時에 出品者의 本國에 向하야 銀行의 信用狀을 發行함으로써 原則을삼으나 從來로 取引關係가 잇던지 信用이 確實하다고 認하는곳에는 極히 自由로운 支拂條件으로取引을한다。그래서 近來 獨逸이 이市場을 通하야 輸出貿易을增大하고 잇는것은 우리의 잘아는 事實이다。日本內地에서도自今 六年前에 이市場에 多少出品하고 잇는데 此際에 朝鮮産品도 이러한곳에 出品 宣傳하는것이 産業의 海外進出을 꾀하는 方策이 될것은明白한 일이다。

二、海外貿易에 關係된 中小商工業 經營에 對하야 合理的施設과 金融方法을 講究할것。即 今日 朝鮮産業의 大部分은 原始産業以外에는 中小商工業으로 占居되엿는데 小數의 大資本도 販賣機關의 進出과 金融의 梗塞과 同業者間의 無理한 競爭等으로 因하야 經營困難의 狀態에 잇슴으로 海外貿易의 振興에 障害되는바 不少하다。따라서 이에 對한 善策으로는 몬저 商工業組合을 設置하고 共同施設에 依하야商品仕入 及保管 運搬 加工 販賣品을 行하도록하고 同時에自治的으로 統制 檢査 指導 研究 調査等을 함으로써 發展을圖해야 할것이다。다음에는 金融損失補償制度를 設定하야 金融機關이 海外貿易에 關係된 中小商工業者에 對하야 資金을 融通하여줄 때에는 그損失에 對하야 一定한 限度의 補償을하도록 해야할것이다。또 金融梗塞의 現狀에 鑑하야 積極策으로는 行政當局의 低利資金을支出하면서 그融資의 完全回收方法을 確立하는것도 一策일것이다。即商工業者가 海外로부터相當한金額의 注文을 直接 或은輸入商을 經由하야 어던숨때에 그注文品의 原料購入時로부터 注文品 完納 代金回收時까지 短期融通할것이오 또 商工業者中에 商工業의 組織變更 改善其他 新施設等의 實施에 依하야 必要로하는 資金을 長期融通할 것이다。그리고 輸出補償制度도 速히 實施하여야 할것이다。即輸出貿易者의 積極的活動을 促進할 必要가 잇다。

三、輸出港에 集荷施設을 充實히하고 海外 直接航路를 設置할것。現在朝鮮産業의 大部分은日本內地의 輸出港을經由하야 海外에 進出하는 狀態에잇스니海外貿易上 極히 不便不利하다。그럼으로 現航路의 滿洲 北中 南中의 各線을 擴充하는 同時에 南洋 印度 其他歐米에까지라도 直通航路를 設置할 必要가잇고 따라서 多數船舶이 寄港하야 直接取引을盛하하도록 各輸出港에는 集荷施設을 充實히하여야할것이다。또輸出港에 商品의 輻輳를 助成하기 爲하야는 出荷地로부터 輸出港까지朝鮮內 鐵道貨物의 特別運賃率을 制定하야 適用하도록 해야 할것이다。特히 滿洲建國以來로 朝滿貿易의 吐呑港으로重大한 使命을 가젓다고 하는 淸津 羅津雄基 及 鎭南浦等에는 相當한 規模下에 諸般施設을 完備하고自由港制度를 採用하는것도 一策일것이다。

四、輸出品의 品質의 不正粗惡을 矯正하며 海外市場의 聲價를 維持 向上식히기 爲하야는 輸出品 檢査制度를 擴充嚴守할것。現在 朝鮮産 輸出品은 海外市場에 잇서서 그品質이粗惡 劣等이라는 말이 잇다。따라서 品質로서는 그다지 歡迎밧지 못하는것이 오즉 低廉價廉때문에 그販路가 維持되는데 多幸히 今日 南洋 亞弗利加等의 大多數의 民衆은 아즉도 그生活程度가 低級임으로 이러한 品質의 商品을 要求하나 그러나 이러한 地方도 文化의 向上 發展을 따라서 生活程度도 노파가고 需要品도 漸次 劣等品에서 中等品에 中等品에서上等品에의로 變遷해 갈것이다。그러함으로 相當劣等品은 漸漸逐當 競爭場에잇다。더구나外國의 製品이 비록 高價이라하더라도 品質이 上等임으로 因하야는 彼等도 品質의 善良을 곳 認識해야할것이옥 늘 劣等品으로써 滿足할수는 업고 不絶히 그네의 程度와 趣味에 合하도록 硏究하면서 質의向上을 圖해야할것이다。따라서 이目的하야는 檢査制度를 設하야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할것이다。

五、朝鮮産品이 積極的 海外進出을 圖하기爲하야 不絶히 海外市場의 狀況을·調査報告하며 販路擴張을 伸張할 機關의 設置가 必要한것。이方法으로는 勿論 滿洲 北、南中國 南洋等地는勿論이오 其他 世界各地 主要商業都市에도 이方面의 行政當局官吏를 派遣 駐在식힐것이며 그러치못하면 適當한 在留人에게라도 委託하야 그地方의 商況報告와 朝鮮産業의 紹介와 輸出入商業者 指導等의 業務를取扱하는것도 一方策이다。數日前의 新聞報紙에 依하면 朝鮮産品의 海外進出을 圖하기爲하야 總督府 外事課에서는 今年度중 通商係를 設置하고 比律賓 英領印度 南洋 濠洲 南中國等各十個所의·植民地의領事館 商務官에게 囑託하야 朝鮮産品의販賣되어가는 狀態와 嗜好如何等調査報告後 朝鮮産品의 販路를 決定할 方針이라하니 이것이 事實이라하면 實로機宜의 計畫이라하겟다 그러나 오즉 이에만 끗치지안코 좀더 積極策을 講하는것이 조치아니할가한다。

六、世界經濟의 現勢及其動向과 朝鮮産品의 海外進路에鑑하한 處置를 講究하기爲하야는 貿易政策을 確實히 세워서 貿易行政을 刷新해야할것。即朝鮮의 産業은 從來대로 自由放任에맛겨서는 아니될것이다。다시 말하면 今日海外 各國의 組織的競爭裡 에서 朝鮮의 各産業者가 自己의 利益만을 追求하기爲하야 個個의 散漫的 經濟的行爲이어서는 비록 個別的으로 進出한다고하더라도 이것은 決코 永久히 繁榮할 希望이 업는것이다。그러함으로 域內에서는 반다시 輸出統制를 實行할것이오 海外에 對하야는 相對國의 情勢如何를 살펴서 求償主義「코리시스템」바터시스템」協定 制度等을 實施하여야할것이며 또 貿易行政 機構로는 海外市況 調査硏究及 報告 輸出品 檢査統制新販路開拓 其他 對內 對外各般 貿易行政을 統轄하기 爲한 獨立 機關으로 朝鮮總督府內에 貿易局 가튼것도 設置하는것이 크게 必要하다고 생각된다。(完)

丙子災年과 農村經濟
(中)
盧東奎

大槪 災害는 自然的條件과社會的條件의 合致된産物이다 朝鮮의氣候特히 降雨量의 特殊性이며 朝鮮의地勢 土質 河川 森林等의諸條件은朝鮮에 旱害와同時에水害를자조가저오게하는 自然的條件이다그러한가운데 朝鮮의 産業이 지금까지는 農業을 主로하고잇스며 그生産技術은低劣하며 其經營은主로 資産이貧弱한 零細小作農에依하야 行하야진다는것은 自然的인 災害를 社會的인災害로 나타나게하는社會的諸條件이다 實로 災害는 自然의問題가아니고 社會的問題라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이러한見地에서본다면 李朝末期에잇서서 三次의 丙子災年의 記錄이잇다는것을우리는 偶然으로만볼수업다 李朝末期에잇서서는 封建制度의腐敗로 一般農民은恒時飢餓에當面하고잇섯스니까 若干의 天然的災害가 激甚한 社會的災害로나타낫다고 볼수잇다 災害에對한 이러한 社會的觀點은 今年의 農村經濟를 觀察하는데對한 重要한 指針으로삼을수잇다

三、農産物價格은엇더한가?

筆者는 昨年에 朝鮮銀行調査指數에依하야 農村販賣品價格과 農村 購買品 價格의 變動을 調査發表한바가 잇섯다 이제 丙子年의 農産物價格의 變動을 말하는 前提로 過去의 大勢를보면 다음과갓다

朝鮮의 農村販賣品과 農村購買品의 價格變動 (朝鮮銀行調査)

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함

	農村販賣品 (十二種價格指數)	農村購買品 (十二種價格指數)	總三十種平均指數
大正十一年十二月	二二二·一	一八八·〇	二二一·五
十三年十二月	二九二·七	一九八·〇	二六二·一
十五年十二月	二三三·八	一七〇·五	二〇九·三
昭和二年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年十二月	[illegible]	一四〇·三	一四八·九
七年十二月	一〇〇·八	一四八·四	一二四·四
九年十二月	一〇七·〇	一五一·四	一三二·三
十年二月	一六六·〇	一五二·五	一五六·八
四月	一六六·三	一五五·五	一六〇·一
六月	一七四·四	一五〇·〇	一六三·一
八月	一五〇·七	一五四·三	一五〇·四

上表에 依하야보면 乙亥年에는 農産物價格은 相當히 回復하얏섯다 그러면 丙子年의 步調는 엇더한가?

	農林販賣品	農村購買品	農村總平均指數
昭和十年十二月	二三三·〇	一四〇·三	一八三·〇
同十一年二月	二三四·四	一四〇·三	一八六·九
四月	二三五·一	一四〇·二	一八六·八
六月	二四四·〇	一四〇·二	一九三·一
八月	二三〇·五	一四〇·五	一九〇·四

朝鮮銀行調査物價指數에 依하면 同年에드러와서 農村販賣品은 健實히 騰貴의步調를 繼續하고 農村購買品價格은 昨年度보다 若干低落되어 保合하야 農村經濟에는 大端有利한것가티 보인다 그러나 元來 朝鮮銀行調査의物價指數는 品目이 不過三十種으로 農村購買品과 販賣品을 網羅하지못하엿스며 이러한 調査에 對하야 厲히 不適當한것이다 그러므로 品目數가 九十一種의 多數에 達하고 京城의 消費價格指數와 小賣價格指數를 包含한 京城商工會議所指數를 가지고 다시 其價格을 調査하야 보면 다음과가튼 結果를 어들수잇다

	農村販賣品 十六種價格指數	農村購買品 二十三種價格指數
昭和十年十二月	一二五·六	一一〇·五
昭和十一年五月	一二八·三	一一三·六
昭和十一年十月	一三三·四	一一六·六

(註) 京城商工會議所指數는 昭和七年十一月十二日昭和八年一月의 三個月平均을 一〇〇으로함

上記의農村販賣品 價格은 全部都賣價格이요 農村購買品價格의 大部分은小賣價格指數를 採用함

上記의 京城商工會議所調査의 指數를 가지고보면 農村販賣品價格은 今年에드러와서 一二五·六에서 一三三·四로 即 六·八이 騰貴하엿고 農村購買品價格은 一一〇·五에서 一一六·六으로 即六·一이 騰貴하엿다 그럼으로 朝鮮銀行指數와는 달리 아니라 農村販賣品만이 騰貴한것이 아니라 農村購買品의價格도 거의同率의 騰貴를 示하야 價格騰貴로因하야 農村經濟가 利益을 바든은 조곰도업다고하겟다 그뿐아니라 우리는 物價指數라는 抽象的數字를가지고 論하는것보다 重要한 農村販賣品과 購買品의 價格變動의 數字를具體的으로 列擧하는것이 農村經濟가 價格變動에서 밧은바影響을 더明瞭히할수잇겟다 그러므로 京城商工會議所發表의 時勢에依하야 農村販賣品中 主要한 籾 大豆 繭絲 精麻 四種과 農村購買品中가장主要한 地位를 占하는 綿布、滿洲粟、硫安、三種의 價格變動을보면다음과갓다

	籾(玉百斤)	大豆(三等一石)	繭(山鮮産百斤)	(一石)
	圓	圓	圓	圓
昭和十年六月	八·三〇	一七·九〇	三二·五〇	三三·〇〇
十二月	八·五二	一七·七五	六三·三五	四三·〇〇
昭和十一年二月	八·二〇	一九·〇〇	六二·〇八	四四·〇〇
四月	八·七二	一九·三〇	六二·〇〇	三八·〇〇
六月	九·四二	二〇·五〇	六〇·〇〇	三九·〇〇
八月	九·二七	二一·五〇	六二·五〇	三三·〇〇
十月	八·一七	二〇·〇八	六〇·五二	三五·〇〇

	滿洲粟(鐵嶺一袋)	綿布(三A一反)	硫安(朝窒十貫)
	圓	圓	圓
昭和十年六月	一〇·四〇	九·〇〇	四·五五
十二月	一三·五七	九·〇〇	四·七七
昭和十一年二月	一四·五五	八·三〇	四·九三
四月	一三·八〇	八·一〇	四·六九
六月	九·一九	八·三〇	三·七七
八月	九·〇四	八·一〇	三·四四
十月	八·一〇	八·三〇	三·三六

上表에依하야 보면價格變動으로 依하야農村經濟가 바든利害關係는明瞭할것이다 몬저 米價를 가지고 보면六、七月의 端境期에 最高絶頂에 達하얏다。그러나 이때에는 一般農家에는 貯藏米가 업섯스니까 아모 惠澤도 못바덧슬것이요 도리혀飯米를 購入하는 農家가 만헛슬것이니까 損害를보앗슬것이다。그런데 新穀出廻期에 至하야는 米價는 昨年보다도 低落하게되엿다 即 朝鮮의 米作은 凶年이요 日本內地의 米作은 豐年으로 昨年實收高보다 一、七八四石(第一回收穫豫想高 一六、七八四二萬石增收의 豫想)이라는 朝鮮農村經濟上 最惡의 境遇가 如實히나타낫다 이에 朝鮮農家는 收穫減價格低의 二重凶作의 苦痛을 맛보게되엿다 다음으로大豆價格을보더라도 出廻期인 十月에는 低落하얏고 蠶繭價를보더라도 出廻期인 六、八月에는 低落하야 生産者인農家는 農産物價騰貴의 惠澤을 밧지못하도록 되얏다오직 綿繭價는 繼續騰貴하얏스나 今年度의 朝鮮棉作은 三割以上의 凶作이니 不過五%의 價格騰貴로 相殺될수업다

이에 反하야 農村購買品이잇서서는 綿布價格은 큰變動이업섯스나 硫安과 滿洲粟에잇서서는 一般農家가 兩者를 만히購入할 春窮期에잇서서는 高價를 繼續하얏고 其需要가업서지게되는 秋期에入하야 價格은 低落하얏다 即價格騰貴로 因한 損害를 農家는 撤底的으로 입게되엿다 其中 硫安價格이 獨占資本의 橫暴로 因하야 實로生産費의 倍以上으로 騰貴하얏고 이것이얼마나 朝鮮農民을 收奪하엿는가하는데 對하야는 當時에 輿論이 沸騰하엿던 바이고 우리의 記憶이 새로운바어니까 이곳에서 길게論하지안켓다

何如間 이만하면 農産物價格騰貴의 利益이라는것은 一般農家에 對하야는 幻想的이요 紙上論이요 農村購買品價格의 騰貴로因한 農家의 負擔은 現實的이라는것을 알수 잇스며 丙子年의 農村經濟는 收穫減 價格低(物價指數上에나타난것이아니라 一般農家의 販賣價格으로보아서)의 二重凶作이라는것을 알수잇다

凶年의損害는主로 누가負擔하는가?

丙子年은 實로 收穫의 價格低의二重凶作이엿거니와 其損害의 大部分은 누가 負擔하엿는가? 이것이第三의問題나 이問題를 論하기前에 몬저昭和六、七年의 價格低落의損害를 主로負擔한者는 누구 이엿으며 其後에 農産物價格 回復期에 잇서서의 利益을 主로 차지한이는 누구이엿는가를 말하여두겟다。

昭和六、七年의 農産物恐慌期에는 收穫은 平年作以上이엿는 落하야 所謂 豐作凶年이란 矛盾된 現象이 나타낫섯다 이때에는 農村經濟는 最大의 破滅期에 잇엇스니까 其損害를 입지안흔이가업섯던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比較的으로말하면 農家는 大地主나 大農家이엿다 其理由는 朝鮮의 小作農가 現物로 支拂되는 小作料는 原則으로하고 大槪 半打作을 定하는 現物小作料니까(即 定率의 現物小作料니까) 小作農이나 小農家는 적어도 相當한 現物을 가지고잇섯다。다시 말하면 이것을 貨幣로 換算하면 價値가 적으나 적어도 食糧問題解決에는 有利하엿다。이反對로 地主나 大農家는 其農産物의 大部分을 商品으로 販賣하니까 貨幣收入上으로 보면大打擊이엿고 그들은 小作農이나 小農家보다 價格變動이 만흐니까 其損害는 더욱 컷다는것이다。

그러므로 昭和八、九、十年度에 農産物價格이 回復하엿는데 따라서 最大의 利益을 본이는 地主와 大農家요 그다음으로는 中間商人과 金融資本이라는것은 발서 여러번 說明한바와가다。

그러면 이번의 凶作의 損害 負擔者는 누구인가? 두말할것도업시 全農家가 모다 損害를 보앗지마는 其中에서도 가장 큰 損害를 입는사람은 小作農과 小農家다。

그理由는 이러하다。무엇보다도 現物收穫이 적으니까 그네들의 現物收入이 一年間食糧에도 不足할것이니 貨幣收入의 減少問題가아니라 生命의 問題가될 것이다 ——(계속)——

春姿十態 其七
香塘 白潤文氏筆

恭賀新年

公州

忠南公州邑 高級蓄音機 各社レコード 洋樂器一式 ラヂオ 電球 其他 月刊雜誌 青年商會 主 鄭鉉

公州和信連鎖店 日用百貨 諸印刷 共榮商會 電話五五番

陶器及硝子 洋燈金屬物 家庭用機具 諸般都散賣 三南商會 李朱南

公州郡木洞面制仁里 貨物自動車部 主 姜鳳周 姜友善

貨物自動車貸貸 公州─鳥致院 公州─大田 間定期運送業 東洋自動車運輸株式會社 代表者 李斗寧 電話一四七番

忠南公州鶴龍山甲寺 住持 朴正喜 法務 洪元植 財務 金正會 書記 洪慶植

公州邑常盤町 喪中欠禮 金聖駿

朝鮮料理 錦樂園 電話一三五番 金一枝紅月仙 朴桂錦月 洪一桂 崔花仙 李金黃道一 錦月素仁三 珠玉珠桃五

忠南公州郡寺谷面 禪敎兩宗大本山麻谷寺 宗務所職員一同 本末寺評職員一同

忠淸南道公州邑內 公立學校職員一同

淺興洋服店 載興洗濯部 主 處 皓

公濟醫院 醫師 梁載淳 電話五十一番

公州邑旭町 辯護士 尹用燮 電話三三一番

忠南公州旭町二〇五番地 辯護士 洪兢植法律事務所 電話一一一番

喪中欠禮 公州邑藏堂商月谷里 尹泳鉉 尹泳白

洪元農場 電話一〇九番地

公州郡廳

京城府花洞町一三八ノ一四 金敎駿

公州邑本町 時計眼鏡 公明堂 金湘誠

反浦面馬岩里 道德金山事務所 鑛主 金庸桂

綱布木綿 廣德商會 主 尹世鉉

反浦面公岩里 沈載昇

寺谷佳橋里 金正煥

職員一同

錦城貨物自動車部 金壯應

朝鮮忠淸南道公州邑 大田電氣株式會社 公州營業所

公州郡鷄龍面新元寺 住持 李大鎭

甲寺住持 朴正善

公州郡寺谷面虎溪里 朴在漣

吳精米所

公州邑長 高原圓治郞

南鮮興業株式會社 電話六六番

廣島堂大藥房 金洛鉉 電話一四二番

和洋酒類 食料雜貨 林商店

シン藥房 電話二二〇番

公州本町通 最新流行 高級洋服 富元洋服店

鷄龍面 沈履錫

李炳道商店 電話二百十一番

錦江精米所 金章煥

長岐面道溪里 李正榮

同生醫院 金縉圭

反浦面元峰里 柳聖浩

李鳳基

反浦面鳳谷里 鄭俊謨

忠南燕岐郡錦南面大平里 大平和信連鎖店

朴元默

徐惠淳

劉始鉉 電話一三三番

李成州

金龍顯

元順富

反浦面鶴峰里 李東根

孫成大

滿浦

滿浦鎭 各種診療 レントゲン科 太陽燈治療 入院御隨意 滿浦醫院 公醫 金基斗 電話二五番

滿浦鎭 同益商店 金基洙

滿浦鎭鐵道局診療室 醫師 張日亨

喪中欠禮 滿浦鎭 盧樞奎

滿浦鎭 趙尙奎 金建炳 黃龍伊

平北滿浦鎭 百貨商 榮興本店 電話二七番 振替二〇八三番

和洋百貨和信滿浦連鎖店 主 金奉五

日用雜貨 食料品 壽屋 主 朴雙龍

文玉面長 金英武

平北滿浦驛前 高級洋服 調進 第一洋服店 主 林聖鎬

滿浦鎭滿浦運送部 洪寶宗

朝鮮平北滿浦鎭 和洋雜貨 海陸物産 委託販賣 主 金洛

朝鮮平北滿浦鎭 洋服 雜貨 化粧品一式 又新百貨店

滿浦鎭 廣信商店

滿浦鎭 白鳳基

滿浦鎭 滿浦寫眞館

滿浦鎭 日昇堂藥房

平北滿浦鎭 鮮一印刷所

滿浦鎭 黃錦錫

信一商店

元興入齒院

藥種商 救世藥房

滿浦鎭稅關出張所長 是枝藤藏

滿浦鎭 禹範基

高山面事務所

高山鎭金融組合 理事 朴奎善

高山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高山鎭尋常小學校 校長 三宅源三

高山鎭消防組 組頭 宋尙珍

高山鎭 仁濟醫院長 金高根

高山鎭和信連鎖店 池宗海

平北高山鎭 同仁醫院 金鎭學

高山鎭 安忠洽

高山鎭 三木辛三郞

高山鎭 崔鼎鉉

高山鎭 柳振綱

高山鎭 慶興商店

高山鎭 李炳學

高山鎭 申乃守

高山鎭 金承璟

高山鎭 鴻福洋行

高山鎭 金澤周

高山鎭金宅精米所 主 金基宅

高山鎭高山精米所 劉漢

高山面南上洞 李黃洙

高山面南上洞 金炳竹

高山鎭 吳龍祚

高山鎭 金龍鶴

外貴面事務所外 職員一同

外貴面消防組 組頭 圈尙浩

"原料國策"前面에 朝鮮의資源登場

國際情勢去益險惡化를따라 列强諸國은資源確保에血眼

海의 東西를 莫論하고 各國家間의 軋轢은 漸次로 惡化하야 國際情勢는 바야흐로 暗雲이 低迷하고잇다. 何時何處에서 交火가 開始될는지 實로 難測한形勢이다. 이를 따라 列國은 軍備擴張에 餘念이업다. 軍備擴張은 軍需工業을 殷盛케하고 軍需工業의 擴大는 軍需工業의 原料需要를 增大하는 理의 當然한歸結이다. 平時에잇서서도 그資源獲得이 必要함은 말할것도업거니와 一旦戰端이 開始되는날이면 그必要는 一層 重要性을加할것은 贅言을 不要한다. 實際에잇서서 歐洲大戰當時 列國은 軍需資源封鎖로 資源難의 쓰라린 經驗을하얏다. 그럼으로 國際情勢가 險惡한 今日 列國이 軍需資源確保에 血眼이되어 잇슴도 無理가아니다. 日本亦是 그러하다. 原料의自給自足策은 그一表現이다. 原料의自給自足이日本에잇서서 얼마나重要한다는棉花, 羊毛, 鐵, 製鋼材料, 石炭, 石油等不足또는皆無에갓가운것의原料輸入이年年十億圓內外에達함으로써可히알것이다. 그런데 朝鮮의資源을보라! 地下에金, 鐵, 石炭, 黑鉛의四大鑛物을 비롯하야 各種의 輕金屬이實로 廣汎, 豐富하게 埋藏되어잇고 눈을地下로부터 地上으로돌리면棉, 羊毛, 亞麻等 各種纖維資源이 그開發을 기다리고 千古斧鉞의자최를 보지못한 大樹海가 鬱蒼하며 또다시 半島를三面으로 둘러싼바다로 눈을옴기면 世界第一을자랑하는 東海岸의 鰮을비롯하야 各種水産物이 또한豐富하다. 또工業의 原動力인電力도 豐富하야近來 朝鮮의資源開發은顯著하여잇스며 原料國策上朝鮮이重視되게되엇다 이미그資源開發은大財閥의손으로着手되엇거니와 過般의產業調查會의結果는드듸어그開發을具體化하야本格的으로이에拍車를加하게되엇다.

多彩한地下寶庫 各種寶物이우굴우굴

자! 그러면 朝鮮의 資源은果然 어떠한가主要한것 몃가지를 드려說明하야 그輪廓이나마 그려보려하거니와 爲先軍需資源으로 가장 重視되는 地下資源即 鑛產資源을 보기로하자.

朝鮮의 地下에는 各種寶物이 가득 차잇다. 貨幣로 使用되어 끈임업시 物議를 이르키며 各國이모다 그保有에 血眼이되어 잇는 黃金은말할것도 업거니와 各種工業의 父母인 鐵, 石炭은 無盡藏으로 파뭇처잇고 軍需工業의 尖端을것는 輕金屬또한朝鮮의 地下資源으로 斷然 異彩를 發하며 그밧게 非金屬鑛物도 重要한것이 한두가지가아니다. 그럼으로 地下資源이야말로 朝鮮資源의 代表的의것이라할것이다.

地上에오른

四大鑛物!은 말도마러라 거의無盡藏으로賦存

金

朝鮮은 金床우에 안잣다고 하리만큼 金鑛床은 地理的으로 地質的으로 넓리 分佈되어 平北地方을 가장 優秀

는것과가티 鐵과 石炭이 잇는 곳에는 반드시 工業의 勃興을 본다. 鋼鐵工業이야말로 現代產業에잇서서 모든 工業의 父이며 基礎產業이라 할것이다.

日本 製鐵工業은 歐洲大戰中부터 飛躍하야 그 銑鐵產額은 以降 百三十萬噸臺로 上昇하야 戰前에 五倍로되엇고 다시 昭和九年以降은 이 趨勢에 一層 拍車를 加하야 昨今에잇서서는 實로 二百十三萬噸臺에 達하엿는바 그 原料인 鐵鑛石은 果然 어떠한 狀態에 잇는가.

今日 日本內地의 鐵鑛需要量은 年年約四百五十五萬噸內外에 達하는데 그中 日本內地의 產出은 岩手縣의 釜石鑛山과 北海道의 俱知安鑛山의 二個所를主要產地로그他鑛山의 產額을 總計하야도 僅僅五十萬噸內外에不過한다. 그럼으로 其他는 朝鮮으로부터 約五十九萬噸內外, 中國及南洋으로부터 約三百五十萬噸의 輸入을 仰치안흐면안되는 狀態에잇다. 그뿐만아니라 日本內地의 埋藏量은 釜石 俱知安 及北海道 赤谷等의 著名한것을總計하야도 約七千萬噸에不過하다

그런데 朝鮮의 埋藏量은 이미確實히 調查된것만보아도 咸南利原 平南의价川 黃海의載寧, 殷栗, 銀龍, 下聖, 彌勒, [illegible] 州 [illegible] 二道溝의 鐵床에잇서서 [illegible]

道의 石炭埋藏量을 드려보면

▲有煙炭

咸北	三億七千三百萬
咸南	一百萬噸
黃海	五百萬噸
平南	二千萬噸
慶北	一千萬噸
合計	四億九百萬噸

▲無煙炭

平南 南部炭田	三億噸
北部炭田	四億九千百萬噸
江原	三億七千四百萬噸
慶北	二千七百萬噸
平北	二千萬噸
咸南	一億二千五百萬噸
全南	三百萬噸
合計	十三億四千萬噸
總計	十七億四千九百萬噸

인데 그品質은 有煙炭은 흔히 褐炭으로 多少 劣等하나 工場汽車用燃料로서는 充分히 使用할수잇는것이다. 朝鮮鐵道局에서는 機關車用으로 全生產高의宛半을 使用하고 잇슬뿐아니라 近來 日本內地有煙炭이 日本內地需要의激增으로 朝鮮進出餘力이 적은데다가 京圖線開通으로 消費地인 雄基, 羅津, 淸津方面의需要가 增加하고 또 一般工業의 勃興으로 그燃料로도 需要가增加하고잇는 關係上 相當히 活況을 呈하고잇다. 그밧게煤煙이 적은 特質이잇서 日本內地都市의 燃料로서 販路를 開拓할可能性이잇서 이미 이方面에의進出이 企圖되고잇다. 그리고 特記할것은 褐炭을 原料로하는 低

成因을 달리하야 前者는 無煙炭이 一層 炭化한것 또는 炭質頁岩이 火成岩의 變質作用을 바다서 變化한것으로 咸南永興郡, 忠北沃川郡, 慶北尙州郡, 江原江陵郡에서 產出하는것은 이 種類에 屬한다.

鱗狀黑鉛은 그產出狀況이 多樣하야 葉狀, 塊狀, 鱗片狀 또는 六角狀等 여러가지 形狀으로 產出되는데 그賦存狀況은火成岩中에 脈狀 或은 鑛囊狀으로 產出되는것 花崗岩 또는片麻岩의 一成分으로 產出되는것

[illegible] 三大國이다. 此等 黑鉛의 用途는 그特質에 依하야 스사로다르것이나 主要한 用途를 들면 [illegible] 鱗狀黑鉛으로 坩堝用 [illegible] 製造한다. 坩堝는 鎔鑛用, 合金用等으로 需要가만타. 朝鮮產黑鉛을 原料로 製造한 坩堝는 國內需要에 應할뿐만아니라 멀리 中國印度, 其他에 輸出되고 잇는데 그製造工業은 主로 東京, 大阪, 名古屋等 [illegible]等에 發達되어잇다 그리고이밧게 電氣用으로 그需要가 益益 喚起되고잇슬뿐아니라 電解板, 다이나모, 라디오用카ー본, 아ー크燈用炭素棒, 모ー터ー외브라쉬, 바킹等等 그用途는 廣汎하고 또 鑄物用, 뾰일페그라파이트, 重要運轉機械減磨劑等에使用되며 또 이밧게亞麻仁油와混和하야 鐵製品, 木製品의 表面에 塗布하는 塗料때인트로 維[illegible]으로 活躍하고잇는데 此等은 모다 軍需工業과 密接한 關係를갓고잇슴은 勿論이다.

近時 各種化學工業의 非常한 發展을 따라 黑鉛이 重視될뿐만아니라 國際情勢의 險惡化는 軍需鑛物로서 그重要性을 加하야 無盡藏으로 埋藏되어잇는朝鮮黑鉛資源은 一層注目을 끄을게되엇다.

軍需鑛의尖銳 輕金屬燦然

鑛產資源의一大異彩

最近 朝鮮의 鑛產資源으로새로 登場하야 一異彩를 뭇하고 잇는것에 輕金屬이잇다.

輕金屬을 近來 列國에서 極히 重要視하고잇는까닭은 이를 主體로하는 合金이 非常히 輕하고 또 鐵과가티 强한 性質을갓고잇기때문으로 航空機, 自動車 其他軍需工業上에 必要不可缺한것으로 各國이모다 다토아原鑛資源의 發見獲得에 腐心하고 北鮮輕金屬工場의 增設을 計畫하야 그製法과 製品의改良에 不斷한 努力을하고잇다.

그런데 輕金屬材料로서 現在 널리 使用되고잇는것은 알미늄인바 近來는 다시 超輕金屬으로 마네슘이 注目을 끄을게되엇다. 그러고 이밧게 輕金屬으로 리슘 (比重〇・五)과 베리륨 (比重一・八로 마네슘과同重量)이 잇스나 世界各國을通하야 그資源은 極히 적음으로 아직 輕金屬工業材料로 取扱되기까지에는 이르지못하얏다.

그런데 이리슘은 花崗岩과 如한 酸性의岩石 特히 花崗岩岩漿에서 分化한 結果로되는 페그마타이트岩脈에 흔히 隨伴되어 리시아雲母와 其他 鑛物의 一成分으로 產出되는것으로 此等의 岩石이 만흔 朝鮮에잇서서는 가장 만히 發見될 可能性이잇다. 또 베리륨은 主로 綠柱石이라 稱하는 鑛物中에 含有되어 이미 朝鮮에서는 僅少하나마 忠北忠州郡과 堤川郡, 忠南靑陽郡, 江原高城郡과 淮陽郡 咸北吉州郡等에서 產出될이 判明되엇다.

日本內地에 잇서서는 이러한 輕金屬資源으로 有望한것이 하나도 發見되지못하야 그需要의 全部를 輸入에 仰하고잇는 狀態인데 朝鮮에는 놀날만한 輕金屬의 大資源이 賦存되어잇다 即 알미늄原料로서는 全南海岸의 明礬石과 平壤無煙炭田地方의 礬土頁岩이잇고 마네슘原料로서는 咸南端川郡의 마그네사이트大鑛床이잇다.

爲先 明礬石에對하야 說明하야보면 今日 著名한 產地로서 알리워진곳으로 全南海南郡門內面의 玉埋山鑛床, 葉山鑛床, 狗島鑛床, 同道珍島郡鳥島皮岩鑛床, 同道莞島郡長山面加沙島鑛床과同 [illegible]

▲텅구스텐‖慶北에서 發見한것이 最初로 現在까지에 判明된 賦存地는 京畿, 忠北, 忠南, 全北, 慶北, 黃海, 江原, 平北, 咸北, 咸南等 各地에 亘하는데 其中 江原金剛山地方, 忠北忠州, 堤川, 靑陽, 忠州, 黃海谷山郡이가장 有名하다. 모다 花崗岩에起因 周邊가히잇서 金鑛床에關係가잇슴을 示하는데 그品位도 一般으로 良好하다

▲水鉛‖日本內地에서는 그產出이업는데 朝鮮에는 豐富히賦存되어잇서 京畿, 忠北, 忠南, 全北, 慶北, 慶南, 江原, 咸北等 널리퍼지어잇는바 其中 全北長水郡 江原金剛山地方이 著名한 產地이다.

▲滿俺‖特種鋼, 滿俺銑鐵, 其他各種의 合金에 使用되는것인데 慶南, 慶北, 忠北, 江原의各道에서 硬滿俺鑛, 菱滿俺鑛의形態로 產出되나

▲水銀‖水銀의 原鑛인 辰砂는 平南成川郡, 中和郡, 黃海遂安郡等에서 產出되나 아직 產額은 적다. 그러나 年年 二百萬圓가량을 輸入하고잇는 現狀이고보니 將來그開發을 보게될것은 말할것도업다.

▲鉛及亞鉛‖日本內地의 產額은 寡少하야 年年二千萬圓內外의 輸入을보고잇는데 朝鮮에는 多量으로 埋藏되어잇다.

▲鉛은‖金鑛脈에 隨伴되어잇는것이만코 含有量四〇%에 達하는것도 相當히잇스나 運搬關係等으로 現在 利用되는것은적다 그뿐만아니라 金鑛業者들은 鉛이 多量으로 含有되어잇는것을 꺼리는 狀態이다. 또 銀鉛으로서 作業할수잇는 優良鑛床이 江原, 平北等地에잇스나 아직 開發치안코 放置하고잇다. 萬若金鑛에 隨伴하는 鉛의 利用에對하야 適當한 處置를 講究하면 未開發鑛床의 開發을 促進하는同時에 多量의 產額을 어들수잇슬것이다.

▲亞鉛은 江原三陟, 旌善兩郡 黃海鳳山, 載寧, 瑞興, 遂安四郡 平南成川郡 咸南端川郡等에 優秀한 鑛業이잇서 膨大한 埋藏量이잇스나 모다 鑛石대로 日本內地에 輸送하지안흐면 製鍊할수업는 狀態에잇슬뿐아니라 亞鉛工業은 三井의 獨占事業임으로 朝鮮의 該事業發展을 阻害하는 傾向이잇다.

▲安質母尼‖平南陽德郡仁平鑛山이 알리워저잇다.

各種非金屬鑛物 또한輕視못할것

重要非金屬鑛物은 日本內地에서는 그리 產出되지안는데 朝鮮에서 여러가지가 產出되고잇다 그中 主要한것에가지를 드러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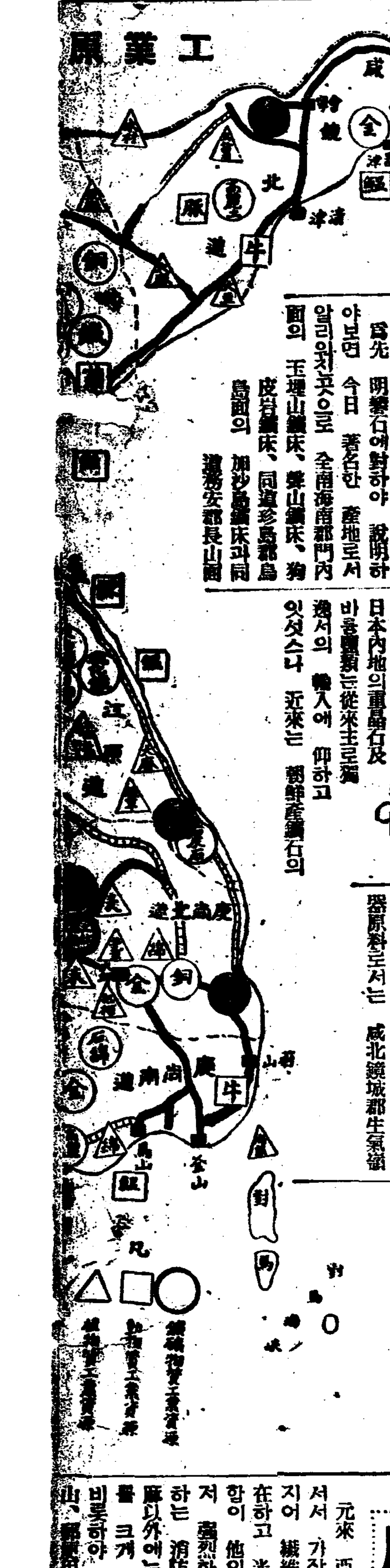
▲重晶石‖江原金化郡島道里附近에 鑛量豐富한 鑛床이잇는데 品質이 良好하야 硫酸바륨含有量九七%以上의 鑛石을 自由로 市場에 供給할수잇는狀態에잇는바 埋藏量은 九〇%以上의것約百萬噸으로 推定되고잇다. 또最近 黃海松禾地方에서 優良한鑛床이 發見되어 多量의埋藏量이잇슴이判明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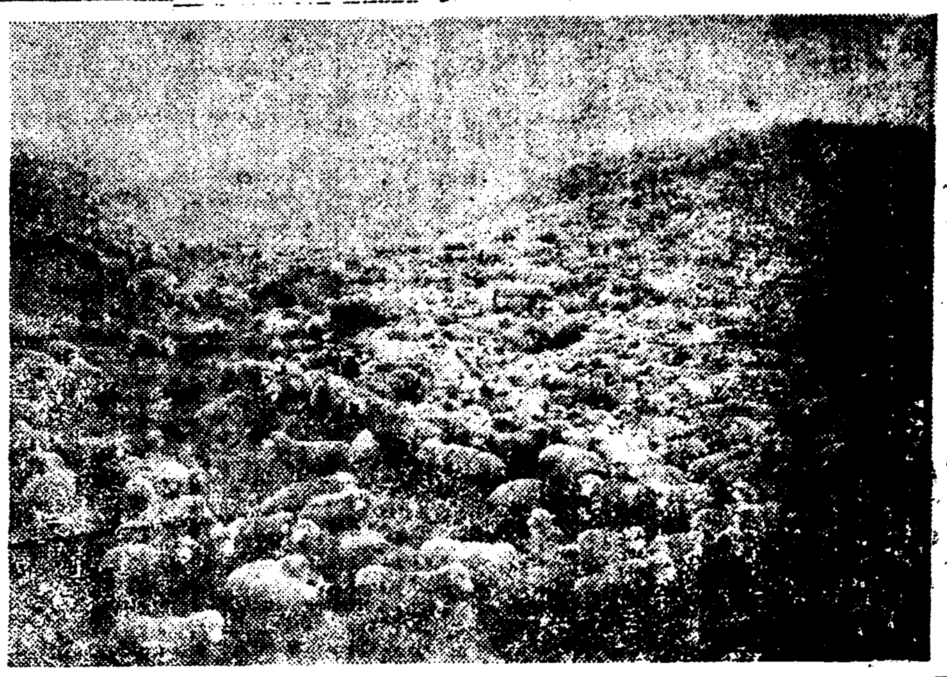
日本內地의重晶石及바륨鹽類는從來主로獨逸서의 輸入에 仰하고잇섯스나 近來는 朝鮮產鑛石의

▲石綿‖主產地는 忠南洪城郡廣川面, 江原金化郡金化面, 慶南陜川郡治爐面等인데 從來 日本內地市場에서는 加奈陀, 亞弗利加產을 輸入하고 日本內地에는 全然 產出이업다. 그런데 近年 外國爲替關係로 朝鮮產이 注目되고잇다.

▲雲母‖主產地는 咸南端川郡 平北博川郡等인데 前者는 金雲母를 產出하고 後者는 白雲母를 產出한다. 모다 鑛量은 豐富하나 外國品에 壓倒되여 採掘이 不振狀態에잇다.

▲高嶺土‖高嶺土는 거의 各道에서 產出되고잇다 其中 陶磁器原料로서는 咸北鏡城郡生氣嶺





北朝鮮의緬羊放牧

[illegible] 適當하고 이境遇에잇서 各農家에서生產하는 農作物의 藁稈과 殘滓로서 넉넉히 飼料를 補給할수잇슬뿐만아니라 高地帶에서 豐富히 生產되는 燕麥과 不適한 將來에 栽培될 飼料의 廢殘物은 濃厚飼料로서 가장 好適함으로 飼料供給에 何等不足이업고 또 飼育頭數의 增加를圖함에 必要한 大規模飼育의 併行에잇서서도 北朝鮮高地帶는 密林地帶를 除外하고는 放牧에適當한 廣莫한 高原이 만키때문이라한다.

그러면 이高地帶에 얼마나 收容할수잇슴가하면 咸北茂山郡으로 부터 白頭山에 亘한 地域만으로도 八十萬頭以上의 收容力이잇슴이 判明되엇고 또 副業으로 北朝鮮一帶의 農家에 넉넉히 三百萬頭갓가히는 普及할수 잇다고 推想되고잇다.

이리하야 總督府에서는 코리데일種綿羊을 奬勵品種으로 定하고 昭和九年以降 同十八年까지의 十個年間에 飼育頭數를十萬頭로 增殖할 計劃을 實施하고잇는데 現在의 頭數는 近二萬頭에 達한다. 그런데 코리데일種의 蕃殖率은 一二〇%內外의 高率을 示하고잇슴으로 順

南朝鮮의棉花栽培

及과가티 그러케 好適하다고는 할수업다. 海島棉과 [illegible] 栽培에 不適하다. 이는 勿論 氣候가 溫暖한 期間이 짧기때문이다. 그러나 南朝鮮의 風土는 米國陸地棉中 早生種에 屬하는것의 栽培에는 好適하야 多年 優秀한 成績을 내이엇다.

이리하야 朝鮮에서는 外國棉으로는 主로 陸地棉「킹스·인부루브드」을栽培하고잇는데 이밧게 在來棉을보아도 東洋棉花中 纖維, 毛長等 良質의것으로 米棉代用으로 紡績의 價値가 相當하다. 그럼으로 朝鮮에 잇서서는 現在에잇서서도 이미百萬戶의 棉花栽培者가잇서 그作付面積은 二十萬町步에 達하야 一億六千萬斤 實棉을 產出하고잇다.

이제 總督府의 棉花獎勵計畫을보면 第一期計畫으로 大正元年부터 同年十月까지 七個年을期하야 南朝鮮六道에 陸地棉十萬町步의 擴張計畫을 樹立하고 繼續하야 第二期計畫으로 大正八年부터 昭和二年까지 十個年을 期하야 南朝鮮六道에는 主로 陸地棉을 京畿道와 西朝鮮三道에는 在來棉을 獎勵하야 作付反別二十五萬町步 實棉生産高二億五千萬斤에 達케하려고 企圖하고 다시 昭和四年 그計畫의 一部를 變更하야 第二期計畫의 充實을 圖하얏다. 그러나 財界 不況으로 農村의 窮乏은 益益 甚化하야 이를 救濟하려는 意味도 잇섯겟지만 그보다도 對外貿易과國際情勢에 비최어 棉花의 自給을 企圖하게되엇스니 即「南棉北羊」이라는 旗幟下에 昭和七年새로히 棉花增殖計畫을 樹立하고 棉花를 積極的으로 獎勵하게되엇다. 同計畫은 昭和八年以降 二十個年을 期하야 作付段別六, 七十萬町步, 實棉生產高十億斤에 達케하려는것인데 그實施는 二期에 分하야 爲先第一期計畫으로 昭和八年以降十個年을 期하야 南朝鮮六道와 京畿, 黃海, 平南의 九道를 獎勵區域으로하고 그後 다시 繼續하야 第二期計畫으로 咸北을除外한 十二道로 獎勵區域을 擴張하려는것이다.

이로 우리는 朝鮮의 棉花가 또한 얼마나 原料國策上 重視되고잇는가를 알수잇다.

亞麻

北朝鮮高地帶의風土는 亞麻와 大麻의 栽培에도適當하야 그將來가 有望되고잇다.

元來 亞麻는 植物纖維中에잇서서 가장 優秀한 特質을 가지어 纖維가 纖細하야 剛軟自在하고 光澤이 鮮麗하며 引韌함이 他의 追從을 不許한다. 저 强烈한 水壓力에 견듸울要하는 消防用布호ー스材料는 亞麻以外에는 適當한것이업고 이를 크게 말하면 陸海軍需品을 비롯하야 鐵道, 船舶, 土木, 鑛山, 郵便用品 [illegible] 衣

長連 長連面職員一同

長連邑 林箕祚

長連邑 百濟醫院

長連金農場 支配人 吳基植

長連釀酒場 林宗鎬 李正玄

大杏面職員一同

長連 德成學校

長連 震明學院

長連邑 連商會 李德源 金成初

長連邑 平安醫院

長連果樹組合

長連邑 朴常雋

長連邑 東洋釀造場

長連 裴成燮

長連穀物組合

長連邑 三信商會

長連邑 札永緖

長連東里 金秉淳

長連邑 張昌源

長連邑 申相澈

長連邑 朴元夏

長連邑 朴贊爀

長連邑 司法書士 金鼎三

長連 裵命植

長連邑 洪淳澤

長連邑 任昌云

長連邑 許均

長連邑 李慶國

長連邑 普成精米所

長連東里 根模

長連邑 朴雄緖

長連邑 谷川武平治

長連邑 韓成商會

長連邑 申泰禧

長連邑 申文淑

長連 白洛起

長連 朴昌雋

長連 李宗[illegible]

報恩郡廳

忠北報恩郡報恩面 報恩煙草耕作組合長 元南金融組合長 崔翀根

忠南報恩邑 博濟醫院長 忠北道會議員 朴麟緖

報恩郡俗離面高升里 任昇宰

報恩邑內 韓相翊

報恩郡官基市場 官基消防組頭 具然濟

報恩邑 報恩商店主 李昌濟

報恩警察署

報恩邑 三山酒造場 主 辛建鼎

報恩邑 朝鮮日報社恩報支局 局員一同

報恩郡山外面事務所 面長 李準相 外職員一同

恩報郡 川上旅館

忠北報恩邑 雜貨商 上田商店

忠北報恩邑 日新醫院 院長 金陽中

報恩郡內高升里 宋成憲

報恩邑 煙草專賣局報恩販賣所長 小倉瀧次郎

報恩郡 俗離面長 申軾均

忠北報恩邑 李熙生

忠北報恩邑 布木商 東泰恒

屯內酒造場 橫城郡屯內市 李奎運

橫城郡屯內市 元永相

屯內郵便所長 李應律

屯內金融組合 金實榮

屯內新藥房 李秋苾

橫城郡屯內市 金福來

橫城郡屯內市 林戶奎

江原商店 全五福

橫城郡屯內市 司法書士 金慶鳳

屯內面長 安達善

舍人

平元線舍人場驛前 大成燒酒釀造場

順川郡學校評議員 舍人酒造組合評議員 舍人面協議會員 舍人金融組合評議員 慈山水利組合評議員 盧禎植

平南舍人 金融組合長 金俊燮

◎舍人場代行營業所

舍人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舍人面長 李寬奎

德山醫院 公醫 蔡尙斌

兄弟屋洋服店 主 金麗煥

舍人金融組合理事 三浦正記

平元線舍人場驛前 穀物貿易委託賣買 金山商店 主 金楨夏

舍人場驛長 村山勇次郎

平元線舍人場驛前 福星自轉車商店 福星寫眞館 主 李允植

龍岳面上次里 蔡東律

朝鮮料理 中華料理 第一館 主 盧基淳 藝妓 宋錦花 宋明花

平安南道地方森林主事 朴正焞

◎朝鮮運送株式會社鳳鶴代行營業所 主 吳季元

金浦

金浦運輸株式會社

明珍錫

霞城面事務所職員一同

金浦警察署

月串面事務所 職員一同

金陵會

霞城石灘里 權爾玉

金浦郡內各學校一同

金浦金融組合 理事 高松道太郎

金浦邑內 京西トラック運送株式會社

金浦邑內 平和醫院

金浦邑內 和信運輸店 金重[illegible]

鮮資源解剖

한 金鑛地帶로 全朝鮮各地에石金及砂金이 賦存되어 朝鮮鑛業의 大宗이되어잇다。近年金輸出再禁止로 金價가 暴騰한데다가 一億圓目標의 積極的產金奬勵로 朝鮮은 宛然 골드럿쉬를 이루우고잇서 出願件數는 年年 激增하야 鑛區數三千餘를 算하며 그產金額 五千萬圓을 突破하는데 年產五萬圓以上의 大金鑛만하야도 百五十個所에 達하는盛勢이다。

그런데 朝鮮의 金鑛床은 含金石英脈、含金接觸鑛床及砂金鑛床으로 大別되고잇는바 그主要한것은 含金石英脈이다。이含金石英脈에는 恒常 銀이 隨伴하는데 主로 前寒武利亞大統으로부터 中世大統에이르는 水成岩과 火成岩中에 胚胎하야 到處에 賦存되어잇는바 特히 花崗片麻岩及花崗岩中에잇는것이主要한것이다。

鑛脈의 大部分을 構成하는것은 石英으로 이에 伴하는 硫化物中 主要한것은 黃鐵鑛、方鉛鑛、閃亞鉛鑛及硫砒鐵鑛이며金은 主로 黃鐵鑛 又는 硫砒鐵鑛中에 含有되고 銀은 主로方鉛鑛中에잇다。또 粗粒自然金은石英中에잇는일도 적지안타 한다。

現在 作業하고잇는 金鑛의 殆半은 含金石英脈이고 接觸鑛床으로서 有名한것은 黃海道遂安郡의 楠亭鑛床과 笏洞鑛床이잇슴으로 모다 朝鮮系大石灰岩統과 花崗岩과의 接觸部에 胚胎하는 不規則한 鑛塊이다。그러고 砂金層은 第四系古層及現世層의 砂礫層을 形成하고 在在하야 含金石英脈의分布와 가티 到處에잇다。砂金床中 有名한것을 드러보면 京畿의安城、忠南의成歡、全北의金堤、平南의順安과 肅川砂金鑛等이잇는데 모다 淺溪鑛을 利用하야 大規模로 採金하고잇고 이밧게 京畿、忠北、黃海、咸南道方面에도 淺溪鑛을 利用할수잇는 砂金地帶가잇다。如斯히 砂金地帶가 만흔것은 말할것도업시 그本源이되는 金鑛脈이 만흔것을 말하는것으로 朝鮮은 金床으로되어잇다할것이다。

그러나 石金、砂金을 莫論하고 資金이 貧弱하며 技術이 幼稚하야 探鑛、採鑛이 不充分하야 이러한 寶庫가 地下에 死藏되어잇는 形便이다。그러나 最近의 金鑛業의 進展은 놀만한바가잇서 이대로 今後 推移하면 產金一億圓도 未久에 實現되리라고 생각된다。

定되고 莫大 有望한 鐵鑛으로 咸北의茂山地方에 鐵鑛床이잇다。이茂山鑛床의 鐵鑛은 平均品位四十%로 五十%以下의 優良鑛과 比하면 貧鑛이라할것이나 그埋藏量은 實로 四億噸으로 推定되고잇다。

朝鮮에잇서서 現在 作業中의것은 褐鐵鑛과 赤鐵鑛으로 그採鑛은 含有鐵成分五十%以上의것에 集中되어잇서 茂山의 大鐵鑛은 아직 地下에 死藏되어잇는狀態이나 이茂山鐵鑛도 鞍山鐵鑛과 比較하야보면 모든點에잇서서 優良하야 粉碎選鑛하면 넉넉히 六十%程度의것을 어들수잇다。即 鞍山鐵鑛은 品位三十五%의 貧鑛일뿐만아니라 磁鐵鑛과 赤鐵鑛(赤鐵鑛은 磁力選鑛할수업다)의 混合物이고 小粒이다。그럼으로 그選鑛에 際하야서는 細粒으로 粉碎(만흔電力을 要한다)할 必要와 燒焼할 必要가잇다。그런데 茂山鐵鑛은 品位에잇서 優秀하고 磁鐵鑛뿐이며 特히 大粒임으로鞍山產과가티 細粒으로 粉碎할必要가업고 燒焼할 必要도업다。그리고 水力發電하야 低廉한 動力을 어들 可能性이잇고 交通도便하야 茂山鐵鑛은 鞍山鐵鑛보다 經濟的으로 훨씬 有利하다。

이것으로보아 原料國策上 鐵鑛供給地로 朝鮮이 如何히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는가를알수잇다。

石炭

鐵鋼工業이 現代產業界에잇서서 모든 工業의 父라고하면 石炭鑛業은 그母라할수잇다。이父와母를 兼備로 모든 近代產業은 發達한다。

그럼으로 石炭資源은 極히 重視되고잇는데 日本內地炭의 將來는 漸次 問題視되어 朝鮮炭의 前途에 囑望할수잇게되엇다。

그러면 朝鮮의 石炭埋藏量은 어떠한 狀態에잇는가。그埋藏量은 調查着手前까지는 겨우 八千萬噸이라하든것이 調查한結果 判明된 部分만으로도 十七億五千萬噸이라는 實로 龐大한 量에 達한다。그뿐만아니라 朝鮮의石炭鑛業은 그開發時期가 느저서아직 그發展性은 今後에잇다할것이다。大槪 有煙炭은從來 撫順炭、中國炭及日本內地炭에 壓迫되고 또 無煙炭은 佛領印度의 鴻基炭及日本內地炭에 壓迫되엇과 한편으로는 朝鮮自體에 아직 工業이 이러나지못하야 그 資源開發이 늘만한바가업섯다。

炭鑛의露天採掘

溫乾餾事業의 勃興인데 이미昭和五年以來 朝窒이 永安에서 咸北褐炭을 利用하야 이에着手하얏거니와 最近 燃料國策의 一案으로 石炭液化를 計畫하고 江原道三陟과 北朝鮮一處에 工場을 設置하리라하니 이石炭液化事業은 將來 品質이 低劣하다는朝鮮褐炭의 利用價值를 노필것이다。

그런데 無煙炭에잇서서는 저 有名한 鴻基炭에 對抗할수잇슴은 勿論 日本內地에서는 그比類를 보지못하는 優秀品으로 그 利用範圍가 實로 廣汎하다。

黑鉛

金、銀、石炭과함께朝鮮의 四大鑛物로 되어잇는黑鉛도 또한 자랑할만한것이다 말할것도업시 黑鉛은 軍需鑛物로서 必要不可缺한것인同時에 各種化學工業에 利用되는 點에잇서서도 또한 重要한 特殊鑛物이다。그리고 우리 日常生活에도 極히 密接한關係를 갓고잇는것으로 第一에우리가 常用하는 鉛筆의原料는黑鉛인데 日本에서 使用하는것은 모다 朝鮮產이다。

今日 世界의 鉛筆市場을 風靡하는것은 獨逸產인바 世界大戰때 그輸入이 杜絕되여 日本의 鉛筆製造가 飛躍的進展을보여 今日에 잇서서는 相當한 輸出을 보고잇다。그原料인 朝鮮產黑鉛은 獨逸과 墺太利의 有名한 黑鉛에 比하야 그細分度에잇서 또는 그不純物이 적은點에잇서 決코 나올지언정 못하지안혼 品質을 具備하고 잇다。

元來 朝鮮에서는 여러가지 黑鉛이 產出되어 一般으로 區別되는 土狀、鱗狀의 兩種이 잇서서도 土狀黑鉛에 軟質과 硬質이잇고 또 鱗狀黑鉛에 土鉛과 石鉛이 잇는바 모다 商品으로서 各各 그特質을 갓고잇는데 그分布狀態가 자못 廣大하고 그品質이 優良하며 그埋藏量이 豐富하야 二產額이 만흔點에잇서 이미 世界의 第一二位를 다투는 程度에 達하얏다。

土狀、鱗狀兩黑鉛은 各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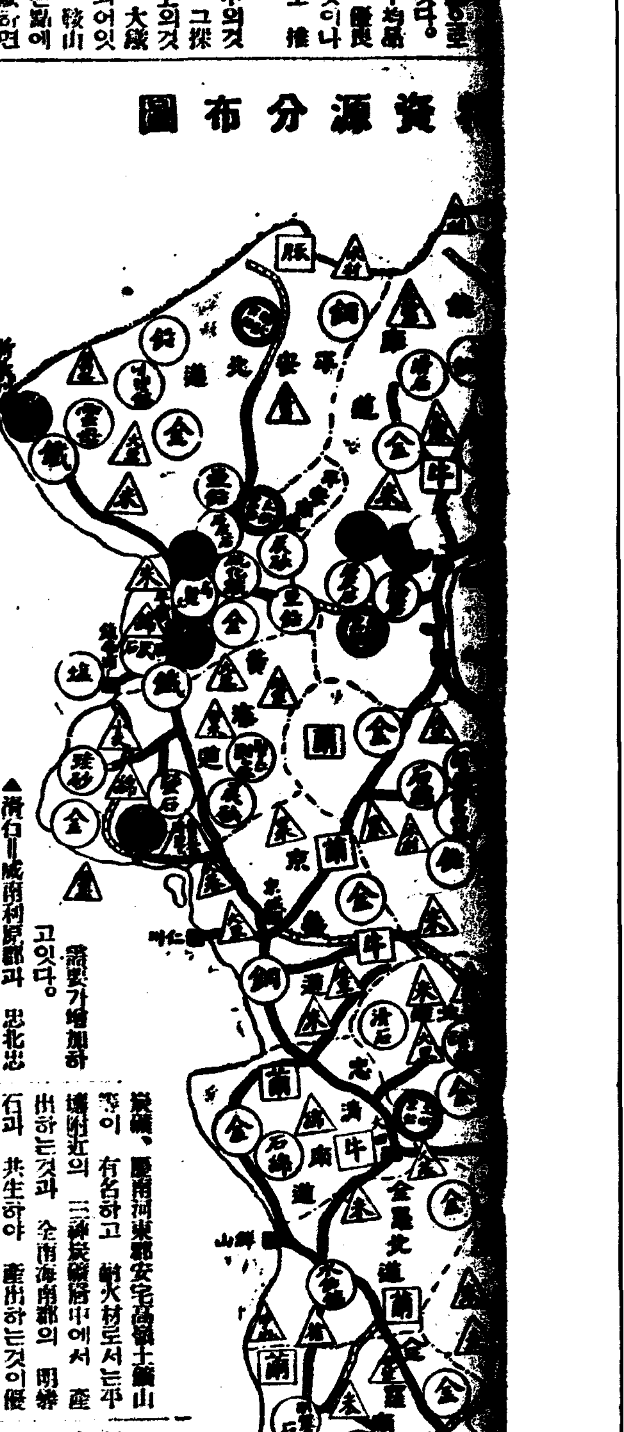
鐵

獨逸의 大政治家「베스마ー크」는 일즉이「吾人의 經濟的生活은 鐵及 石炭을 二個의 中心으로 迴轉한다」라고 말하얏다。實로 名言이라할것이다。鐵은 軍需物로서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슬뿐아니라 人間經濟生活의 必需品이다。現代文明은「鐵」과 石炭의 文明이라하

그런데 時代의 變遷은朝鮮鐵에 着眼하게하얏다。日本內地鐵의將來性과 最近朝鮮工業의 勃然한 勃興等은 朝鮮鐵資源의 開發을 促成하고잇다。

다음에 現在까지에 判明되어

資源分布圖



의 長山島鑛床等이잇는데 그中에서도 埋藏量이 豐富한것은玉埋山鑛床이오 狗皮岩과 加沙島鑛床이 그다음이다。

此等鑛床의同時分析의 알미나含有量은 大體二〇乃至三五%이나 그埋藏量은 略二千萬噸이라하는데 그以下의것을加하면玉埋山만으로도約二千五百萬噸이라한다。

다음에 礬土頁岩은 比較的多量의 알미나를 含有하는 頁岩으로 그主產地로 알리워진곳은 平南南部無煙炭田 即 平壤炭田의 北部地域이다。이平壤地方의 礬土頁岩의 알미나含有量은 四〇乃至四五%의것이만흔데 最近은 六〇乃至七〇%에 達하는高品位의것도 發見되엿는바 此等의 總埋藏量은 約四千萬噸으로 推定되고잇다。

또마네사이트는 昭和七年 總督府地質調查所에依하야 世界的大鑛床이 發見되엇다。即 咸南端川郡內에서 發見된 막네사이트의 大鑛床은 明瞭히 露頭로나타난 部分만으로도 넉넉히六億五千七百萬噸에 達하야 地下의 埋藏量은 아마 二十億噸의 巨額에 達하리라고 推定되고그品質도 자못優秀하다。그뿐만아니라 最近의 調查에依하면 惠山鎭線合水驛附近에잇서서도 同鑛床의 延長이라고볼鑛量이 相當한 막네사이트鑛床이發見되어 아마 數千萬噸에 達하리라고한다。

이리하야 알미늄은 이明礬石을 原料로 日本電工、住友、共他가 生產에 着手하얏다。그리고 金屬마그네슘에잇서서도 前記大鑛床의 막네사이트를 原料로 日窒에서 아메리카 막네슘·코포레이숀과 提携하야 北朝鮮大工業地帶인 咸南興南에 日本마그네슘會社를 創立하얏다。

이밧게 軍需鑛物로서 니켈、망간、텅스텐、水鉛、蒼鉛、水銀、安質母尼、鉛、亞鉛等 直接 兵器其他의 軍用으로 重用한 鑛物이 잇슬뿐만 아니라 間接으로 軍需工業上 必要한 鑛物資源도 잇서 實로 多岐多樣하다。

우에 列記한 鑛物資源의 賦存狀態를 보면

▲니켈=日本內地에 잇서서는 거이 그產出이 업는바 朝鮮에 잇서서도 그 存在를 發見한것은 最近의일인데 江原金化郡金城面과 咸南端川郡北斗日面의 二

優良한것으로는 咸南洪原郡中浦面에서 發見된 鑛床으로 中國產을 凌駕한다。

이제 螢石으로서의 品位七五—九五%의것의 埋藏量을보면

黃海道載寧郡	六十二萬四千噸
同 鳳山郡	一萬三千八百噸
同 平山郡	六萬噸
咸南 洪原郡	一萬五千噸
計	七十二萬二千八百噸

從來 日本內地에서는 主로 南中國 特히 上海로부터 供給을 밧고잇섯는데 滿洲事變을 契機로 朝鮮產의 需要가 增加하야 이를따라 朝鮮內에서 螢石의 發見이또한 漸增하는 傾向에잇다

需要가增加하고잇다。

▲滑石=咸南利原郡과 忠北忠州郡에서 良質의 滑石을 產出한다。日本內地에서는 從來 滿洲大石橋產을 輸入하야 化粧品石鹼、織物等의 原料로 使用하고잇는바 滿洲事變以來 朝鮮產의 需要가 漸次 增加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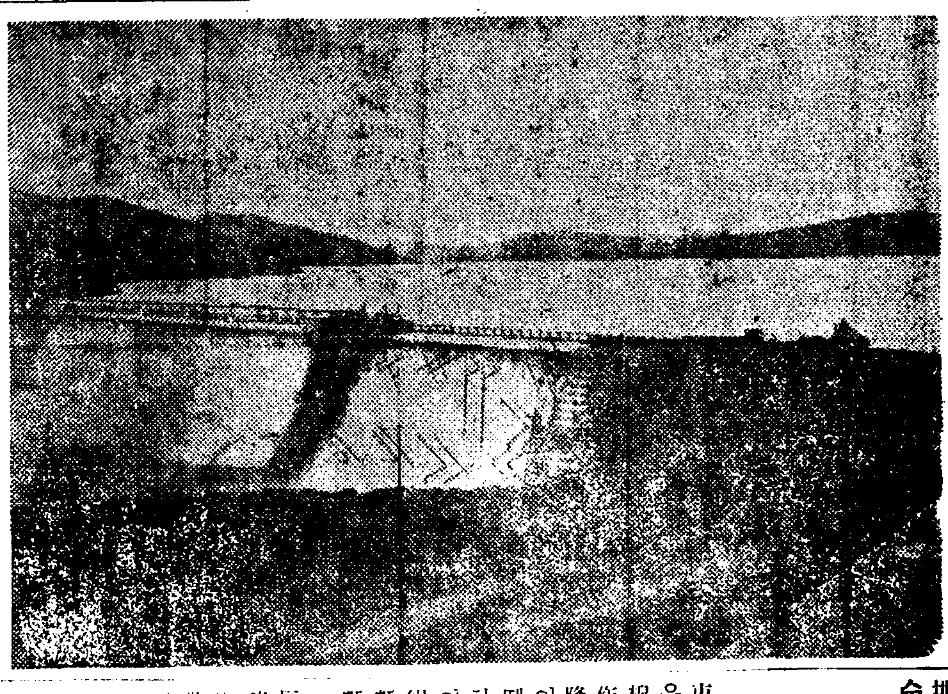
▲重石=現在 發見된 主要한것은 黃海載寧郡과 鳳山郡에 亘한 鑛床으로 賦存의 區域이 넓고 埋藏量이 豐富하며 品質이

黑鑛、慶南河東郡安宅高嶺土鑛山等이 有名하고 耐火材로서는平壤附近의 三神炭礦層中에서 產出하는것과 全南海南郡의 明礬石과 共生하야 產出하는것이優良한데 모다 移出되고잇는바特히 近年 岡山地方에 移出하야 從來 同地方에 輸入되고잇는滿洲復州粘土를 驅逐하고잇슴은特筆할만하다。

▲硅砂=黃海、全南等의 海岸에서 거이 無盡藏으로 產出되고잇는데、日本內地의 硝子工場等에 移出하고잇다。

▲세멘트用石灰岩=無煙炭層(古生代에屬하는것)의 下部約六百米에 位置하는 與同紀石灰岩은 如何한 地點일지라도 優良한 세멘트用石灰岩이다。그럼으로 大部分의 無煙炭田地方에는 無盡藏의 石灰岩이 埋藏되어잇슴이 判明되엇다。小野田세멘트會社의 平南勝湖里、咸南川內里工場은 모다 이層의 石灰岩을 使用하고잇는데 過般問題되엇든세멘트戰으로세멘트聯合會側에서도朝鮮에進出하게되엇다。

以上에서 본外에도 硫化鐵鑛、銀、含油頁岩等等 幾多의 貴重한 鑛產資源이잇다。



長津江水電의大堤堰

三大纖維資源開發
"南棉北羊"과 "亞麻"栽培

그러면 눈을 地下로부터 地上으로 드러보사

먼저 農產資源中 우리의 注目을 끄으는것은 棉花、羊毛、麻의 三大纖維資源이다。이섬維資源은 平時에잇서서 人類生活의 必需品이될뿐만아니라 戰時에잇서서는 軍需品으로 또한 必要不可缺한것이다。

朝鮮의 棉花、羊毛、麻는 그將來如何에依하야서는 前途가자못 有望하다할것인데 先年來適大한 計畫下에 어미 그實行에 着手하고잇다。即 前宇垣總督의 所謂「南棉北羊政策」과 北鮮開拓事業中의 一重要部門인亞麻의 大栽培計畫이 그것이다。

緬羊

爲先 緬羊에對하야보면 今日의 文化生活은 緬羊生物을 利用하지안코는 견딜수업스리만치 緬羊은 우리 人間生活과 떠날수업는 密接한 關係를 맷고잇다。羊毛가 軍服을 비롯하야 一般被服의 材料로 널리 使用되고잇슴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제 日本內地의 羊毛需給狀況을보면 그一個年消費量은 實로 二億四千封度에 達하는데 그國內生產量은 겨우 二十萬封度에不過하야 全消費量의 九九、九%는 輸入에 仰하고잇는 狀態로 그代金으로 一億數千萬圓의 巨金이 年年 海外로 流出되고잇다。그럼으로 緬羊國策樹立이 日本에잇서서 自給自足의 觀點으로보나 또는 國際貸借改善의 觀點으로보나 急務임은 말할것도업슬것이다。勿論 其間日本內地에잇서서 緬羊國策의 實施가 업섯든것이아니오 農林省의 保護獎勵를 보앗스나 財政其他의關係로 거이 失敗에 도라가고 마럿다。大正七年以來 約十五六個年間 政府가 支出한 保護獎勵金은 實로 一千萬圓의 巨額에 達하지만 그結果는 昭和八年初頭에잇서 二萬七千頭內外의 飼育數를갓고잇슴에 不過한 慘狀이다。

그런데 朝鮮은 어떠하얏는가하면 大正七年以降同十三年의行財政整理에 이르기까지 僅僅三十萬圓의 獎勵金을 支出하얏슴에 不過하나 昭和八年現在의 緬羊數는 二千六百七十五頭로 그數가 만타고는할수업스나 日本內地의 成績에 比하면 良好하얏다할것이다。이는 朝鮮이 緬羊飼育上 好條件을 具備하야 將來그發展性이잇슴을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朝鮮의緬羊飼育獎勵政策을보면「北羊政策」이라고하느니만치 北鮮地方의 廣大한 高原을 主要獎勵地域으로하고잇다 그理由는 緬羊飼育을 獎勵함에 當하야 高地帶의 實情에 비최어 農家各戶에 平均五頭를 副

調로 進行하면 年年 繁殖하는 羊數를 淘汰性率으로지고 또이에 年年斃死하는 數를 加하지라도 昭和十八年의 十萬頭를單位하면 同二十五年에는 百四五十萬頭로되고 또 同三十年에는 實로 一千萬頭로 增殖될것이다

北朝鮮地方이 緬羊飼育의 適地임은 누구나 認定하는바이려니와 그밧게도 黃平兩道를 비롯하야 南朝鮮까지도 緬羊飼育普及의 可能性이 充分하다는것이 判明되여 此等地方에도 그獎勵를 計畫하고잇다。

이로미루워볼때 우리는 緬羊國策上 朝鮮이 얼마나 重要한 地位에 잇는가를 可히 짐작할수잇다。

棉花

「南棉北羊政策」의 他一翼이되어잇는 棉花에 對하야볼지라도 日本內地에잇서는 在來의 東洋系의 棉花는 絲紡價値가적음으로 外國棉 即 米國種海島棉과 陸地棉種子를 輸入하야試作하야보앗스나 氣候가 陰鬱하고 降雨가 頻繁하며 夏期도 光熱이 強치못하야 土壤이過濕하기때문에 棉花의 成熟을促成치못하야 조흔成績을 엇지못하얏다 이리하야 年年 約十二億萬斤의 繰綿을 輸入하고잇는터로 그金額이 約四億五千圓 內外의 巨額에 達하고잇다。

그런데 朝鮮에는 氣候는 이에反하야 四月以後 氣溫이 놉고 晴明한 날이 만흐며 强烈한 日光이 直射하야 棉花栽培에 適當하다。그러타고 朝鮮의 風土가 반드시 米國이나 印度나 埃

도 文明的 生活에는 必要不可缺한것이다。

그런데 日本內地에 잇서서는 現在 亞麻를 企業的으로 栽培하는곳은 北海道뿐인데 北朝鮮高地帶의 氣候은 北海道에 類似하야 그栽培에 適當하야 過去의 試作에依하면 反當 最高收穫六百六十六斤、最低收穫三百八十九斤으로 平均五百二十七斤이어서 北海道의 收穫四百二十斤에 比하야볼때 자못 良好한 成績을 보이고잇다。勿論大面積에 栽培하면 그平均收穫이 五百二十七斤에 達하기는 困難할지나 그래도 四百斤을低下하지는 안흘것이다。

咸南高地帶의 耕地面積은 現耕地量合하야 將來四十餘萬町步에 達할터로 그區域은勿論 亞麻栽培에 適當하나 交通의便否 原料收集의 關係 輪作關係等을 考慮하야 五萬町步로 推定되고 六、七年輪作으로치면 每年作付面積은 七、八千町步에 達하야 段當收穫四百斤으로 잡드라도 그生產高는 三千萬斤內外로 北海道의 生產에 匹敵한다。

帝國製麻會社에서는 이미 昭和八年以來 咸南의 高地帶一圓에 亞麻의 大栽培를 計畫하고 爲先同年부터 豐山、三水、甲山의 三個所에 相當한 面積의 亞麻栽培에 着手하엿는데 同社의 計畫을보면 第一期計畫으로 昭和九年부터 每年 六百町步十個年에 六千町步를 栽培하고第二期計畫에 잇서서는 旣耕地를 合하야 栽培面積을 一萬八千町步로 擴張하고 一個年 七千二百萬斤의 亞麻를 生產할 豫想下에 六百町步에 一個所式 合計三十個所의 精選工場을 設置하려고 計畫을 進行하고잇다。

總督府에잇서서도 咸南北兩道의 高地帶에 國策的產業으로 亞麻工業을 振興하려고 同會社에 補助金을 支給하야 極力 同事業을 援助하고잇서 不遠한 將來에 朝鮮은 亞麻工業地帶로서도 重視되게될것이다。

諸工業의原動力
電力資源도豐富

모든 工業의 原動力은 말할것도 업시 電氣이다。日本內地에서 電力統制가 말성이 큰것도 말하자면 準戰時經濟編成에잇서 電力問題가 如何히 重大性을 帶한것인가를 明證하는것인바 新體系로 進함 朝鮮產業의 原動力이 될 電氣는 如何한가? 그 資源을 살펴보면 朝鮮의 電氣事業은 日本內地에압서 統制가 잘 되엇다고 遞信當局은 뭇척 자랑하고 잇는가 이것은 日本內地는 事業自體의 發達이 압스고, 朝鮮은 官廳의 힘이 事業 完成前에 벗처 잇는때문이다。

電氣事業의 現狀을 보건대 昭和七年 一月에 公布되어 同年十二月부터 實施된 朝鮮電氣事業令에 依하야 統制된 朝鮮電氣事業은 昭和十年 十一月末現在로 社數五十四、資本金一億七千百八十五萬七千圓 其中拂込一億二千五十七萬八千圓 總發電力三十三萬 二千三百九十一키로왓트(其中豫備의것一萬七千七百十三키로왓트)이다。

그리고 發電計畫과 送電計畫의 槪略은 九割까지를 水力에 依할 方針下에 重要發電水力全部의開發을 目標로서 豫定計畫을 세워 二十六地點과 이에旣許可發電(昭和七年四月末現在)로서四會社量을合하야 總計九十六個所에 達하고 總豫定發電力百五十八萬六千七百五十一키로왓트인바 그中主要한發電計畫은 黃水院二十二萬키로 長津江水電二十一萬七千餘키로 朝窒十五萬六千餘키로 丹陽忠州地方十四萬六千키로 大同江十四萬二千키로 江界地方十萬八千키로等이다。以上中에昭和十五年까지의 第一次統制計畫期間內에完成될 水力發電所도 三十二個所로豫定發電量은 七十六萬七千키로왓트로서 그中三會社는 昭和十年現在로 完成되고 朝窒과 長津江水電은 豫定計劃變更의 增設으로되엇는바 總督府의 第一期電力統制計劃의 根源이되는 長津江發電地點中 第一發電所는 이미 十年十一月以降 運轉을 開始하고 北朝鮮과 西朝鮮地方에 電力을 供給코잇는 第二期工事인 第二發電所의 出力五萬六千키로왓트의 發電工事는 今回完成되어 過日來遞信局에서 檢査實施中으로 十一年十二月二十二日附로 使用認可되엇슴으로 右에依하야 長津江系水力發電의 總出力三十二萬키로왓트中 過半數가 開發送電케되엇다

또火力發電은 補助程度에止하고잇슴으로 火力發電豫定計畫은十三萬一千餘키로왓트에不過하고그中二萬五千餘키로왓트는 統制計劃決定當時의 旣設發電所의能力이다

送電線路는 二十三線 延長三千十六粁에達하고 送電電壓은十五萬四千볼트로서 將來送電網幹線이되는것인바 主要送電線路는 長津江ー京城線、端川ー咸興線、豆滿江ー端川線、平壤ー京城線이 二百粁以上의 延長을示하고 百粁以上八線、百粁未滿十一線이다 以上中에 昭和十五年까지에完成豫定의送電線은 十四線、千三百九十六粁으로延長 百粁以上에 達하는것五線、旣設의것은松興ー興南線(十一萬볼트)의 百七十七粁이다。

長津金融組合 理事 安處瑛

長津 殷龍精米所

長津 朴乃雋

長津 陽明學校

長津邑 貞信自轉車店

大同

大同郡金祭面長峴市 德山醫院長 醫師 李應鳳

大同郡古平面儉籠里 大平醫院 醫師 桂鐵淳 喪中御欠禮

大同郡大寶面長 姜善海

大同郡龍山面

大同郡大寶公立普通學校

大同郡 龍山公立普通學校

平壤府天和醫院 院長 黃得燁

大同郡大寶面就明學校 校長 崔載璇

大同郡大平金融組合 理事 木村榮一

大同郡私立新興學校 校長 申泰均

大同郡古平面長 金致章

報恩

忠北トラック運輸株式會社 社長 李錫來 專務取締役 山上竹三郎 常務取締役 李泰寶 本社報恩邑內電話七番 出張所沃川驛前電話七番

報恩邑 泰興百貨店 主 金在洙

報恩郡繁榮會

忠北報恩 報物肥料石油 酒類煙草販賣 李錫來商店

報恩邑 報恩自動車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鄭壽弘

報恩郡各初等學校長團

報恩郡元南金融組合 理事 權寧武

報恩郡水汗面長 盧泳九

報恩金融組合 職員一同

報恩郡馬老面 職員一同

報恩郡俗離面上板里 酒造業 尹東鎬

報恩郡元南面 布木商 金用君

忠北報恩邑 米穀商 李

報恩郡俗離面 金 日

報恩郡俗離面 朴

法住寺

忠北報恩面 面長 全相瑾 外職員一同

兼二浦

明治町 喪中欠禮 姜貞顯

兼二浦明治町 米、雜穀 精米業 吳鎭憲商店

兼二浦金融組合 理事 福田敏治

兼二浦明治町 大衆齒科醫院 永

兼二浦大正町 聖清局 金泰希

兼二浦邑本町 日本ミシン株式會社黃海道支部 支部長 李正日

兼二浦 精米業 信商會 電話一二番

兼二浦邑本町 中德醫商店

兼二浦邑本町 富士自轉車 ライオン自轉車 宮田の自轉車 本林商店 振替京城一三四九一番

兼二浦邑本町 榮朝商店 高級呉服洋服部

朝鮮兼二浦邑本町 天玄時計店 電話一〇八番

兼二浦本町 金秉濟

兼二浦 第一旅館

兼二浦藥局 金寬容

兼二浦 金景翮

兼二浦邑大正町 興源商店 林源興

鄭禮漸

橫城

橫城屯內公醫 嚴老星

金浦邑內 司法書士 鄭衍冕

李懿鍾

金浦郡邑內 司法書士 金敬欽

吳鴻燮

沈相惪

丹面事務所 職員一同

高村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

義城醫院 院長 金弘鎭 電話一〇番

義城邑 官公職者一同

義城印刷所 印刷、紙物 石炭、木炭 穀物、貿易 魚鹽、肥料 建築材料

義城精米所 吳夏洙 電話一五番

義城郡玉山 朴泰英

義城郡丹村 大本山孤雲寺 金泳鎬

義城郡 金城職員一同

義城郡佳音面 具然台

義城郡丹村面 面長 金允弼

義城郡 佳音面職員一同

義城郡丹村 丹村釀造場 主 金碩鎭

義城郡春山面 面協議員 池秉植

義城邑市場 綢緞布木 各種雜貨商 黃鳳俊

義城郡點谷面 金道煥

義城郡義城邑 米穀商 金東弼

義城釀造株式會社

廣州

廣州郡職員一同

廣州郡京安里 朴箕俊

廣州警察署 職員一同

廣州邑內 廣泉釀造場 主 尹勝燮

廣州郡慶安面 職員一同

廣州邑內 安田清行

朝鮮麯子株式會社 廣州支店

廣州邑內 限部雅

謹賀新年

新乫坡

木材業 鑛業 **李龍在** 振替口座 京城 二六、二〇一番 電話 新坡 三三番

咸南自西面下院洞 木材業 **金炳洙**

咸南新乫坡鎭 木材業 **姜永駿**

新乫坡鎭 **三光印刷所** 金萬福

咸南新乫坡鎭 **官民申合會**

咸南三水郡新乫坡鎭 綢緞綿布 日用百貨 **東興商店** 振替京城一三八七二番 電話 二三番

咸南新乫坡鎭 **日鮮藥房** 黃賛燮

新乫坡鎭 **李容祚**

咸南新乫坡鎭 **金晟栽**

咸南新乫坡鎭 **中和時計店**

咸南新乫坡鎭 木材業 **李淙植**

咸南新乫坡鎭 日用百貨 **全亨昊商店**

咸南新乫坡鎭 **東興商會**

咸南新乫坡鎭 **李柱鳳商店**

咸南新乫坡 **新坡醫院** 院長 宋明道

咸南三水郡新乫坡鎭 **智道元商店** 電略(ㄹ)又ハ(チ) 振替口座京城六〇四六番

新乫坡 **姜文錫**

咸南新乫坡鎭 **カフエースズラン會館**

咸南新乫坡鎭 **三[illegible]旅館** 徐春實

咸南新乫坡 木材業 **崔昌疄**

咸南新乫坡鎭 **韓仁洙**

咸南新乫坡鎭 **新坡理髮館** 吳大敏

咸南新乫坡鎭 **光鮮寫眞館**

咸南新乫坡 **三星寫眞館**

新乫坡鎭 **明新商會支店**

新乫坡 日鮮食料品商會 **全鳳俊**

咸南新乫坡鎭 **全俊厚**

咸南新乫坡鎭 **金駿聲**

咸南新乫坡鎭 **尹南順**

咸南新乫坡鎭 **李盛濱**

新乫坡 大興濟州出張所 **金相網**

新乫坡鎭 **玉椿堂**

新乫坡鎭 物産客主 **李載鎬**

咸南新乫坡鎭 **鳳興**

三水郡新乫坡里 司法書士 **昌通**

新乫坡鎭 **白光**

咸南新乫坡鎭 **日鮮麵屋** 主 金熙俭

四平街

四平街北町 小兒科 內科 **共濟醫院** 電話五二〇番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商 **日滿公司** 主 李載烽 電話長二五六番

滿洲國四平街 特產物貿易商 **開信商會** 電話長二五二番

滿洲國四平街北三條通 穀物貿易 輸出入商 **滿鮮公司** 主 洪宗植 電話長三二番、五三四番

四平街 貿易商 **信益商會** 電話(長)四一五番、五一五番、六五二番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商 **牛島商會** 電話(長)三二五番、六二番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業 並ニ委託業 **泰昌商會** 電話(長)三三七番、六五五番

四平街 穀物貿易商 **東和商會** 電長八二番

四平街 **廣信號**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商 **大東商事株式會社 四平街支店** 電話(四)三三三番、三七八番

滿洲國通遼縣永福大街 紳士服及日本服 洋服附屬一諸 **又新洋服店** 李基泰 電話二六番

滿洲國四平街 **永根洋行** 電話三八六番

滿洲國四平街 特產物貿易商 **東光商會** 電話三七七番

四平街 **銀松園**

盛花樓 尹桂紅 洪栄淑 洪山玉 金貫玉

滿洲國通遼縣南順城大街 穀物貿易 委託販賣 精米精粟 **一省公司** 電話長一四八番

滿洲國通遼縣南順城街 興安南省通遼縣 精米 精粟 雜穀貿易 **通遼公司** 電話二二七番 電略ツツレ

滿洲國通遼縣雲龍大街 穀物貿易 委託販賣 精米精粟 魚類販賣 **滿興公司** 電話一三〇番 電略マンコウ又ハ〇マン

滿洲國通遼縣永福大街 糧米精米 委託販賣 海産物 **東興公司** 電話長二六番

滿洲國通遼縣 **永昌公司** 電話三二七番

四平街 穀物貿易 **平和商會** 電話二六四番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商 **天一商會** 電話(三)六番

朝鮮商店 電話四〇五番

海星商店 電話五五一番

四平街 **五大洋服店**

四平街 **朝鮮人民會**

四平街 **李慶全**

滿洲國通遼縣 穀物貿易 委託販賣 精米精粟 **三合商會** 電話二三番

通遼縣南順城大街 **金泉館**

清亭

料理 **永樂館** 主 李炳善 妓生 李永愛 盧正玉 蔡銀珠 李山玉 金花仙

定州納清亭 **鍮器株式會社** 電話九二番 振京三九二三番

博川郡龍溪面元山洞 日鮮料理 **太平館** 主 金玉花 妓生 金明玉 同 車月仙 同 金春紅

清元鍮器製造商會 主 **金仁寬** 振京七七七六番

松竹鍮器商店 博川郡龍溪面元山洞 主 李俊燁 振京一四六五番 工場 松竹鍮器

清元勞働組合 組合長 林昌道 電話一六番

清亭郵便所 所長 大期與次郎

清亭金融組合 電話五番

清亭公立普通學校 校長 外 職員一同 電話六一番

定州郡馬山面事務所 面長 林昌文 外 職員一同 電話一四番

平北定州郡清亭市 **清亭燒酒釀造所** 電話一〇七番 振京一六三九番

紫外光線特設 **至誠醫院** 醫學士 金王鎬 電話一七番 振京一六三三番

日鮮料理 **清亭館** 主 金元 妓生 李文吳 金花 玉明 金仙 華姬

清亭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電話四番

博川郡龍溪面 **元下公立普通學校**

清亭水産組合 組合長 東昌 理事 朝鮮日報 **新興商店** 主 洪利錫

支那料理 **德興園** 主 李樹棠

清亭冷麵屋 主 康鎭亨

平北定州郡清亭市 株式會社 **朝鮮日報社清亭支局** 黃京善

支石

江原道伊川郡樂壤面支石市 綢緞布木 和洋百貨 **支石和信連鎖店** 金應善 金允夏

太乙釀造場 振替京城九二七〇番 電略 ㄷ又ハ(タイ)

燒酎 藥酒 濁酒 製造元 合名會社 **世昌釀造場** 穀物貿易合名會社 世昌自働車部

穀物木炭貿易 一般貨物運輸 合名會社 **支石共進社**

伊川郡樂壤面職員一同

支石金融組合職員一同

支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和洋金物商 **桂枝鳳**

江原道伊川郡支下里 綢緞布木 和洋雜貨 石油肥料 各種工具 靴類散貨 **協成商會** 主 方俊植 方在默 振替京城一八四八三番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支石出張所**

布木商 **申秉日**

布木商 **禹相準**

布木商 **朴厚善**

布木商 **魯東觀**

中華料理 **松鶴館**

支下消防組

保敬幼稚園

基督教朝鮮監理會 **支石敎會**

各種印刷 **支石印刷所**

支下郵便所 **古閑壽夫**

各種食料 海陸物産 雜貨商 支石製菓所 **崔威烈**

自動車支石停留所 **支石旅館** 金承化

支石營業聯合組合

支石醫院 公醫 金仁鎬

新溪郡村面支石里 學校評議員 **趙重健**

布木商 **池道成**

布木商 **金應洙**

中央旅館 **李俊英**

信明木工場 **李忠烈**

靜明理髮館 **金德善**

穀物商 **昔今孫**

支下警察官駐在所

長箭

朝鮮料理 **大成館** 主 鄭淳敎

綢緞布木商 **黃世德**

海陸物産 和洋菓子商 食料雜貨 **鄭明鉉** 電略(ㅁ)又ハ(メイ)

金融業 **共昌商會**

工藝金融組合理事 **盧龍植**

綢緞布木商 **金昌玉商店** 事務 大龍

東海北部線長箭驛前 ㊋ 海陸物産委託業 **長箭荷主運送合同組** 取引銀行 殖産銀行長箭支店

江原道長箭港 **朝鮮東海鰮巾着網漁業水産組合**

江原道長箭港 鰮油肥製造業 **崔燦鉉商店** 電話三九番

江原道長箭港 水産業 **黃雲天商店** 電話二一番 電略(テン)又ハ(ウ) 振替京城一〇九一九番 私書函長箭局八番 出張所 元山府海岸通六丁目 咸南新浦港 咸南遮湖 電話二五番 二六番 二八番

江原道長箭港 水産業 **李德議**

江原道長箭港 水産業 **金龍鎭商店**

江原道長箭港 鰮油肥製造業 **朴行植**

江原道長箭港 鰮油製造業 **權昇泰**

江原道長箭港 公醫 **崔圭河**

江原道長箭港 **鄭民澤醫院**

江原道長箭港 朝鮮料理 **長春館** 妓生 梁泰仙 朴瓊心 朴錦花 朴桂月 金明花 金山玉 申玉葉 梁秋月 金錦仙 洪梅花

江原道長箭港 鰮油肥製造業 **權昇寬**

江原道長箭港 鰮油肥製造業 **朴萬年**

江原道長箭港 穀物貿易 **和善商店** 代表者 高珍休

江原道長箭港 自轉車發動機販賣 **在成自轉車店** 主 李在九 電話一四番

江原道長箭港 **大興堂時計店** 店員一同

江原道長箭港 **金剛商會** 主 具滋洙

長箭港 **長箭印刷所** 主 劉鳳烈 電話四八番

江原道長箭港 穀物貿易 **丁海完商店**

江原道長箭港 **一興百貨店**

江原道長箭港 米穀貿易 肥料製造 **丸石商店** 主 許石煥

江原道長箭港 **東洋商會**

長箭港 **元山館** 主 李昌淑

江原道長箭港 **中興商會** 主 李瑞求

江原道長箭港 **崔永福**

長箭港 **裵相孝**

江原道長箭港 **振泰永商店**

江原道長箭港 木材 機業 **海星木材商會** 代表 崔龍雲

長箭港 **金斗益**

江原道長箭港 ㊂ **商工組運送店**

東海北部線長箭驛前 ㊍ **東鮮海陸運送店** 電話四六番

江原道長箭港 **韓一藥房** 主 韓錫泰

江原道長箭港 **光成堂藥房**

江原道長箭港 **元山藥局** 藥劑師 李鳳德

江原道長箭港 穀物木炭食鹽 **朴日洵米穀商店** 電略ミ又(ㅁ)

江原道長箭港驛前 叺繩莚米穀 肥料食鹽 **朴象百商店** 電略(ボク)又ハ(ㅂ)

江原道長箭港 貿易商 **天眞洋行** 電略(テン)又ハ(テン) 受電テウゼンテンシンヨウコウ

江原道長箭港 **安恒淳**

江原道長箭港 **柳重玉**

長箭港 **金泰洙**

江原道長箭港 **永信洋服店** 主 丁宗星

江原道長箭港 **元興洋服店** 主 金炳奎

江原道長箭港 **平一洋服店**

江原道長箭港 鰮油肥製造業 **趙元明**

江原道長箭港 水産業 **張運善**

江原道長箭港 **京城食堂** 主 閔根鎬

長箭港 中華料理 **南海樓**

江原道長箭港 **京城屋** 主 趙益元

江原道長箭港中村組配給所 食料雜貨 **三益商會**

長箭港 果物店 **德昌祥**

江原道長箭港 **池成自轉車店** 主 池炳斗

江原道長箭港 綿布商 **永和商會** 主 黃永錫

長箭港 中華料理業 **福金堂**

長箭港 **東海運漕店** 主 金在化

江原道長箭港 **李光淑**

長箭港 **光信堂銀房** 主 申光均

江原道長箭港 **永廣商會** 主 李秉俊

江原道長箭港 **義昌商會** 主 申義秀

江原道長箭港 **우리商店** 主 宋泰鎬

江原道長箭港 **元山商店**

長箭港 **嶺東商店** 主 姜大福

江原道長箭港 **三玉鐵工所** 主 朴龍河

江原道長箭港 和洋酒類 **中央商店** 主 李會星

江原道長箭港 **泰成洋靴店**

江原道長箭港 **金剛洋靴店** 主 黃石弘

長箭港 **榮一金物店**

長箭港 **孫東淑**

長箭港 **金光益**

長箭港 **李桂燮**

長箭港 **唯一酒店**

江原道長箭港 **黃鳳德**

長箭港 **金萬奉**

長箭港 **金琪守**

朝鮮日報社長箭支局 支局長 玄乃順 記者 金南哲 記者 鮮于琓 寫眞班記者 白雲鶴 集金員 李漢載

成歡

京釜線成歡驛前 最新流行高級洋服 **成一屋洋服店** 主 崔鍾成

京釜線成歡驛前 米穀商 **大東商會** 主 柳範九

京釜線成歡驛前 **カフエーワロム**

天安郡成歡面成歡里 司法書士 **朴虎凡事務所** 電話一七番

京釜線成歡驛前 **仁濟醫院** 入院室完備

京釜線成歡驛前 綢緞布木 內外雜貨 石油ゴム 鞋類 **成一商店**

京釜線成歡驛前米市場 綢緞布木 **李明煥商店**

京釜線成歡驛前 金物 和洋雜貨 自轉車附屬品 販賣及修繕 **和信金物自轉車商會** 李

京釜線成歡驛前 **日進堂製菓所** 主 尹進男

京釜線成歡驛前 各種時計 蓄音器 販賣修繕 金銀細工眼鏡 **花影堂時計店** 主 朴季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五

朝鮮歷史學研究의 前進을爲하여

金洸鎭

一、歷史研究의 必要

歷史는 過去의 事實을 記述한것이다。우리들은 지나간일을 배울必要가 어데잇스며 더욱이 그것을 記述하야 무엇하나?이러한問題가 처음에 提起될것이다。

歷史는 過去를 다만 過去로써 알라고 함이아니다。한갓 歷史記述은 架空的인 一時談을 興味本位로 記憶하기爲함도 아니고有閑者의 消日꺼리로 어루만지는 骨董品愛好와가튼 趣味로하는것도 아니다。그러나 그가튼歷史도 우리들이 日常生活에서 보는바와가티 만치만은 眞正한歷史는 現實的過程을 把握하기爲한實踐的 態度를 要求하는것이다。

우리들이 過去를 알랴고하는 努力은 무엇보담도 現代를 더 確實히 알기爲함이다。「現代」는 過去를 떠나서는 正當히 理解할수업는것이다。何故、現代는過去의歷史的過程의 成果이고 其延長이고 그一環이기때문이다。現代는 過去와 關聯하야봄으로써 비로소 그全面的인 由來와 本質을 把握할수가잇다。

그러면 다시 우리들은 엇지現代를 理解하야둘必要가잇는가?勿論現實을 變改하고

未來 를맨들어내기爲함이다。우리들은 未來를 任意대로 맨들지는못한다 現代는 그리쉽게 마음대로 變改되여지는것은아니다『人間은解決할수잇는問題만을 問題로삼을수잇다』는것과 가티 現實이 그變改를要求하고잇는 問題만을사람들은 解決할수잇는것이다 即 現實을 떠나서는 現實을變改하지 못하는것이고 未來를맨들수잇는 條件은「現代」그自體內에 存在하여잇다는말이다。

現代 그러므로 現實의變改은 現實에對한認識이업시는 不可能한것이고 그러고 또 現代를正當이 認識함에는 現代가過去로부터엇떠한 過程을밟아 發展하여왓는가를 똑똑히 알어야만 完全이 可能한것이다。다시말하면 現在를變改하고 未來를建設하기爲하여서는過去로부터 現代에到達한 合法則性을 理解할必要가잇고 또 現代로부터 未來에移行하는 必然的合則性을 잘알어야되는것이다。

이와가티 우리들이 歷史를배우는것은 무엇보담도 먼저 實踐、目的이다。實踐에關心업는歷史는 아모리 훌륭한體系로記述되여잇다할지라도 그內容은 虛妄에가갑운것이고 또그러타고하야 歷史를實踐에便利하도록『製造』하거나 『解釋』하는것도 結局에잇서서는 아모實踐的效果를지여내지는 못하는것이다。反對로 가장科學的인 歷史만이 實踐을 成功的으로 가장健實이指導할수잇는것이다。

二、歷史學의本質

科學的인歷史學는 반다시 進步的階級만이 그것을建設할수가잇다。그理由는 前述한바 歷史와實踐과의關係에서 明白히알수잇다。即 實踐的要求를가장深刻히품고잇고 未來의建設을 擔當하고잇는者는 새科學者以外에는 업슬것이다。그러므로 그들은現實의歷史의 모든矛盾을 解剖하야 歷史過程의 正體를 그대로 反映한다일지라도 부르조아지ㅣ도 그들이 進步的役割을 하고잇든 十八世紀에잇서서는 封建貴族을의 王權에 歷史記述을 엇더튼 度까지는 眞正에 가까운 方面으로 反映식히엿섯다。그러나그들이 그實踐的活動으로 建設한 資本主義社會는 亦是階級分裂을 基礎로한 社會이엇슴 그들은歷史的過程에잇서서 隱蔽하지안흐면 아니될 만흔現實的要求가잇섯다 그리하야 그들에게는 科學的歷史學을 建設할資格이 업섯든것이다。그뿐만아니라、더욱이最近에와서는 일죽이進步的階級이엇든 부르조아지ㅣ도漸次 反動的陣營에몰리여 自己들을

武裝 하게될을따라 一時이나마 多少客觀的 性質에 가까웟든그들의歷史記述도 只今에와서는 主觀的 觀念的으로 自己들의歷史를 歪曲하야 記述하게되엿다。從來의그들의歷史記述은 只今그들의現實로보아 넘우만흔眞理를 품고잇섯끼때문이다 우리들의『近代科學』에對한 態度를決定할때에 以上의부르조아지ㅣ의動向을忘却하여서는 아니된다。十八世紀의『古典科學』은 『近代科學』에比하야 時間的으로는 오래되엿지만『古典科學』이 歷史의發展形態로서의 부르조아지ㅣ의 이데오르기ㅣ이엿든만큼 進步的인性質을품고잇섯든것이다。그러나『近代科學』은 歷史의 頹廢으로서의 부르조아지ㅣ의 이데오르기ㅣ이니 그것은反動的役割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이러한點은 哲學史、經濟學史가튼 社會科學에잇서서 特히『古典的』인것이『近代的인』科學보다 一層만흔價値를包含하고잇는것을보아도알것이다。

그것은如何間 多少進步的性質을띄고잇든『古典的』歷史學에잇서서도 그것이不徹底하엿고 歷史的過程의眞正한反映을記述치못하엿든것은부르조아지ㅣ自身이階級意識을시하는階級이아니엿슬뿐아니라 階級社會의存續이 그들에게는 언제까지든지利益이될으로 그들은 오직封建貴族階級과鬪爭하고잇든 時代에限하야 多少科學에近似한歷史記述을 지여보앗슬뿐이다。

그러나 今日 새科學時代에잇서는 全然그態度를달리한다。그들은 現代를止揚할뿐아니라 階級그것을 止揚할라는科學的인 것이다。그들은 過去와

現實 에對하야隱蔽하여야 될아모것도업슬뿐아니라 讚美할아모것도업다 그러므로 그들의손(手)에서 비로소 歷史過程의正體는 조곰도쉬기업시 硏究될것이며 또그들은 恒常 實踐的인만큼 現實過程에對한가장眞正한分析과 把握을要求함으로 그들은 누구보담도 가장客觀的인歷史를 記述할수잇는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現代에잇서서는 新科學者만이 科學的歷史學을 建設할 歷史的任務를 갓고잇다

三、歷史學의 方法

歷史學이 科學으로써確立함에 要소 自然史的階級性으로써、大衆의 社會的生活諸條件과그 關한 諸條件의變化를 무엇보담도 먼저 硏究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가티 **研究** 하는 可能性을 歷史學의 硏究者는 무엇보담도먼저 史的唯物論의原則的知識으로써 武裝할必要가잇다。史的唯物論을 方法으로하지 안흐면歷史過程의여러가지部分여러가지歷史現象을 科學的으로究明할수는업는것이다。史的唯物論에까지 到達치못한 歷史觀에잇서서는 社會過程에參與하는人間의歷史的行動의 根本原因인經濟的關係、物質的生活의 諸條件을考慮치안코 외히려 그基礎우에서 現象하는 觀念的、意識的動機를 歷史의推動力으로생각하야 그러한 觀念的動機의 代表的擔當者인 指導的人物에過大한意義를賦與하고 그보다더욱重要한 歷史過程의 된人民大衆과 階級을歷史過程의 積極的要素로써 把握하지못한다 그러한方法으로 씌워잇는歷史는 皮相的인 人民大衆의生活過程을隱蔽하고 數個人의成功과失敗가問題되고 歷史的悲劇과喜劇만이興味의中心이되여잇기때문에 社會의無限한 多樣性과錯雜한矛盾性이錯亂되여잇는가운데에서 鐵과가튼必然性을갓고 貫徹하고잇는 客觀的合法則性을 洞察할수는업는것이다。即歷史를統一的過程으로써 科學的究明을 不可能케하고잇다。

그리고 또 史的唯物論은 그理論自體가 先進的階級의 社會諸理論에對하야 갓고잇는 멋가지優越한點만을 簡單이指摘하여보면다음과갓다。

第一에、從來의歷史諸理論은 人間의歷史的行動의 觀念的動機를考察의 對象으로 하여왓다 그러고그러한 動機가엇떠한社會的要求로써 生起하엿든가하는 根本的問題를 探究치못하엿다。即、社會的諸關係의 體制와 그發展에잇서서의 客觀的法則性을 追究치아니하고 이러한諸關係의 根柢와 物質的生産의發展程度를 無視하엿다」

第二에、『從來의諸理論은 人民大衆의 行動을全然放棄하엿다』 그와反對로 史的唯物論은 비

的實踐을 基礎로하야 成立되고 發展한것이다。理論은 實踐으로부터 發生하며 그러고 다시實踐을爲하야 必要한問題를

解答 하는것이다。그러므로 歷史研究의 向할바目的은 반드시 現在의實踐에잇나니 科學的歷史研究가 現代를 變改하기 爲한것 그것을爲한 過去와現在의 研究인以上 歷史研究는 現在의 實踐에依하야 規定되고 實踐을爲한 武器가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그뿐만아니라 過去의 研究란것은 現在에對한 研究가 업시는 不可能한것이다。『人間의解剖가 猿숭이의 解剖에對한 열쇠(鍵)가 되는것』과가티 現代의研究를 通하여야 비로소全過去의研究도 完全하게 되는것이며 現在에잇서서의 實踐이 그로부터過去의 過程은 不可能한것이다。

四、朝鮮의新興史學界

最近朝鮮에잇서서 進步的學者들이 史學研究의 氣運이 漸次濃厚하여진것은 慶賀할바이다。現實的運動이 下潮期에잇는 이때에 『인테리겐차』가 그精力을 歷史研究에 傾注함은 그리 怪惜할바가아니다。다만 在來의 歷史家들이 말하는바와가티 歷史를爲한歷史 研究를爲한研究를能事로하는 趣味乃至考證辨證으로하는 歷史研究에빠지지아니하고 現實的要求와의關聯을언제든지 念頭에두고 歷史的過程을 通하야 現實을規定하고 그方向을 指示할만한理論的探求가 必要할것이다。過去에잇서서 現實的運動이 盛進되여잇슬때에 當時의理論的水準은 아직 史的唯物論을 公式的으로 理解하여슴에 不過하엿고 朝鮮社會의모든具體性 特殊性을現實的으로

把握 함에는 이르지못하엿든것이다。「리하야 歷史研究의 必要는 그때부터잇서거니와 今日의 歷史研究의努力은 過去의 成果를한번淸算하므써 歷史過程을 一層具體的으로 解明함에 그重點을두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最近朝鮮에잇서서 歷史研究의 氣運이漸次濃厚하여젓다고하여도 아직그成果에 잇서서는 그리보잘것이업슬뿐아니라 朝鮮歷史의全面을通하야 아직 探求의驅使되히남어잇스니 여러歷史家가 새로운 方法論의 觀角으로서 그暗黑面의 開拓을爲하야 集中的努力이 要求되어잇다。

朝鮮史全般에對한 硏究로서는 東京에잇는 李淸源氏의『朝鮮社會史讀本』이잇다。朝鮮史槪念의 一般的把握을 爲하여서는 參考가 될것이다 그러나 甚히短時日에된 急造品인만큼 原史科를 直接으로驅取하야 朝鮮史를 再編成함에 成功치못한것은 遺憾이다。그러나 氏의 이方面에對한 不斷의努力에 對하야서는 敬意를表하시안흘수업다。

그리고 朝鮮古代史의 研究에 對하여서는 相當한 業績을들수잇스니 特이 白南雲氏의 名著『朝鮮社會經濟史』는 그資料의豊富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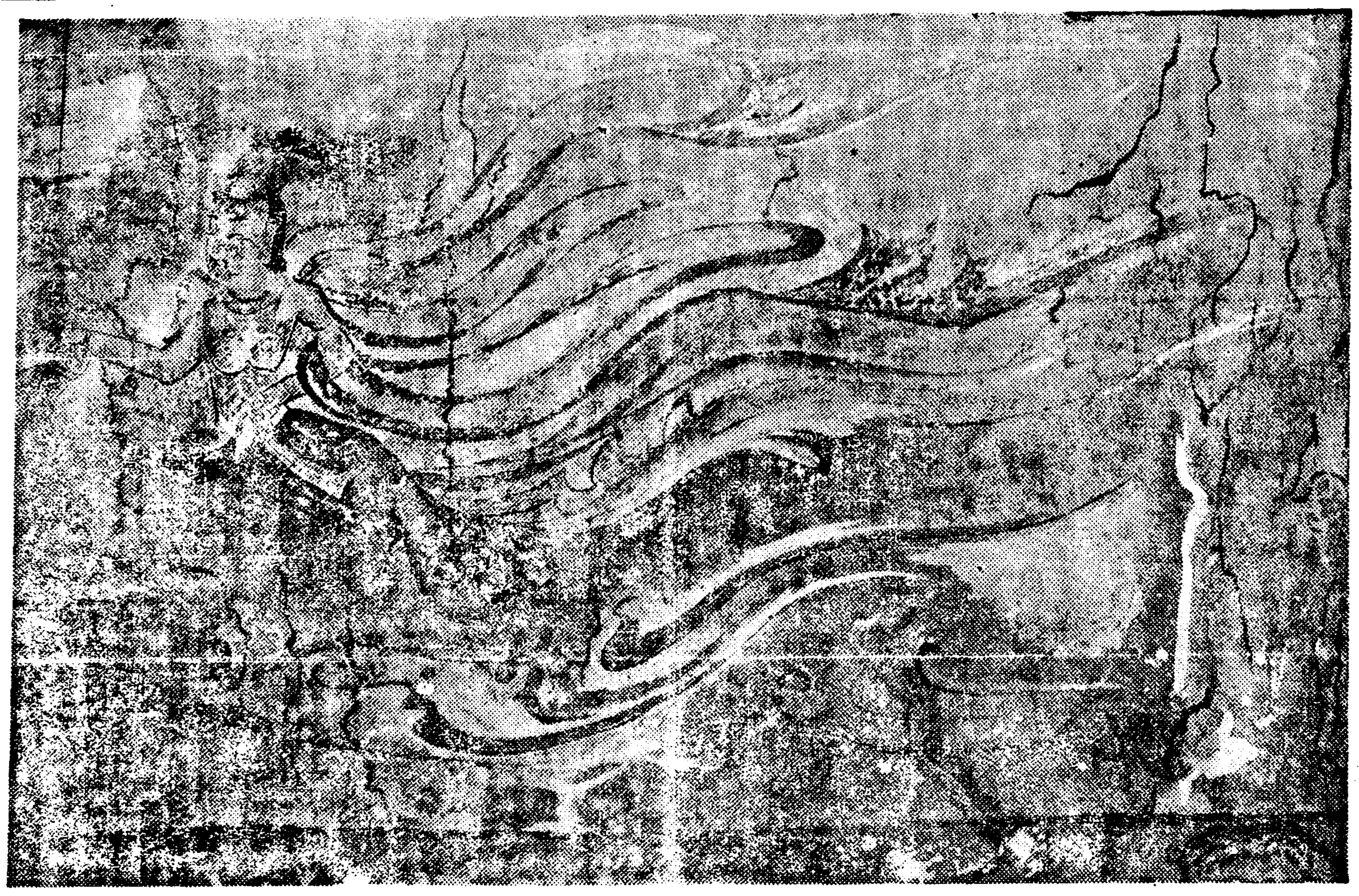
愼重 한研究的態度로써 觀察한 點에잇서서 優秀한 部分을 만히남기엇다。그러치만全體로써 歷史過程을 發展的으로 把握치못하엿기때문에 一部에서는『公式的』이라는 一言으로써 批判을받고잇스나 大體로白氏는 世界史過程의普遍性만을 形式論理的으로 朝鮮史에適用하야 固定的인 一般的法則을 一例를들면 氏의 所謂『奴隸國家』를 朝鮮古代史에서 抽出하라고 努力하는나머지에 朝鮮史의 特殊性과 그具體的 發展過程을 科學的으로 分析지못하엿다。이러한點의 部分的批判은近近發表될 拙稿『高句麗社會의生産樣式』에서 하여두엇스나 古代史에 對한氏의 功績은 以上의缺陷이 잇다할지라도 決코忘却할바아니다。

이外에 金台俊氏의 好個의業績과 아울러 朝鮮古代史에 對한 分析은 一層深化하여간다。

이方面에 研究는 一見 重大性이업서보이는것이 一般의생각이다。그러나 古代社會史는 當面한 朝鮮近代史研究를 爲하야 現實的 過程의 認識과 아울러 基本的 열쇠(鍵)를 提供하므로 우리들의 緊切한 近代社會史의 研究를 爲하여서는 最大의 速力으로 먼저古代史의 分析에 集中할 必要가잇다。

今日의 朝鮮社會는 資本主義와 面貌와 並存하야 만흔 古代的遺制가 殘留하여잇슴을

特徵 으로하고잇스니 希臘과 羅馬의 古代를 모르고는 歐洲資本主義를 理解할수업는것과가티 朝鮮의 現實生活의 正確한 把握은 朝鮮古代史의 研究가 그前提가 되는것이다。그뿐아니라 朝鮮古代에잇서서 幾多의 傳說과 蒙昧에 감추어진 暗黑史를 科學的



高句麗天人圖 平南江西遇賢里大墓玄室天井에잇는 天人供養圖라고볼수잇는 高句麗時代古墳의壁畵이다 高句麗時代가 지금으로부터 一千二百八十年前까지이엇슴으로 이것도 千三百年前時代의것으로 볼것이다 佛敎文化가爛熟한그時代의 發達된文化의片鱗를알수잇다 小場恒吉氏의 模寫한것이다

方法의 光線에 비추어 그灰色의『베ㅣ일』을 헤치고 社會的發展의 必然的過程을 把握함이必要할것이다。

다음에 朝鮮에잇서서의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을 中心으로한 硏究의 進展을 들면 이方面은 現實的運動에 直接依據하고잇는 基底인만큼 相當한 業績을 뵈이고잇다。그中에서 朴文圭氏의『農村社會分化의 起點으로써의土地調査事業』과 森谷克己氏의 諸勞作等은 朝鮮現下의 重要問題인農業問題解決을爲하야 만흔前進을 뵈이고잇다。이外에全體的記述로서는 李淸源氏의『朝鮮社會史讀本』이잇고 商業、貨幣의 流通方面으로는 朝鮮資本主義의

分析 으로서는 朴? ... 李淸源氏의 『朝鮮社會史讀本』이잇고 朝鮮資本主義의 萠芽로서 林山樹人氏의 李朝末期의 經濟狀態에 關한 若干의 考察』이잇다。

그러고 萬一 朝鮮에 있어 도가장必要한것은 高麗 李朝時代를 通하야 朝鮮封建主義의 究明이다。이方面의 研究는 아직 開拓되지 못하야 暗黑面에 屬하고잇스나 直接現在의 資本主義朝鮮의 先行時代이니 그究明은 最近의經濟的政治的過程의 歷史的 具體的研究를爲하야 切實히 要望되여잇다。(完)

高句麗狩獵圖 平南江西郡同面三墓里의 高句麗古墳石室內壁畵의一部인데 昭和六年東京美術學校小場恒吉氏模寫로된 雄勁豪健의 技巧精細한것이다

恭賀新年

寧邊

平北寧邊郡泰平市 東仁金山 泰興金山 主金鳳炳

泰平面長

平北寧邊郡泰平市 東光醫院 醫生金政球

平北寧邊郡泰平市 姜德潤

平北寧邊郡泰平市 中華料理 度興園 主孫臨租

平北寧邊郡泰平市 金字圖

店平北寧邊郡泰平面館上洞 金燦奎

平北寧邊郡泰平市

機械修繕 自轉車 金盛商會

泰平農業實修學校 木材校長

平北寧邊郡泰平市 秋月館 主李鳳女

泰平公立普通學校

麟蹄

金基璿

麒麟面職員一同

麟蹄北面 李會奎

新豊釀造場 金洙龍

東鮮運送店 閔慶鎬

大昌商會 陳升業

麟蹄邑士曜會

江原道麟蹄郡邑內 善翼商會支店 金東鎬

麟蹄金融組合縣里支所 職員一同

麟蹄文廟掌議 韓國林

麟蹄文廟掌議 崔三峰

麟蹄釀造場 主申鳳休

冠岳釀造組合

趙慶勛

石田春哲

金東胤

富興商店

德泰東

牙山

湯井 南廷九

松岳 李伯善

新昌 吳榮善

新昌 金斗煥

新昌 承道京

温泉 林弼相

排芳 李敏雄

排芳 元容稷

排芳 姜泰元

牙山有志 李相薰

排芳面長 趙炳禹

新昌面長 姜璋熙

屯浦面長 成弘基

溫陽溫泉 食肉販賣店員一同

溫泉 崔容奐 溫泉 金明植

溫陽 李懋榮 溫陽 李丙昇

溫陽 金榮植 溫陽 尹極榮

溫陽 李仲穆 溫陽 金潤根

屯浦 廉相基 屯浦 董學奉

屯浦 尹鴻善 屯浦 尹境善

屯浦 金英均 排芳 禹誠烈

新昌 南廷斗 排芳 金英會

牙川 鄭民植 屯浦 尹敬炳

溫陽溫泉 明信堂時計店 李奇鳳

溫陽警察署 職員一同

牙山郡 公立學校長團

溫陽溫泉 京南農具商會 主李鐘煥

排芳面 職員一同

湯井面 職員一同

松岳面 職員一同

塩峙面 職員一同

陰峰面 職員一同

屯浦面 職員一同

溫陽溫泉 溫陽館 鄭昌九 電話五十番

忠南新昌驛前 新昌釀造場 主朴成煥

溫陽溫泉 朝鮮料理 太平館 主金喜璉 妓生一同 電話二三番

溫陽溫泉 朝鮮料理 明月館 主李海奉

屯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屯浦市 牙山炭浦平澤牙山直通 屯浦自動車部

忠南農業組合 溫陽支部長 趙貞範

屯浦面松岩里 李範秀

虎山釀造場 李炳宰

長在釀造場 李康福

牙山郡廳

溫陽水利組合

仁州面 職員一同

溫陽面 職員一同

溫陽溫泉 光盛旅館 李明九 電話五六番

忠南溫陽溫泉 溫陽醫院 李聖周 電話六六番

溫陽 溫泉釀造場

溫井面揷谷里 崔順七

溫陽溫泉 書籍 文化堂 電話五五番 振替京城二一一九六番

溫陽溫泉 溫泉精米所 主[illegible]

牙山金融組合 沈有澤

溫陽溫泉驛前 自轉車附屬品 正輪商會 金鐘植

屯浦市場 穀物貿易商 金月龍

忠南溫陽公醫院 崔敬東

屯浦市 東一商店 金鐘益

屯浦 和信連鎖店

松岳釀造場 李用勳

溫陽釀造場 金鍾壽

仁州面[illegible]里 日新釀造場 主朱致福

屯浦面新[illegible]里 林益善 裵中久

松岳金組理事 梁載協

溫陽溫泉 信昌商會 主李漢祥

溫陽溫泉 光興旅館 主李九周

溫陽溫泉 基浩

溫陽溫泉 大昌商會 李海玉

屯浦貨物自動車部 洪昌裕

溫陽溫泉 大聖商會 主李漢玉

溫陽溫泉 世星堂藥局 主任星宰

溫陽溫泉 宋雲燮

溫陽溫泉 趙龍九

溫陽溫泉 新昌精米所

文貨堂印章舗 宋貫[illegible]

屯浦里 金若冰

溫陽溫泉 中華料理 [illegible]

溫陽溫泉 第一[illegible]

溫陽溫泉 [illegible]

古朝鮮의再認識 大高句麗의雄飛

民族發展의大幹根 東方大國의建設

隋唐과比肩튼强大한國威를憧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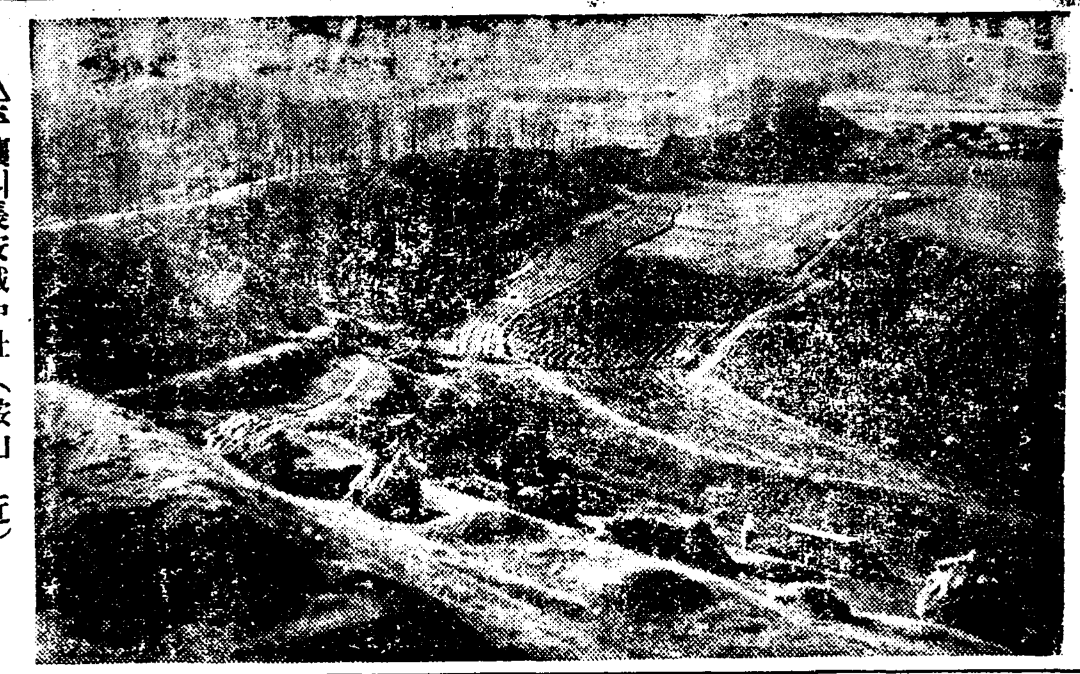
洪鍾仁

▲高句麗壁畫 江西郡三墓里의 天井古墳의 壁畫寫眞圖、小場氏의模寫

一、文化東進과 建國神話

人類文化 東進의 大幹線은 極東에 이르러 種族의 傳播와 한가지로、다시 南下하엿슬것은 必然의 勢일뿐더러、그足跡은 人類學者、考古學者가 한가지로 認定하는 바이라、半島의 地勢를 가진 朝鮮은 이에 北方에서 南下한 族屬의 住居이엇고、그 發達과 文化가 不斷한 北方人의 南進에 胚胎하엿슴은 記錄과 遺蹟에잇서 또한 昭明하다。五千年의 朝鮮歷史를 말하자면 檀君朝鮮 以前도 그 以後도 여기에 잇는것이다。問題는 歷史가 說話의 粉飾이 아니고 事蹟의探究와 考證에 立脚하여야 할것을 命하는 近代科學으로 記錄以前의 神話世界를 民族發祥의 象徵的 記錄으로 또는 先民의 生長의遺話로 記錄以後 卽歷史時代와는 明確한區分을하되 歷史時代와의 關係解明에 先民의 遺蹟과 아울러 決코 無關心하지는 안는다。『神話』의 資料如何에 잇서서는 더욱 硏究의 嚴格正確함을 要求하는것이다。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五千年歷史가운데 北方族

南下 의 記錄中 두가지의『神話』를 가젓스니 그하나는 高麗三國遺事의 桓雄天王이 熊女子와 假化而婚之하야 壇君王儉을 誕生하엿다는『朝鮮』의 開國始祖壇君神話이요 또하나는 鴨江對岸 輯安縣通溝에잇는 高句麗廣開土王碑文(西曆四一二年建立)에 보이는 『惟昔 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扶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出生子……』과 또 再昨年 輯安縣 通溝에서 發掘된『牟頭婁』의墓銘에 亦是 『河伯之孫 日月之子□□聖王元出北扶餘……』(小泉平壤博物館長의記錄에依함) 라한것과 魏書 高句麗條(廣開土王碑建立보다 百五十年以後의著書)에 亦是 『高句麗者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閉於室中爲日所照……旣而有孕生一卵…有一男破殼而出…字之曰朱蒙…朱蒙告水曰我是日子河伯外孫…』等이 잇는것이다



△平壤의長安城中趾（按山附近）

두가지의『神話』를들다。檀君神話는 高句麗 始祖神話보다 二千年이나 相距한것으로 想定된者라하거니와 記錄의 歷史로는 廣開土王碑文이 朝鮮族으로서의 最古의 記錄으로 壇君神話記述에 對하얏서는 勿論이다 그러고 後者는 現存한 文獻으로 三個處에 符合함을 본다、그러타고 記錄의 歷史가 오래고 文獻으로서 그出處가 여러곳이래서 더미더야할것은 아니다 大槪 神話의 取扱은 그內容이 古代의民俗、言語等에依하야 證明이 可能한가가 問題이다。그런데 兩者中 壇君神話는 開國千五百餘年에 朝鮮史上에잇서서 不分明한 存在인『箕子朝鮮』에서 中斷되엿슴이 歷史的事實로서는 難解의 宿題가 되여잇서 다시 後日의

硏究 를 기다릴바 이것이다。鄒牟王神話는 高句麗의 歷史時代와 곳連續되엿슬뿐더러 그高句麗는 朝鮮族의 先祖로서 일즉이 朝鮮半島 一隅에 미첫든 東方의 支配者 漢의 勢力을 驅逐한것을 爲始하야 隋唐에 이르기까지 中華의 大帝國과 幾萬兵으로 大接戰을하기 무릇 五、六次 疆域은 北은 遼東半島로부터 北滿 東滿에 이르고 南은 高句麗와 同祖의 北方族인 新羅 百濟의 北邊과接하기까지 東方諸族을 摺伏하야 國威가 强大하기로나 國土가 廣大하기로나 實로 極東의 毅然한 大國의 配布를 하엿든것이며 또 漢의 影響은 바덧스되 高度로 發達하엿든 그獨自의文化는 百濟 新羅를 經由하야 倭에 밋기까지 高句麗의 存在와 그發展은 朝鮮史 五千年의最大의記錄이요 最高의 자랑될것은 後孫된 우리의 榮光으로 이에더 愉快함이 다시 업슬것이다。

筆者 古朝鮮의 새認識을高句麗에서 찾고저 한도 그所以가 여기에 잇다할것이다。

二、北方族南下 와先史時代

高句麗東明王의 建國은 西歷紀元前 三十七年、漢의成帝建昭二年으로 計算되고잇다、建國의地는 卒本扶餘、沸流江上이라하야、扶餘의古地를 지금의 新京附近이되여 잇스므로、卒本扶餘는 沸流江 佟佳江의 富爾江附近이 아닌가하고 推定되고 잇스나、定說이 못됨은 勿論이다、또 朝鮮의 年代로보면、新羅의 始祖 赫居世王 二十一年이된다、이것에依하면 高句麗는 新羅의 建國에 뒤지는 事情으로 보아、朝鮮族의 先祖로서 新羅보다 高句麗의 存在를 重히 볼 根據가 어듸잇스며、또 兩者間의 關係는 어떠케 說하여야 할것이나 하는것이 多少 問題될는지 모른다。

이 說明을 爲하여서는 三韓族은 어듸서 왓슬것이냐 하는것을 생각해볼必要가 잇슬것이다 三韓族에對한것은 記錄이잇다해도 不分明하야 記錄만으로 說明키힘들다 오히려 考古學의힘을 비는것이 學問的으로 가장 妥當할것이며 半島의 先住民에對한遺蹟으로

一、上古石器時代住民의 墳墓인 『돌멘』과 巨石文化의 分布狀態로본다면 이는 大陸住民의 遺習으로 極東에서는 北滿洲方面에서 朝鮮半島에 多數存在하고 日本列島에서만은 發見되지 안는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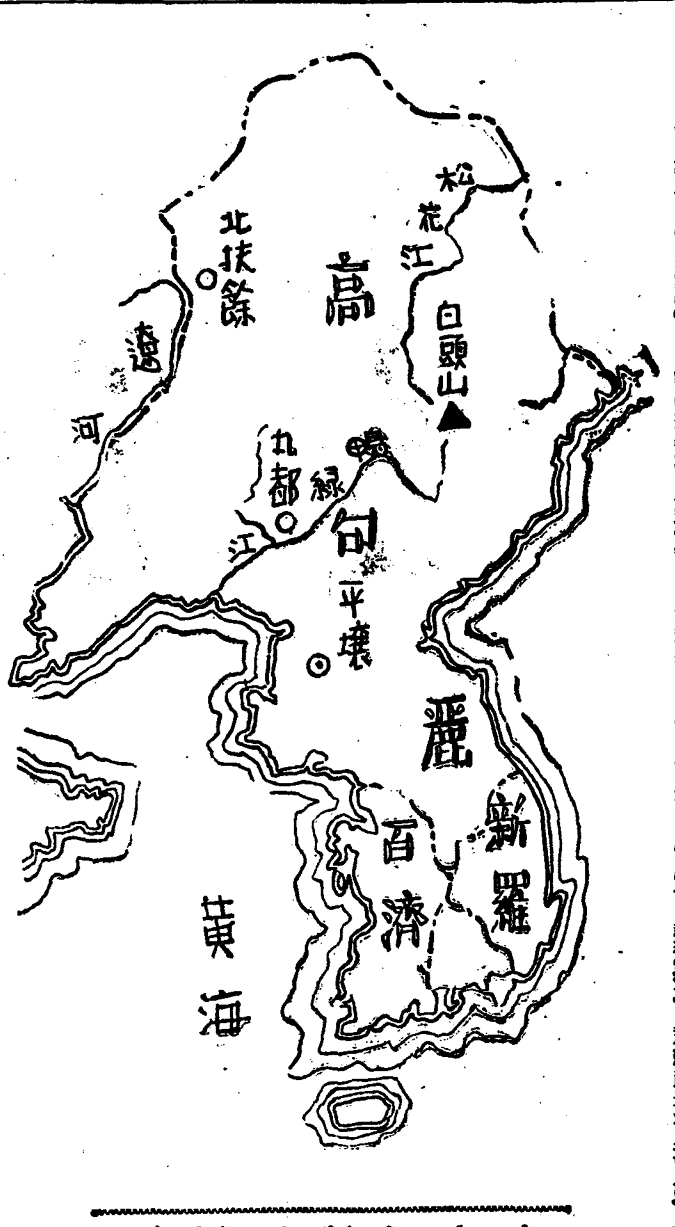
二、貝塚 亦是 石器時代住民의 遺跡으로 半島內의 處處에서 發掘되는것인데 그中 著名한것으로는 慶南金海와 其他慶南道內의것과 黃海道長淵夢金浦의것等이다 이는 古代住民이 食用으로한 **貝類** 殘骸이 堆積된것으로 그가운데서石器、土器等의 破片이 잇서이로서 古代住民의 狀況을 硏究하자는것이다 이에貝塚과韓과의 關係에 對한 學者의 結論으로는 全南 忠南 江原道等의發掘物은 慶南方面의것과 同類이고 北朝鮮과 西朝鮮方面의것은 또 다른中에도 京畿黃海 大同江以南 方面의것은 南北의 兩種이 錯雜하여잇다는것이다 여기에 對해서는아직 資料의 不足으로 學者間에도 北方族의南下에對한 斷定的判定을 내리기는 時代의區別과 아울러 힘든問題가되여잇다고는하나 南北의 兩種族이 全혀 關係업는것이라고는 立論이 全혀 不可能한것만은 斷言할수잇슬 程度이다

三、石器의分布도 『돌멘』과 아울러 上代의 遺蹟으로 北方에서 南으로 連續된事實을 본다

四、歷史時代에 드러가서는 百濟가 亦是 扶餘族으로 高句麗와 同一한 鄒牟王의 神話를 가진것 더 例를들것업시 三韓族은大體에 잇서서 時代의差는 잇슬지언정 北方族의 南下한것이라는說은 十分可能하다할것이어서 新羅와高句麗는 同祖의 種族이리라는것도 疑心의餘地가 업슬것갓다。

그런데 高句麗의 建國은 歷史時代의 記錄으로서는 新羅에 뒤떠러젓다고는하나、北方의 扶餘王의 一族의 南進한것이라고 본다면 鄒牟王(東明王)의 建國年代以前의 發達의 年代가

悠久 하엿슬것을 생각할수가잇다、또 特히 興味잇는것은 鄒牟王의 神話에 對하야 『天帝之子』로는 『日月之子』『日子』라고 한것은 英國의人類學者 메리博士가 『古代文明』의出發은 東地中海 그中에서도 埃及으로 이에서부터 亞弗利加、亞細亞、太洋洲、亞米利加等에 傳播한것이다 그 特徵으로서는 『日子』The Children of the Sun觀念의 存在에 잇다』고하야『文化繼續說』을 提唱한바에 想到할때 高句麗族의 發達이 人類發達의 正統的 階梯를 가젓다고 볼수 잇는點에서 朝鮮族의 先祖로 그 大幹을 삼고저하는바이다 더구나 歷史時代에 잇서 國力의 膨脹으로나 文化의 웃듬되기로나 百濟新羅의 類가 아니엇슴에랴。



大高句麗의版圖

三、高句麗族과 韓土諸族

西歷 第三世紀半頃의 著書인 中國의 魏志 東夷傳은 東方諸種族에 關하야 가장 詳細한 記錄을 남기엇다 卽 扶餘、高句麗、沃沮、濊、挹婁、韓等에 關한 記錄을 더듬어 高句麗의 存在를 밝힐수 잇는 同時에 北方族의 南下關係를 알수잇는것은 興味잇는바이다 以下 魏志東夷傳中에서 各種族의 風俗中 特徵잇는것을 摘記키로한다。그런데

濊貊 諸族中 韓以外의 族으로 滿洲方面에서 朝鮮의 中部以北의 諸族은 濊 又는 貊이라고하고 또는 濊貊이라고도하야 混同되여잇스나 이는 모다 朝鮮族의 古時代諸分派를 通稱한것이 아니냐고 볼것이다 即

一、扶餘三世紀頃은 지금의 吉林 新京方面으로 本是濊貊의 地이엇다는것이다 東方族中 城이 最廣하고 土地는 五穀에 適하며 國에는 君主가잇고 邑落에는 豪民이잇서 下戶皆奴僕。殷正月에는 祭天。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이를『迎鼓』라고한다 白衣를崇尙한다 刑을嚴重히하야 殺人者는 死、竊盜者는 十二倍로 償케하며 男女淫者는 皆殺之。

二、高句麗는 扶餘의 別種이라고하야 亦是濊貊族이다 大山深谷이 만허 山谷에 居하며

良田 이업서 힘서田作을하나 食糧不足。節食하면서 宮室을 다스린다。人性은凶急 國에는 王이잇다 其民歌舞를조와하며 國中邑落에는 暮夜에 男女群聚 歌戲 十月에는 祭天 國中大會名曰東盟 其公會에는 衣服은모다錦繡를입고 金銀으로飾한다 牢獄이업나 罪잇는者는 諸長이 評議하야 殺한다 葬을 厚히하되 積石爲封하고 松栢을 列種한다。其馬는 小하나 登山에便하고 國人은氣力이잇서 戰鬪에익다。

三、沃沮 高句麗東에잇서 지금의咸鏡南北道로 南北沃沮로區別한다 君王은업고 邑落에長帥가 잇슬뿐。言語는 句麗와 大同小異 食飮 居處 衣服 禮節이 句麗와갓다。句麗에臣屬하야 句麗는 貊布와 海產을 沃沮에서 獲得하엿다

四、挹婁 지금 間島以北 露領方面이다 土地는 山이만코險하며 其人의形相은 扶餘와가트나 言語는 扶餘 高句麗와 갓지안타。君長이업고 邑落에 各各大人이잇다 山林間에穴居한다 氣候는 扶餘보다 寒하며 夏는 裸袒 尺布로써 前後를가리운다

五、濊 北은高句麗沃沮에接하고 南은 辰韓 東은 大海에臨하엿다。지금의 江原道方面이다 따로히 大君長이업다 耆老는 스사로 高句麗와 同種이라고하나 性品은 厚하고 欲이적고 廉恥가잇다。言語法俗은 大體로 高句麗와 가트나 衣服은 다르다。同姓은不婚、疾病死亡이잇스면 곳舊宅을버리고 新居를지으며、麻布잇고、蠶桑、綿作한다、十月節에祭天。晝夜飮酒歌舞하며 이를舞天이라하야 扶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과갓다、馬의키는不過三尺、高句麗와갓다。

五、韓은 馬、辰、弁韓이잇서 國家를 이루지 못하고 數多의 部落的 小國으로 形成되여 잇섯는데 그數가 七十餘個國이다 魏志에 記錄되는 國名을 외자면 亦是吏讀法으로 三國史記等에 나오는 『朝鮮語』로 評譯하여야 할것이다、風俗을보건대 馬韓은 蠶桑을알며

綿布 를만든다 長幼男女의別이업고 牛馬를 탈(乘)줄 몰른다 五月 下種하면 鬼神을 祭하며 歌舞飮食、十月農功이 畢하면 亦그러하다。國邑에는 各各 一人을세워 天神을 祭하며 이를 天君이라한다、辰韓、弁韓은 馬韓과 갓다 土地는肥美、五穀을 심으며 牛馬를 乘駕하고 嫁娶禮俗이잇고 男女別이잇다 弁韓은 衣服居處가 辰韓과갓고 言語法俗도 相似하다。

東方諸族의 風俗等은 大略 이러한것으로 그言語風習等이 韓에 多少 달른바잇스나 其餘는 모다가 扶餘、高句麗와 同樣인것을 알수잇고 또 그中에서도 發達된文化를 가진것은 扶餘와 高句麗임을 알수잇다 結論으로는 南方族도 亦是北方族의 南下인것을 미더조흘것이다 兼하야 三韓族이 北方族이아니라면 陸地를 經由치 안코 海洋 건너왓스리라는것은 더구나根據를세우기 힘들것이고 또三國史記에 金富軾이 記錄을 망첫다는 것은 저마다 말하나 나로서는 그것을 辯駁하기보다도그史記로만 볼때에도 高句麗가 新羅建國보다압서리라는 想像은 可能하다

四、高句麗發展 과樂浪郡

近來의 朝鮮史의 硏究라고 東京、京城大學 其他에서 나오는 著書에 依하면 朝鮮史를 말할때 高句麗를 말하기前에 漢이 朝鮮中部를 征服하야 四百餘年間 平壤에 樂浪郡을 두엇다고、그記錄으로서 마치 朝鮮의 歷史時代가 始作되는것가티 말한다

事實 平壤、南郊、大同江岸 土城里 一帶의 古墳이며 그遺物들은 漢族의 것임은 틀림업다 平壤의 土城里를 樂浪의 郡治址로 認定하는데 그러치안타고할 根據도 업는것이다。그러면 樂浪郡이『朝鮮征服』에 어떤 地位에 잇섯스며、高句麗의 南進과는 어떤 關係에 잇섯는가를 밝히지 안코는 朝鮮史의 樹立과 高句麗의 發展을 알음에는 重大한 錯誤에 빠질것이다。

漢武帝의 元封二年(西曆前一○九)、衛氏를 伐하야 翌年에 이를 平討한다음 樂浪以下 眞番 臨屯、玄菟의 四郡을 半島의 中部以北으로 지금의 奉天方面까지에、治所를두엇다는 것이다。七郡은 그位置조차 不分明하다 그런데 置郡不過 二十六年에漢은 그郡城을大縮少하여 眞番 臨屯을 廢하엿다 또 그後二百八十餘年인後漢末期西曆二百四年頃에는 樂浪郡의 南部(黃海道)에 帶方郡을 두어 二郡으로하고 그後百餘年 西晉末期에

滅亡 하엿다는것이 四郡의 歷史이다 그러고 漢의 郡縣政治는 漢人의 子孫과 土族人中 그大部分은 土族이엇슬것인데 郡縣의 縮少等은 土族의 隆盛과 그反抗때문임은 勿論이다 卽中國地理志에 依하면 그漸次減退한것이 그關係를 雄辯으로 說明하고잇다

▲前漢書 地理志의 樂浪郡은 六二、八一二戶 四○六、七四八口 二五縣

▲後漢書郡國志의 樂浪郡은 六一、四九二戶 二五七、○五○口 一八縣

▲晉書地理志에는 樂浪郡 三、七○○戶 六縣 帶方郡 四、九○○戶 七縣

으로되엿다、이제 高句麗發展의 槪略을摘記하여 西部漢族、또樂浪郡과는 어떤關係에 잇는가를 알어보기로한다

▲瑠璃王、國內城(지금의鴨綠江上流西岸)으로移都

▲太祖大王(西曆五三ー一四六・在位九四年)東沃沮를 討하야 東은滄海(日本海)南은薩水(淸川江?)에至하여 玄菟를逐하고遼東을侵하여 國勢展擴。

▲山上王(西曆一九七ー二二七在位三一年)丸都(輯安縣通溝로지금 國內城이 同一한곳이 아닌가하는說도有力하다)에 移都

▲東川王(西曆二二七ー二四八在位二二年)漢은亡하고 三國時代에들어가

南方 의吳와通하여 魏를 制하다가 마츰내는 魏를遼東에서 처음물리엇스나 魏는始正五年(西曆二四四)毌丘儉來侵 丸都城이 攻陷되다

▲烽上王(西曆二九二ー三○○在位九年) 西晉의北方에잇는 鮮卑族慕容廆이 來侵。

▲美川王(西曆三○○ー三三一在位三二年)北中國은 五胡가並起하야 西晉이 滅하게되엿에 高句麗振作。(北方遼陽으로 避하여잇든 玄菟를 侵하고 南으로는 樂浪을 討伐하여 併合 그러나 慕容氏와 關係는複雜

▲故國原王(西曆三三一ー三七一在位四一年)慕容廆의子皝가燕王을立하야 王十二年에來侵。美川王의墓를 파헤추고 王太后 王后와 男女五萬을 捕虜하고 丸都城을 燒毁。이때에 高句麗文化는 크게일흔것이을알것이다、그러나 다시 國力을 恢復하여 燕이滅한後 南進策을써서 百濟를討伐中戰沒。

▲小獸林王(西曆三七一ー三九一在位八年) 高句麗의 文化는이때에 漸次隆盛하엿다。五胡十六國이 擾亂는 漢地와 交通을 頻繁히하여 佛敎를輸入하고 大學을 建立하여子弟를敎育하며 律令을 發하는等 國勢漸次

强大 하여젓다 佛敎輸入은 王의二年으로百濟가 晉(南方)에서 輸入하기보다 十二年、高句麗로부터 新羅에 傳播되기보다 五十年가량 일럿다。

이때까지에 高句麗는 모든發展의士臺가 完全히 서섯슴을 알것이니 這間에 樂浪郡을討伐한記錄이며 其他發展狀況으로보아 樂浪郡의存在가平壤을 中心으로 統治的으로 勢力을 가젓섯스리라고는全혀 미들수업다 또 遺跡으로도 所在의區域이 極히 局限된것이며 治址란存在가 都市의形態조차 이루지 못하엿든것으로보아 樂浪의置郡을 朝鮮史의한時代를 지은것가티 보려는 것은 큰錯誤가 잇슬것을 짐작하고남음이 잇다

六、廣開土王의 偉業

高句麗의 歷史는 第六代 太祖大王時代에 이미 種族의發展과 國土의開拓이란 部族의 大同盟體에서 民族集團形成의 氣運이 섯든것으로 볼수잇고 그後 西方과 北方諸族들과 許多한 衝突로 苦難의 時代가 連續되엿스나 元來 勇强한 氣力과 團結의 思想이 熾烈하엿든 高句麗族은 國力恢復에 마친내 成功하엿다 史記를 按索컨댄 第十七代 小獸林王과 十八時代의 故國壤王時代의 二十餘年은 文化의 꼬줄 피웟다고 할것이다 이때에 벌서 北方의 彊土를 널리고 南進 雄飛할 모든 準備가 되엿든것으로 볼것이다 마츰내 大國家建設의때는온것이다 卽第十九代『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立함을 보아 東方의 大帝國으로 南北에 國威는 빗나며 後代 朝鮮史 朝鮮民族의文化에 其礎를 永遠히 남기것다。

＝(以下三面繼續)＝

▽…朝鮮史上最古最大의記錄인廣開土王碑

珍島

珍島郡廳 珍島郡農會

나의아는여러분 丙子를보내고 丁丑을맛어서 나가자牛步가치 李心鍾

珍島邑內 高等洋服調進 土生洋服店

全南珍島郡鳥島面山井鑛業所 鑛業 崔衡禹 本籍 咸北明川府上古浦下洞二四四 現住 全南珍島郡邑內校洞里

珍島邑內 韓永敎

珍島警察署長 福本武能

珍島自動車部 電話三三番 許生者 許生勳 曺殷煥 曺才煥

珍島郡 海苔漁業組合

珍島邑內 韓明履

珍島十日市場道場 主 曺秉喆

珍島邑內 珍一醫院長 許爀

珍島物杞子出荷組合

珍島專賣局販賣所 田邊東太郎

珍島邑內 長春館

珍島邑內 明月館

珍島郡海倉里 近藤運送店 電話二○一番

珍島邑內 雜貨商 康興澤

珍島邑內 醫生 朴鳳欣

全南珍島郡邑內 和洋雜貨 綢緞布木 陶磁器類 珍島商品館 主務 韓喜敎

珍島邑內 蘇井奎

珍島邑內 大興商會 主 尹興述

珍島邑內 雜貨商朴熙在

珍島邑內 三和義護靴特約店 曺永煥

全南珍島邑內 敎世藥房 藥種商 金溶煥

珍島邑內 東雲旅館 電話一六番

珍島邑內 第一旅館

珍島邑內 中央旅館

珍島邑內 同和藥局

珍島邑內 三信堂藥房

博川

博川驛前 天日精米所

平北博川郡 面楸湖洞 金岩鑛山事務所

博川郡廳

博川警察署

殖産銀行 博川支店長 稱屋謹一

博川面職員一同

博川邑內 春和館宋龍燮

博川郡守 桂燦謙

博川面西川洞 朴炳葉

平安北道博川驛前 東亞蠶絲株式會社 博川出張所 電話三八番

博川邑內 李載禧

博川邑內 博川醫院 金禮容

博川邑內 濟衆醫院 邊四益

博川郵便所長 荒川洸

博川驛前 大昌運送部 韓燦燮

博川邑內 ⊙運送株式會社 代表者 李炳彩 電話三一番

博川邑內 各種金物雜貨卸賣 各種農具肥料販賣 博川金物商店 主 金相國

博川水利組合

平北博川驛前 大光堂印刷所 振替京城一六○三一番

穀物貿易 光信商會 電話博川三五番

博川邑內 金山商會

博川邑內 吳允贊

博川邑內 春日旅館 洪利斗 電話四三番

原木製材 セメント 石灰 スサーリ 土管 煉瓦 委託 博川邑 崔瑞奎商會支店 主任李龍星

食料品 諸雜貨 委託業 卸商 林商店 電話二九番 振替京城一二八四番

日用雜貨 各種帽子 化粧品 メリヤス 販賣 李泰日洋品店

博川邑內 長春館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博川出張所 古賀潤一

博川邑內

絢爛! 地下의 文化

考古學上의 收穫

丸都城과 平壤地方遺蹟

一、考古學의 意義

歷史研究의方法은 種々 廣汎하여 幾千年乃至幾萬年의 人類歷史를 考究함에는 모든科學을 總動員하여 研究의方法을 삼는것이다 더구나 上古史에 잇서서는 記述이 元體不足한데 또 그記述이란것이 不分明한바만허서 各方面으로 古文獻을參考하는外에 實際의 物質文化의遺跡, 遺品의 考證에서 다시歷史記述의 正確을어들수잇는것이다 卽考古學의 收穫은歷史學에 重大한光明을던지고잇스니 우리高句麗史의 研究에는더욱 그러하다 本來三國時代의 記述中 高句麗에 關한記述가티 不足한것이엇섯다 또 그遺跡에 對한研究도 重要部分이 鴨江對岸에 잇는關係로 治安上 危險한地帶에 잇서 亦是不足하엿다 幸히再昨年以來로 輯安縣通溝(古丸都)를 中心으로한遺蹟의 探究과아울러 平壤中心의 遺蹟에 對한研究가 盛行하야 絢爛한地下文化가 發掘紹介됨은 기쁜일이다 高句麗史의 一斑을紹介하려는 筆者도 考古學의 收穫을 紹介할 必要를늣기어 通溝中心과平壤中心의 遺跡을一瞥코저하며 아울러 古史研究上 重要한問題인 地名, 川名等에 關한古名稱에도 多少言及코저한다

二、『벌내』『아리내』의古名考

먼저 古地名, 川名等의 古名稱中 지금에 남어잇는것으로 史學界에 問題가 되여잇는『벌내』와『아리내』에關한學者들의 諸說과 淺見의 一端을 말해보고저한다 그中에는 所謂創見도 잇슬는지몰은다 本來 이紙面을 빌어 亂暴로 이런問題에 論及하려는것은또 無理이기도하다.

×

北滿에서 부터 南滿으로 半島南方까지『아리』와『벌내』라고 읽어야할 川名과 地名이 만흠에 地圖를 읽는者 누구나 注目할것이다.

一、『아리』 아리에 對해서는 가장北上에 널리알리워진 鴨綠江의『아리나르』또는『아리나례』또는 中國語로『아르』等의 稱號가 잇다 이것을『아리』는 오리(鴨)의意라고하야 『鴨綠』이라고 씨운것가티 말하는이도잇는모양이나 이說은 疑心되는바만타 勿論 古時代의

氏族 社會를規定하는토템이즘(Totemism)에依하면 古時代人은 動物名其他自然에서 名稱을따서 氏族名으로한것이 通例이다 高句麗史의 始初에 잇서서도『日子』原想에發源하야 東明王이『烏伊』『牟利』『陜父』의 三名을引하야 扶餘에서 南下하엿다는 記錄에나타나는 三人의名稱도 정녕『오리』(鴨)『말』(馬) 뱀(蛇)에 因한것이아닐까 烏伊와牟利의 語義에는 別로疑心업시 누구나 認定할수하다 『陜父』를 『뱀』으로읽는데는 이러한 論證이可能치안흘까 卽 『뱀』은『배미』인데 日音은 へび音으로通할수잇다 그러고 日本內地語音에依하면 蛇를 『ヘ』『ヘミ』『ハブ』라고 한것과 相通하는 語系임을볼때 『陜父』를 『뱀』이라고읽을수잇슬것가다. 그러고 뱀은人類共通의 敬畏物이요 崇拜物이기도하여 『토템』으로서는어데나잇는것이다. 이야기는다시 鴨綠江의『아리나르』(나르는津)로 도라가보자 그러나 鴨綠江의『아르』는 南의(앞)(A B P)으로 읽는說(今西龍博士 金澤博士)이 올흔듯십다 卽『앞』을오늘『압』이라고 읽으나 그語源은 南, 前, 下等의意를 가지고 方向을 가르키는『에』의 助詞가 달릴때에 『아례』라고 읽을수잇는것이다 그러고 이『아리내』또는『아르내』의名稱의 地理上分布를 大略추려보면

一、北滿(齊齊哈爾以北鐵道沿線에 雅魯라는 地名이 二個所나잇고 川名에는 雅魯江又는 雅綠江으로 記載된것을보면 이것이『아르』又는『아레』라고 읽을것이다 또

古人 은 내(내)를 따라 住居를 찻고 그居住地에地名을 부친것이 만흔中 中國史記에도잇다 卽 三國誌 扶餘와 高句麗族에 顯著한것은 에『句麗作國好傍大水而居』等.

二、松花江의 『숭아리』『소아리』또는 『숭가리』等으로 읽을수 잇다고 主張하는說도잇스나 未詳

三、好太王碑文에 『鄒牟王의南下路에 『夫餘奄利大水』가 잇고또 半島內의川名中『阿利水』가잇고

四、또新羅에 閼川이 亦日本書記에 『阿利那禮』라고 읽은것으며

五、南川이 亦그러하고 利川도 阿利에서 나온것으로볼것이다 이러한川名이 北에서 南으로 남어잇다는것은 모두 北方族의 南下狀況을 說明하는 補足資料가될이 有力할것이다 卽 北方族의 發展은 큰江을 沿하야 南으로 前으로 下流로 溫暖한 平野地帶를 차저간다는 思想의表現으로 그러한 名稱이 생긴것이 아닐까 시픈것이다

벌내 먼저『벌』은平、坪、原等의意를가진것이다 卽平野地帶를 意味한것이니 前記『아레』原想과 共通된다. 漢字로 記寫된것으로는

一、哈爾濱南方에 『卞[illegible]江』『盆路江』이 잇고 또 揷江支流에『富爾江』또는『沸流江』이 잇다.

二、또 南滿에서 西北部朝鮮에 들어오며 『大平川』『平川』의 名이 잇스니 이亦是 『벌내』인데 平壤地方의 『平川里』와 『漢陂里』『大平里』가 모다 그러한것이니 『大』『漢』은 『한』(卽大의意)으로 읽을것이다.

三、平壤도 亦『벌내』이니 三國[illegible] 리』와『벌내』의關係는 어떠나 이는 다시研究를하여야 할것이나 北方族이南下한 時代上差가잇지안흔가 하는推測이간다

平野 [illegible]

[illegible] 四、또 滿洲에 [illegible] 又는 [illegible] 子等의 地名川名이 잇스니 이 亦『벌내』가 아닌가하는 내 所見이다 卽 [illegible]는 『벌』이니 『[illegible]내』에서 『벌내』로변한 것이 될수잇지안흘까 이 夫餘는 北扶餘의古地名으로 아직도 『伯都訥』(베드나)가남어잇스니 [illegible]河와同稱의 記法으로볼것이다 『벌내』名稱도 北方族의 南下를 暗暗할만한것인데 그러면 『아

通溝에서 發掘된 四神塚의壁畵玄武圖(左) 同地의 角抵塚의 狩獵圖(右)

三、丸都의遺族

高句麗의 古都『丸都城』에對해서는『國內城』과同地이라는 說이 近來에 有力하다 丸都中心의遺蹟을 보면 通溝北方小山에 古山城址가잇는 山城子가잇고 通溝의小平野에 그都城址가 남어잇서 이것을옛날의 丸都이라고 指摘되고잇는데 遺蹟으로는 가장有名한 廣開土王碑가 그近方에 잇고 其他에 無慮數千乃至萬을 헤아리는 多數의 石塚, 土墳의 古墳이잇고, 到處에 高句麗時代의 瓦片이 散在하여잇으로 有名한것은 將軍塚이란 것이며, 그築法으로 보아 石塚은 土墳보다 時代가 多少 일렀을것이라고 하며 土墳은漢의 形式을 바든것이라고 보고 잇다 根據는 거의 疑心업는데까지 研究가 되여잇다 그一帶에서 發掘된古墳으로有名한것이 벌서十數基인데 그中遺物로 著名한것으로는

▲四神塚 靑龍 白虎 朱雀 玄武를配한 雄大, 壯麗精巧한丹靑의繪畫가 四壁과 天井에잇는것으로 그築法은平南江西古墳과 大略가트나 線이雄强한法이 發展한將來를 알수잇고 覇氣勁한氣象이 넘처잇슴을볼수잇다 江西것이 이미 爛熟한線의妙를보이고잇슴에比

△通溝의四神塚天井의神人圖

에서 北方二町의 [illegible]에잇다 不正方의 四角形의 自然石으로 高二十一尺, 各面의 幅五尺乃至六尺五寸, 四面에 모다 隸文字 一千八百餘字로 王의 先祖 鄒牟의 南下로부터 王의 功績을 記錄 朝鮮史의 貴重한 史料로 어느記錄보다도 最高의것이다.

二、丸都城址는 北南約五町、東西約七町半의 周圍를 가진것으로 都城이 잇는모양이다

三、丸都山城址는 通溝에서 北方約三十町에 잇는 六百六、七十米의 山으로 둘려잇는盆地로 山上을 둘아가며 自然石으로

築城 하엿든자최와 貯水池가 남어잇다.

四、古墳에는 石塚과 土墳이 到處에 散布되여잇는데 石塚

[illegible] 內容이 [illegible] 舞踊등의 [illegible]를 각가지로그린點이 [illegible]잇는것으로 아직 이러한繪[illegible]는 만치안타

▲角抵塚 壯丁이 씨름을하는 것을 그린것인데 今日의 씨름이나 조금도 달으지안타. 果然씨름은 朝鮮의

國 技임을 이에서 잘알것이다.

▲平南龍岡、本文序頭에 紹介한 銘文이 잇는것을 高句麗古墳에서 一行十字八十三行의 文字를 남긴것은 처음으로 廣開土王碑文에 다음가는 古記錄이다.

그外에도 美人塚、千秋塚、西大塚、臨江塚、蓮花塚等(塚名은 發掘時便宜上부친것) 이만타. 이것이 모다、太祖大王以後 長壽王平壤遷都以前의 遺跡이니 近二千數前의것으로 가장燦然한文化의자최를 차즐수잇슴은 다만 驚愕의念을 이르킬뿐이다

四、大平壤의遺蹟

文化의發達이 그極에 達하엿든 平壤時代의 遺蹟研究는 高句麗研究의 殆半을 占할것이다 그러고 遷都後二百四十一年間의 遺蹟이라고 볼것은 너무도 만코 그間紹介된바도 만허 길게 紹介할 餘地가 업슬것갓다 그러나 그大略을 적고저한다

一、淸岩里 大同江 牡丹峰 東北方約十町許에 잇는 大同江岸 淸岩里에서 酒岩山으로둘려잇는 土築이잇고 그附近에는 高句麗時代의 古瓦가 만히出土되며 여기에도 古宮이 잇섯스리라는것이나 어느時代의것이나하는것은 아직 考證의길이업다

二、大城山城과 安鶴宮址 平壤에서 東北 約一里되는곳에잇는 標高二百七十米의 山이잇고 山의周圍에는 石築의崩壞한자최가잇고 山上에도 高句麗 古瓦片이만코 또 山內에는 丸都山城것과 마찬가지로 處處에 못(池)이 잇스니 軍事用의 貯水池로 또는 佛寺의遺趾로 볼것이다 또 山南麓下에는 南北五六町 東西六七町가량의 土築이 잇스니 이를 安鶴宮趾라고 傳한다 그名稱의 出處는 不分明하나 城內에는 築壇한자리와 또 其直徑二三尺가량의 圓形의 花崗石 礎石이 두개나잇고 또 紋樣이 妙한 多數의 古瓦가 만히出土되고 잇다 古瓦는 丸都것과 가튼것도 만허 高句麗遺蹟임은 틀림업다 그러나 어느時代의것인지는 未詳하다

三、蒼光山下天宮址、現在 兵營잇는곳으로 長安城以后의王宮址라고 推定되는곳이다 建築物이 잇든 자최가 古瓦며 礎石의 發見으로 充分히 짐작할수잇고 그南方에는 遺路가 잇섯든듯한 井然한 區劃이 잇든자최를 按察할수 잇다는것이다.

四、長安城、城은 大同江岸을西部 普通江岸에까지 둘린 大規模의 土城이다 그周圍가五

[illegible]

五、古墳은 平壤에서 大同江上流地方으로부터 下流에는 大同郡 江西 龍岡郡에 無數히잇다 大城山麓에도 數百基가잇서 그數는 아직 調査가 完了되지 안헛다 著名한者로는 龍岡 江西에

▲龍岡郡에 四神塚 合雙塚 星塚 大塚 雙楹塚

▲江西郡에 遇賢里大墓 中墓等이잇다 이것들은모다 土墳으로 室內는花崗石으로 다듬어 途 玄室等을 雄大하게만들고 各種의精麗한畵繪를 丹靑을 가추어 그린것이다 그手法이 纖細美麗한것이 高句麗文化가 이미 成熟한 무엇을 말하고잇다

(二面繼續)

六、[illegible] 城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長安城의 城石이잇다 大正二年 平壤府[illegible]里 大同江岸의 城壁中에서 [illegible]것이다 [illegible]一尺 幅二尺二寸 厚一尺의 [illegible]石으로 石刻文字는

丙戌十二月中 漢城下 後卩小兄文達 節自此 西北行 涉之

라하엿다 그文意는 『丙戌十二月漢城下 後部 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라고 읽어야할것으로 學者間의見解가 大略結定된모양이다 卽 小兄이라는 官名을가진『文達』이라는 사람이 城石이잇는곳에서 西北의築城을 監督하엿다는것이다. 또 漢城이란것은 곳 長安城의意니 漢字는『한』(大)이어서『한재』卽大城이다 平壤의高句麗山城잇는山이大城山인데 그뜻이요 京城이 漢城인데도同意이고 江名의大同江도 亦是『한개』(大江)의 意이며 漢江도한개 (大江)인것이다 丙戌의年代에對해서는 長壽王三十四年과 平原王八年(西紀五六六)中의 어느것이될것인데 平原王時代일것이라고 推定되고잇다

七、平壤遷都와 大國家形成

高句麗가 大平壤의 國都를創建하고 國威가 四海에 떨칠때 中國에는 隋, 唐의 大帝國이隆起하여 統一國家로서의 그經略은 高句麗와 相衝됨이 만허다

▲嬰陽王九年(西曆五九八)에 隋文帝 水陸大兵三十萬을 率하고 東侵을 計劃하엿스나 遼河附近에서 對時할새 隋는軍糧의 缺乏과 疾疫의流行으로 大敗를 當하고退去

▲嬰陽王十八年(西曆六〇七) 隋煬帝時에 高句麗가 北方의 突厥과 通합을보고 高句麗의 使者에게 隋에入貢할것을 말하엿스나 不應하여 다시接戰 王의二十五年 隋百十三萬三千의兵을 이르켜 水陸으로 來侵하엿스나 高句麗는 勇猛히

善防 하여 前後三年間三回의 大接戰을 게속하엿다 記錄는 마침내高句麗가 降하여 休戰되엿다하나 隋는이에 別般의 所得은업고 高句麗는 侵略을 바든바 損은그리크지안흔는 모양인데이때에隋는 國力을 屠한接戰에 國運이 衰하여 滅亡의因이 되엇이다 다음에 唐에이르러 漢族과의問題는 다시延長되엿다

▲그後 榮留王時代에 新羅, 百濟와 의關係가 複雜하게되고, 唐이 이에介在하여 高句麗의 勢力과 對峙되엿섯다 그러든中 다음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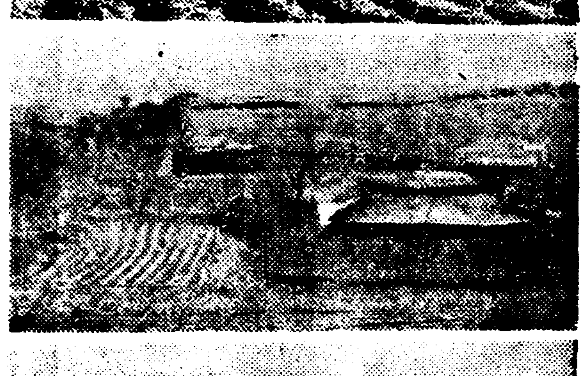
▲寶藏王四年(西曆六四五)唐太宗貞觀十九年에 陸兵十萬 船師七萬의大軍을 動하여 來侵하엿스나 鴨江附近에서 다시 進攻을 못하고 敗退한것이다

▲얼마후 百濟義慈王 十七年(西曆六五七)唐과 新羅의合軍에게 亡하엿다

▲寶藏王二十年(西曆六六一)唐은 百濟를 討平한 餘勢로어데 平壤에來侵하엿스나 退去

▲王의廿五年(西曆六六六)唐은 全力을 다하여 新羅兵과 合勢하여 攻擊하기를 三年에 平壤은 陷落을보고 大高句麗의 歷史는新羅의 統一史에 뒤를 물린것이다

高句麗의 敗北는 亦是 高麗國家社會에 어떤內部的 事情도 잇슴을 斜明치안코 그終由가 다만 兵力의數로만 헤일것이다 何如튼 高句麗가 隋文帝와의 對峙後 約七十餘年間 文帝, 煬帝와 唐의高祖, 太祖, 高宗等五代의 두中國史上의 名君이라는 그治下의 大國家와 엇개를겨눈 그歷史는 果然 壯하다 할것이니 그民族의發展이야말로朝鮮民族先祖의 雄飛로 길이길이 사랑하며 研究할바이라할것이다 (끗)



▲平壤의遺蹟 上으로부터 大城山과 그附近 古墳群, 大城山上의 貯水池, 安鶴宮, 土築城, 同城內, 淸岩里의遺蹟

賀正

神戶

神戶市林田區大橋町二丁目六 釜山ゴム工業所 朝鮮運動靴 長靴 防寒靴 主 張性源 電話湊川(5)三二六八

神戶市林田區大橋町四丁目七ノ二 小型自動車 オートバイ 販賣修繕 耐久モータース商會 中村惠一 金好質 本籍全南木浦部(?)東八六

神戶市林田區刈藻通リ五丁目四八 西村精米所 主 金泰守

各種補藥、丸散貼藥、人蔘鹿茸 藥材漢藥、醫療洋藥、有名賣藥 保命堂藥房 鍼灸科 劉敬烈 神戶市林田區御藏通五丁目九〇ノ七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丁目一 醬油、酒類 白米 朝鮮소리 山中商店 主 崔日曉

林田善隣館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二丁目一六七 荒川喜平 李子順

神戶市林田區大池町二丁目一四〇 綿織布木商 金泰鎬

神戶市林田區神樂町四丁目 喫茶愛國 中浦文子 申鉉台

神戶市兵庫區松原通六丁目十八 久丸商店 主 梁仲玉

魯荒 魚粕 肥料 製造業 裵得基 營業所 神戶市林田區刈藻通五丁目八九 自宅 神戶市林田區刈藻島町一百一

神戶市林田區日吉町一丁目一〇〇 但若松學校北門前 米穀薪炭商 韓仁元

神戶市林田區三番町一四九 各種洋靴製甲所 李基鍾

神戶市林田區刈藻通六丁目一ノ二 文化洋靴店 主 金泰順

神戶市林田區東尻池町四丁目二八四 綢緞布木 朝鮮布木商店 主 崔鍾七

神戶市林田區五番町五丁目一二一 吳田靴商店 主 吳清珉

神戶市林田區梅ケ香町一丁目二三 佛教布教堂 徐在根

神戶市林田區一葉町一丁目二 光小理髮館

張今年 醬油特約店 ダシ 本籍 全南康津郡康津面平洞里 現住 神戶市林田區三番町四丁目四

本籍 全南康津郡康津面平洞里 現住 神戶市林內區三番町五丁目一四 鐵鋼商店 張德信

神戶市林田區腕塚町一丁目二六 清元堂 主 金在淳 亨 京義線町里院 邊根

神戶市林田區久保町二ノ一八 醬油 味噌 淸酢 天狗屋支店 金碩俊 本籍 慶南東萊郡南面海雲台中里

神戶市葺合區吾妻通五丁目一五 內鮮米 御商 埴岡店

神戶市林田區管原通三丁目一二九 山本洋服店 高級洋服調進所 主 李長春

神戶市林田區五番町六ノ一九 共營米穀商 主 梁朱晩

神戶市林田區神樂町四丁目一二〇 金富坤

製紙原料商 谷山商店 康斗弘 高庚生 本店 神戶市林田區刈藻通六丁目四六 支店 同市林田區梅香町二丁目一ノ九

神戶市林田區細田町三丁目五七 古ゴム製造 中山商店 主 泰洪 電話兵庫三三五七番

神戶市林田區東尻池町八丁目四一 合名立花洋服店 李立花允善 龍蔵

神戶市林田區大池町二丁目一四一 泰一漢藥房 主 朴泰洪

甕津

甕津醫院 院長 方在善

甕津郡馬山邑內 坂本長作

甕津郡邑內 公醫 李官錫

甕津郡邑內 馬山醫院 院長 李景化

甕津郡邑內 東光醫院 醫師 李鵬漢

甕津郡馬山面 面長 朴昌大

甕津邑內 大成堂藥局

甕津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甕津金融組合 理事 田宮博

黃海道甕津郡康翎 康翎醫院 公醫 黃在仲

甕津郡茄川面 面長 姜元熙

長仁商店 許仕仁

甕津郡邑內 朴允五商店

東光堂藥房 李潤龍

甕津郡邑內 朴相業商店

甕津郡邑內 司法書士 湊泰文

甕津郡邑內 富樂

甕津郡龍淵面 面長 李有稷

甕津郡邑內 文化屋洋服店 尹炳九

甕津郡邑內 代書人 表準漢

甕津郡邑內 代書業 朴憲龍

康州邑康翎自動車部 元官燮

富民面 職員一同

甕津郡東南面堂峴里 柳根永商店

甕津郡西面念佛市 龍湖醫院 醫師 尹成元

康翎邑 司法書士 鄭德淳

甕津郡邑內 東光齒科醫院 院長 申在善

龍湖島水產試驗場 龍湖島公立水產實習學校

黃海道甕津邑 三省商會 金元模

甕津邑 三井物產株式會社特約店 共益商會

甕津郡邑內 甕津藝妓組合

甕津郡邑內 スキナバー

甕津郡邑內 黃元春百貨店

甕津郡邑內 金鳳權

甕津郡邑內 馬山自動車部 金斗衡

甕津郡東南面堂峴里 酒類販賣和洋雜貨穀物貿易 永信商會 柳寅涉

甕津商業組合

甕津郡邑內 姜喆熙

甕津郡邑內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甕津支店長 曺圭成

甕津郡邑內 司法書士 吳恩淑

甕津郡馬山 司法書士 趙昌九

朝鮮中華料理 東一館

甕津郡邑內 海陸物產貿易委託販賣 兄弟商會

甕津郡邑內 海州殖產株式會社馬山支店

甕津郡邑內永信商店 自轉車及附屬一式 申淳五

甕津郡邑內 光鮮商會 張在衡

甕津郡邑內 印刷所

甕津郡邑內 鍾信堂時計店

甕津郡蘇江 穀物貿易 朴炯健

甕津郡蘇江 穀物貿易 玄在敏

甕津郡西面蘇江 蘇成會一同

甕津郡西面蘇江 天一堂醫院 醫師 李俊鎬 藥劑師 森下正元

甕津郡西面 甕津金融組合蘇江支所

黃海道甕津郡馬山面溫泉里 溫泉產業組合

甕津郡役所 所長 時弘獨市

甕津郡邑 藤本善吉